산업, 교통 · 통신 · 관광, 해운 · 항만

제6편

1장 __ 산업

1. 농업
2. 축산업
3. 임업
4. 수산업
5. 공업
6. 상업
7. 금융

2장 __ 교통 · 통신 · 관광

1. 교통
2. 통신 및 전기
3. 관광 · 레저

3장 __ 해운 · 항만

1. 해운 · 항만

여 백

1장 산업

여 백

농업

제1절

1. 토지제도의 변천과 평택

토지제도란 토지의 이용, 관리, 거래, 소유 등에 관련된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토지제도의 변천과정을 규명하는 일은 특히 토지 소유를 둘러싼 인간 사이의 상호관계, 즉 토지소유관계를 고찰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역사상 각 시기별 토지제도의 변천과정과 특징은 생산력의 발달 수준 및 그것을 둘러싼 생산관계의 변화상 등을 잘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제도의 변천과정과 관련하여 평택지역을 살펴보는 일은 평택의 역사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토지제도와 관련된 평택지역의 사료가 한정된 탓에, 평택지역만의 토지제도를 고찰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런 까닭에 토지제도 변천의 일반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평택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고대사회의 토지제도

원시사회에서 토지는 원래 필요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연의 일부였다. 원시공동체가 토지 소유의 주체였고, 이로부터의 생산과 분배 역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생산 및 공동분배의 형태로 이뤄졌다. 그러나 생산도구의 변화 등에 힘입어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잉여생산물이 생성되면서, 그 획득을 둘러싸고 사회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점차 공동생산에서 개별생산으로의 이행을 초래하게 되었고, 개별생산은 사유재산제도를 발생시켰다. 처음에는 농기구, 가축 등 동산의 소유에서 시작하여 점차 부동산, 특히 토지의 사적 소유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 고대사회에서 사회적 계급이 발생하고 이를 토대로 토지소유관계가 형성되고 있었던 사실은 하호(下戶)의 존재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중국의 역사서인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는 부여, 고구려의 하호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부여의 경우 "읍락에는 호민(豪民)이 있고, 민 가운데 하호는 모두 노복(奴僕)과 같았다"[1]라는 기록이 있다. 또 고구려에서는 "나라 안의 대가(大家)는 농사를 짓지 않고 앉아서 놀고 먹는데, 그 수효가 만여 명이나 된다. 하호는 멀리서 양식이나 생선, 소금을 운반하여 그들에게 공급한다"라고 하였다. 하호에 대해서는 노예적 존재로 보는 견해, 공동체 구성원으로 보는 견해, 봉건적 농노로 보는 견해 등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그러나 어쨌든 당시에 호민과 같은 지배계급이 존재하고, 하호 · 노비와 같이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피지배계급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삼국시대 신라와 백제에서도 비슷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 시기 토지지배관계의 형태로서는 신라의 식읍(食邑), 녹읍(祿邑)처럼 왕족 · 귀족 및 귀족관료의 경제적 기반으로 역할을 한 토지 유형 역시 존재하였다. 녹읍은 귀족관료에 대하여 그들의 국가에 대한 봉사 · 복무의 대가로 국가가 지급한 일정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귀족관료는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조세(租稅)는 물론 공부(貢賦), 역역(力役)까지도 수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식읍 역시 녹읍과 유사한 성격의 토지지배 형태였지만, 녹읍이 관료의 관직복무에 대한 대가 · 보수로서 지급된 데 비해 식읍은 특별한 공로에 대한 보수 혹은 상여의 뜻으로 하사된 것이었다.

2) 중세사회의 토지제도

(1) 통일신라시기

삼국통일 이후 신라는 중앙관제, 지방제도, 군사제도를 개편하는 등 점차 집권체제를 정비해 나갔고, 그런 가운데 토지소유관계 역시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는 중세사회 토지소유관계의 초보적인 단계로서, 대토지를 소유한 지배층이 존재하고 있었고, 일반농민층의 토지 소유 역시 광범위하게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배층은 전장(田莊)이라 불리는 대토지를 소유하여 장사(莊舍)를 설치하고 지장(知莊)을 파견하여 관리 · 경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적 토지소유의 바탕 위에 국가는 문무관료 및 관아에 토지를 나누어 주고 있었다. 687년(신문왕 7) 관료전을 나누어 주었고, 689년(신문왕 9)에는 내 · 외관의 녹읍을 혁파

1) 이 부분은 "읍락에는 호민이 있고, 하호라 이름하는 백성은 모두 노복이 된다"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하는 대신 조(租)를 나누어 주는 조처를 취하였다. 또 722년(성덕왕 21)에는 백성에게 정전(丁田)을 지급해 주었다는 기사도 찾아진다. 그러나 녹읍제도가 혁파된지 약 70년을 경과한 757년(경덕왕 16)에 이르러 녹읍제도가 다시 실시되는 과정을 겪는데(후기녹읍), 이러한 녹읍제도의 혁파 및 재실시 과정은 녹읍제도의 부활을 희구하는 귀족관료의 세력이 강했던 당시 사회의 성격과도 어느 정도 관련된 것이었다.

한편 1933년 일본 정창원(正倉院)에서 발견된 촌락문서는 서원경(지금의 청주) 주변의 4개 촌락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데, 당시 토지제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다. 이 촌락문서의 작성시기에 대해서는 695년, 755년, 815년 등 학계에서 아직 논란이 많은 실정이지만, 각 촌락의 범위, 호구조사 내용, 소 · 말의 수, 전답의 면적, 나무의 숫자 등이 3년 단위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문서에는 촌주위답 · 연수유전답 · 관모답 · 내시령답 · 마전과 같은 이름의 토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촌주위답은 촌주에게, 연수유전답은 촌락민들에게 지급되었던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의 토지소유관계는 모든 토지를 왕의 소유로 관념하는 왕토사상(王土思想)이 존재하기는 하였지만, 이것은 국가재정상의 이유로 형성된 관념적인 것일 뿐, 실제로는 개인적인 소유가 인정되고 있었다.

한편 통일신라 말기 중앙 정치권력의 혼란을 틈타 수도 경주를 벗어난 각 지역에서는 거의 독립적인 세력을 유지하며 지역을 지배하는 호족(豪族)들이 등장하였다. 그런 가운데 나말여초 시기에는 이들에 의한 대토지겸병 현상으로서 농장(農莊)이 각 지역에 형성되기에 이른다. 평택 지역의 경우, 이 시기 호족의 동향과도 관련하여[2] 농장의 대두를 어느 정도 상정할 수 있겠으나, 자세한 것은 자료의 미비로 알 수 없는 실정이다.

(2) 고려시기

고려전기 토지제도의 기반이 되는 것은 전시과제도(田柴科制度)였다. 이는 문무관료 및 서리, 향리, 군인 등 직역 부담자에게 그 복무에 대한 대가로 전지(田地)와 시지(柴地)를 지급한 제도였다. 전시과는 976년(경종 1)에 처음 제정되어 998년(목종 1), 1014년(현종 5), 1034년(덕종 3)에 수정 보완되어 1076년(문종 30)에 이르러 완비되었다. 문종 30년에 완비된 전시과의 규정에 따르면, 전시 지급대상을 모두 18등급으로 나누어 각 등급별 전시 지급액수를 규정하고, 또 그 지급받을 자의 해당 관직명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일반전시과 이외에 고려시대에는 별정전

2) 나말여초시기 평택지역의 인근에 존재한 호족세력으로는 죽산의 기훤(箕萱)과 박기오(朴奇悟), 수원의 김칠(金七)과 최승규(崔承珪), 광주의 왕규(王規), 용인의 이길권(李吉券) 등이 있었다(평택시 · 평택문화원, 1999, 『진위면지』, pp. 42-43).

시과로서 무산계전시(武散階田柴), 별사과(別賜科), 공음전시(功蔭田柴), 구분전(口分田) 등이 마련되어 있었다.

전시과를 기반으로 하는 고려전기 토지제도는 대체로 12세기 이래 붕괴되어 나가는데, 이는 당시 사회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우선 전시과제도 자체의 모순으로서, 관료에게 지급할 토지가 항상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관료의 숫자가 점차 증가함으로써 자연히 관직에 취임한 후에도 전시과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아울러 12세기 이래 문벌귀족사회의 동요 현상과 이어진 무신정권의 출현 등의 현상과 관련하여 중앙권력과 결탁한 지방관의 대민수탈이 강화되면서 각 지역에서는 대토지겸병 현상이 등장하게 되었다. 왕실, 귀족, 고위관료, 사원 등에 의해 주도된 대토지겸병은 고려후기의 지배적인 토지지배 형태로서 농장(農莊)을 형성하게 되었다. 농장은 매입, 개간 등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조성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보다는 권력에 힘입어 강제적으로 일반민의 토지를 탈취하는 불법적 형태가 많았다. 그 규모 역시 산과 하천을 경계로 할 만큼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형성되었다. 이러한 대민수탈은 거란 및 몽고의 침입으로 고통받는 일반민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었다. 12, 13세기에 각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농민항쟁은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이었다. 이 시기 평택지역에서도 농민항쟁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1217년(고종 4) 진위현의 이장대(李將大)·이당필(李唐必)·김례(金禮) 등이 거란족의 침입을 틈타 무리를 모아 봉기하고 창고를 열어 지역민에게 곡식을 나누어 준 사례[3]는 이러한 당시 사회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런 가운데 일반 농민은 농장주의 사적 예속민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고, 국가에 납부해야할 조세가 불법적으로 면제되어 국가재정의 궁핍을 초래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른 국가재정 궁핍으로 관료에 대한 녹봉 지급에 곤란을 겪게 되자, 이를 위해 녹과전(祿科田)을 설치하여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녹봉대신 토지를 지급하기도 하였지만, 이 역시 근본적 대안책이 될 수는 없었다.

(3) 조선시기

고려후기 권문세족들의 불법적 대토지겸병 형태인 사전(私田)은 국가의 통치체제를 붕괴로 이끌만큼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이에 전제 개혁을 주장하는 논의가 있게 되고, 1388년(창왕 즉위) 전국적인 양전을 거쳐 마침내 토지개혁안은 1391년(공양왕 3) 과전법(科田法)으로 귀결되었다. 과전법은 사전을 혁파하고, 전국의 모든 토지를 일단 국가수조지로 편성한 후에 그 수조권을 국가재정의 용도에

3) 『高麗史節要』 卷 15 高宗 4年 正月
4)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10 振威縣 建置沿革

따라 각 기관에 나누어 주며, 관료에 대해서는 경기지역에 한해 토지를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과전법은 이후 조선초기 토지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이는 사전으로서 과전(科田) · 군전(軍田) · 공신전(功臣田) 등 개인 소유전과 군수를 확보하기 위한 군자위전(軍資位田), 왕실에서 직접 수조하는 능침전(陵寢田) · 창고전(倉庫田) · 궁사전(宮司田), 지방관아 소속의 아록전(衙祿田) · 공수전(公須田), 그리고 향리 · 역리 등에게 지급하는 잡색위전(雜色位田) 등으로 구분되었다. 한편 과전은 현재 관직에 재직중인 자 뿐만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전직자(前職者)에게도 지급하며, 수신전(守信田) · 휼양전(恤養田)이란 명목으로 수절하는 처나 미성년 자녀에게도 일부 계승케 함으로써 '벼슬하는 자를 대대로 우대한다' 는 뜻을 지닌 신분제적 토지지배의 형태로 설정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과전법 규정상 과전이 경기지역에 한정하여 지급되고 1398년(태조 7) 진위현이 경기도로 편성되었던 사실[4]을 감안할 때 평택지역에도 과전법상의 과전이 설정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진위현의 경우 진위현령(종5품)에 지급된 직전(職田)을 비롯해 아록전, 공수전, 원전(院田) 등이 설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1445년(세종 27) 진위현은 대로(大路)에게 해당시켜 공수위전(公須位田)을 지급하는 한편 약점위전(藥店位田)을 혁파한 기사를 찾아볼 수 있다.[5]

그러나 과전법은 시행 이후 얼마 안있어 운영상의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었다. 우선 과전을 경기지역에 한정하여 지급하였음에 비하여 새 왕조에 들어와 관인 수가 점차 증가하자 과전 지급액이 점차 더 많이 요구되었고, 이로써 관인층 내부에서 과전 점유의 불균형이 초래되었다. 또 개국 과정에서 공훈을 세운 공신이 다수 설정됨으로써 이들에게 지급하는 공신전이 급증하여 분급된 토지가 세습화하는 경향을 보였다.[6] 이에 1417년(태종 17) 경기도 내 과전, 별사전, 공신전 등의 3분의 1을 하삼도(충청도 · 전라도 · 경상도)에서 지급하도록 조처를 취하기도 했지만, 과전법에 입각한 토지제도가 제대로 유지되기는 힘들었다. 사전을 하삼도에서 지급하도록 한 조처는 세종년간에 다시 경기도에서 지급하도록 복귀되었다. 이후 1466년(세조 12)에는 과전을 혁파하고 현직에 복무하는 관료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제(職田制)를 실시하였다. 이로써 전직의 관인에 대한 토지 지급이 없어지게 되었음은 물론 수신전, 휼양전 등도 없어지게 되었다. 이후 1470년(성종 1)에는 직전이나 사전의 조를 경작자가 수조자에게 바치는 대신 국고에 직접 납부하면 국가가 수조권

5) 『世宗實錄』 卷 109 世宗 27年 7月 乙酉

6) 이 시기 평택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토지소유의 불균형 및 대토지소유 현상이 점차 진행되고 있었던 사정은, 중앙 관료에 의한 대토지 소유의 사례로서 세종 8년(1426) 예조참판 이명덕(李明德)이 평택현에 농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례를 통해 엿볼 수 있다(『世宗實錄』 卷 33 世宗 8年 8月 丁亥).

자인 관료나 공신에게 해당액을 지급하는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를 실시하기에 이르고, 마침내 명종조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직전제마저 폐지하였다.

이로써 봉건적인 경제제도로서 수조권을 중심으로 한 토지분급제가 약화 · 소멸하고, 이제 소유권에 입각한 지주전호제만이 유일한 봉건적인 경제제도로서 잔존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봉건지배신분층의 농민지배에 대한 권한이 그만큼 약화되고, 국가권력은 그만큼 더 강화되었으며, 또 농민층의 토지소유권도 그만큼 더 성장하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한편 조선시대 사회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양란을 거치면서 전국의 농토가 황폐화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국가 세입의 고갈로 말미암아 국가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군사비 지출에 있어서도 군자창고(軍資倉庫)에 의하여 일원적으로 운영되던 전쟁전과는 달리 전쟁후에는 훈련도감이 둔전(屯田)을 설치하여 그 수입으로 군사비를 지출하게 되었다. 둔전은 점차 확대되어 군사기관 외에 최고의 행정기관인 의정부와 기타 일반 관공서에도 설치하여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아울러 왕실과 왕족들도 전란 이후 피해를 입은 토지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황무지를 지급받아 그곳에 궁방전(宮房田)을 설정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둔전 및 궁방전은 점차 본래 주인이 있는 토지에 설정되어 국가 기관 및 왕실, 궁원의 소유지화되어 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특히 17세기 이후 둔전으로 설정된 토지를 둘러싸고 궁방, 각 아문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 토지소유권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평택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도 궁방면세전(宮房免稅田)이 설치되어 있었고,[7] 수원부(水原府)의 궁내부(宮內府)에 속한 진위둔(振威屯)이 설치되었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8]

3) 근대사회의 토지제도

조선후기 농업기술의 발달 및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은 농민층의 분화현상을 초래하여 새로운 사회로의 변동 조짐을 드러내고 있었다. 지배층에 의한 대토지소유와 부세수탈 및 농민의 토지로부터의 유리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노정되고 있었다.[9] 토지제도에 있어서도 근대사회로의 이행과 결부된 문제해결이 시급히 모색되어야 할 시기였다. 이 때 토지제도 개혁을 위한 당면과제는 농업생산량의 증대를 추구하는 한편 농민이 농지를 소유하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입각한 개혁을 이루는 일이었다. 이에 정전론(井田論), 균전론(均田論), 한전론(限田論), 감조론

7) 『振威縣誌』(1891년 간행)
8) 『水原郡邑誌』(1899년 간행)

(減租論), 여전론(閭田論) 등 토지개혁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토지소유는 지주적 토지소유가 지배적이었고, 농민적 토지소유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개혁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후 근대적인 토지제도는 개항 이후 해방후 농지개혁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사회변동과정을 거쳐 성립되었다. 개항 전후 근대화과정에서 토지개혁과 관련해서는 그 개혁방향을 둘러싸고 대체로 두가지 경향으로 의견이 대립되고 있었다. 봉건적 · 지주적 토지소유의 철폐와 근대적 · 농민적 토지소유의 실현을 추구하는 아래로부터의 길과 지주적 토지소유를 유지하면서 근대사회로의 이행을 꾀하는 위로부터의 개량적인 길 사이에 대립이 존재하고 있었다. 농민들은 1894년 농민전쟁 과정에서 폐정개혁안 12개조에 "토지는 평균(平均)으로 분작(分作)케 할 사(事)"라는 조항을 포함할 정도로 지주제의 철폐와 농민적 토지개혁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화파 세력이 주도한 갑오개혁에서는 토지제도의 개혁보다는 부세제도의 개선에 치중한 면을 보였고, 그런 가운데 오히려 지주제를 정비 · 강화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 결과 대한제국시기 광무정권은 갑오개혁 이래의 국유지 조사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국유지에서의 지주제를 확인, 강화하는 한편 광무양전지계사업(光武量田地契事業)을 실시하였다. 광무양전사업은 지주와 전호를 동시에 파악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이것은 농민적 토지소유로의 개혁이 아니라 이전부터 존재한 토지소유관계인 지주전호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의미를 띠고 있었다. 또 지계사업은 지계(地契)라는 형식의 소유권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지주의 토지소유권을 근대법적으로 확인해 주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그후 1910년 한일합방으로 한반도를 식민지화한 일본은 식민지 경제체제를 확립하는 방법의 하나로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1910년에서 1918년까지 진행된 토지조사사업은 지주제를 토대로 한 토지소유관계의 재편성과 일제의 토지약탈로 귀결되었다. 조사과정에서 전통적인 소유권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지주의 토지소유권만이 근대법적 · 배타적인 권리로서 유일하게 인정을 받게 됨으로써, 조선후기 이래 성장하여 온 농민적 토지소유와

9) 18 · 19세기 사회경제적 변화와 관련하여 진위현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조판서 조태채(趙泰采)가 진위 작문(作門)에서 걸인에게 쌀을 나누어준 사례(『肅宗實錄』 卷 59 肅宗 43年 3月 癸亥)

○진위현에서 굶주린 백성에 의해 도둑질과 표략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어사 이종성(李宗城)의 보고 사례(『英祖實錄』 卷 30 英祖 7年 11月 丙子)

○진위현령이 적미(糴米)에 빈껍질이 많았다는 이유로 파직된 사례(『英祖實錄』 卷 87 英祖 32年 2月 甲寅)

○진위 등의 고을에 환곡을 탕감해준 사례(『正祖實錄』 卷 38 正祖 17年 10月 戊寅)

國會의議決로確定된農地改革法을이에公布한다
大統領 李承晩
檀紀四千二百八十二年六月二十七日
國務委員 國務總理 李範奭
國務委員 內務部長官 金孝錫
國務委員 外務部長官 林炳稷
國務委員 國防部長官 申性模

■ 농지개혁법 공포

권리가 모두 부인되었다. 그리고 신고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까다로운 규정대로 신고하지 못한 농민들의 토지가 국유지로 편입되어 총독부의 소유지가 되었다. 뿐만아니라 갑오개혁 이후 정리되어 오던 궁방전 · 둔전 등 국가기관의 소유지, 분쟁을 야기하던 민유지 등을 모두 국유화하였다. 총독부는 이와 같이 확보한 토지를 일본인의 농업이민을 장려하기 위해 설립된 동양척식회사를 비롯한 일본인 농업회사에 나누어줌으로써 일제는 조선 농민의 토지를 약탈하여 식민통치의 물질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결국 토지조사사업은 지주층에게 근대법적인 토지소유권을 확인하여 줌으로써 지주적 토지소유를 온존, 강화하여 반봉건적 토지소유를 확립하고, 그 기초 위에 식민지지주제를 구축하였던 것이다.

1945년 이후 해방정국은 이러한 식민지기 반봉건적 토지소유와 식민지지주제의 철폐가 토지개혁의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남한의 미군정은 소작료를 인하하여 3 · 1제를 시행하고, 신한공사(新韓公社)를 통해 일본인 소유토지를 관리 · 배분하는 토지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소작료의 인하는 사실상 지주제를 인정하는 것이었고, 일본인의 소유농지였던 귀속농지의 분배는 유상분배의 원칙에 입각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농지개혁(農地改革)은 농민적 토지소유의 실현을 촉구하는 농민운동과 지주의 권리를 고수하려는 지주층 사이의 대립이 치열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결국 지주층의 입장이 반영된 '유상매수 유상분배'의 원칙이 채택되었다. 1950년 3월 10일 농지개혁법이 공포된 이후 1957년에 종결되기까지 농지개혁은 장기간이 소요되었고, 그 도중에 지주에 의해 이미 토지가 처분된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약 47만 정보의 농지가 분배되었는데, 이는 1945년 당시 소작지면적 147만 정보의 32%에 불과하고, 1949년의 분배대상면적에 대비하면 56.6%에 불과한 것이었다.

결국 농지개혁은 유상매수 유상분배의 원칙, 실시시기의 지연으로 인한 지주의 토지처분 등으로 말미암아 한계를 지닌 개혁에 그치고 말았고, 이러한 한계성은 이후 전개된 한국사회의 경제구조와 관련해 문제의 소지를 남기게 되었다.

[참고문헌]

강진철, 『고려토지제도사연구』, 고려대 출판부, 1980.
김용섭, 「전근대의 토지제도」 『한국학입문』, 대한민국학술원, 1983.
평택군지편찬위원회, 『평택군지』, 1984.
이영호, 「토지소유관계의 변천과 토지개혁론」 『한국사특강』,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강진철, 「토지제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김태영, 「토지제도」 『한국사』 24, 국사편찬위원회, 1994.
송탄시사편찬위원회, 『송탄시사』, 1994
김태영, 「과전법체제와 경기지역의 사회경제 형편」 『경기도 역사와 문화』, 경기도사편찬위원회, 1997.
평택시 · 경기도박물관, 『평택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9.
김용섭, 「토지제도의 사적 추이」 『한국중세농업사연구』, 지식산업사, 2000.

2. 평택의 농업

1) 농업인구와 농가호수의 변화

조선 시대 우리 고장의 산업형태는 농업이라 볼 수 있고 당시 호구 조사의 기록에서 총호수가 그대로 농가현황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1631년(조선 인조 10년) 진위현지에 의하면 농가 호수 2,181호. 평택현지에는 1,400호로 총계 3,581호였으며, 1909년 농가 호수는 3,374호였다. 1960년 대비 2000년 말 현재 농가 호수와 인구는 17.8%와 54.8%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호수와 인구수 감소 비율의 차이는 농촌 젊은이들의 이농(도회지 이주, 타 업종 취업 등)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9년도의 농업인구는 1960년 대비 같은 수준이나, 호수는 16.3%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팽성읍 신대 · 도두리 정착민들의 농경지 확장사업

[연도별 농가호수 및 인구]

(단위 : 호, 명)

구분 / 연도	농가호수	인구	1960년 대비	
			호수	인구
1960	15,993	100,102		
1970	18,075	105,580		
1979	18,164	101,207	1979년	
1995	13,544	50,008	:116.3%	100.1%
1996	13,706	50,337		
1997	13,717	50,316	2000년	45.2%
1998	13,645	50,142	:82.2%	
1999	14,088	51,413		
2000	13,159	45,231		

※ 자료: 송탄시사편찬위원회, 『송탄시사』 1994
※ 평택군지편찬위원회, 『평택군지』 1984
※ 평택시, 통계연보 2001

2) 농경지 면적

1631년 진위읍지에 의하면 진위현과 평택현은 전답 5,233결 90부였다.

("1결은 가족노동력을 이용하여 경작가능한 면적으로 18~20석을 수확할 수 있었으며, 이는 한가족이 1년 정도 필요로 하는 곡물이었고," "오늘의 평수로는 약 3,000평 정도라고 본다.")

2000년도 말 현재 농경지 면적은 전 5,435ha, 답 17,705ha 합계 23,240ha로 1975

[경지 면적]

(단위 : ha)

구분 / 연도	계	전	답	비고
1975	24,299	7,140	17,159	
1979	24,252	5,211	19,041	
1995	23,758	5,417	18,341	
1996	23,412	5,539	17,873	
1997	23,180	5,487	17,693	
1998	23,218	5,489	17,729	
1999	23,065	5,499	17,566	
2000	23,036	5,496	17,540	

※ 자료: 『평택군지』, 1984. 평택시 통계연보, 2001

년도와 대비할 때 田의 면적은 1,605ha(22.4%) 감소하였고, 畓은 546ha(3.0%) 증가하여 전체 면적으로 볼 때 1,0594ha(4.5%) 감소하였다. 밭면적의 현격한 감소는 산업단지 입주 등에 기인하는 산업용지와 택지개발에 따르는 주거용지와 도로용지로 잠식된 것으로 추정되며 2000 평택시 시정백서에 의하면 2000년도 농경지전용은 600건(면적 약 65ha) 이었다. 그리고 농경지 면적 중 전답의 구성비는 23.9% : 76.1%로 약 1 : 3의 비율로 답의 면적이 월등하게 넓으며 이는 평택이 곡창지대임을 입증하고 있다 하겠으며, 「아름답고 푸른평택 21」에 의하면 논 · 밭의 기능을 농산물 생산기능 외에 홍수방지 및 수자원 함양 기능, 수질정화 기능, 토양 보전 기능, 대기 정화 기능 분석 결과 12,395~20,290천억 원 가치의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경기도 농정국의 발표가 있다.

3) 날씨

일반적으로 한국의 기후는 여름에 북태평양으로부터 불어오는 기류의 영향을 받아 고온다습하고, 겨울에는 시베리아대륙으로부터 불어오는 기류의 영향을 받아 저온건조하다. 따라서 일년간 총 강수량의 절반이 넘는 59%의 비가 여름에 내리고 겨울의 강수량은 매우 적은 편이다. 그리고 비교적 여름이 짧고 겨울이 길지만 사계절이 뚜렷하다. 한반도의 중서부에 위치한 평택시의 지형은 산악이 없고 서해연안과 가깝다. 또 평야지대이므로 기온은 대체로 높거나, 낮지 않은 기온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서해안의 민물과 냇물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생기고 대륙내부에 저기압이 일어나므로 남풍과 동남풍이 많이 불고, 동계에는 북부 대륙성 고기압이 밀려 들어와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온다. 더욱이 평택은 산간벽지가 없어서 바람이 더욱 세차게 불어와서 더 춥게 느껴진다.

(1) 계절과 기온

기후란 일반적으로 어느 지역의 종합적인 평균 기상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기온, 강수, 강설량, 바람, 일조시간 등의 측정결과를 나타낸다. 한반도 중서부에 위치한 평택은 차령산맥북서 끝단, 해발 160여 미터 이내의 비교적 낮은 구릉지대를 이루고 있는 평야지대로서, 북서계절풍과 남서계절풍의 영향으로 겨울에는 한랭건조하며, 여름에는 고온다습하다. 비교적 특별한 특징이 없는 중부서안형에 속한 평택의 기온은 연평균 12.9℃로서 최근 5년간 기준으로 평균 10.4℃에서 최고 21.0℃로 나타나며, 1997년도의 최저 기온은 9.1℃였고, 최고기온은 32 ℃다. 평택시의 1999년도 월별 기온 변화와 기상개황(1993~1997)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99년도 월별 기온변화]

(단위 : ℃)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평균기온	-1.1	0.4	6.0	12.8	16.9	22.4	25.5	25.9	22.5	13.9	7.3	-0.1	12.7

※자료 : 평택시 통계연보, 2000

[연도별 기상개황]

(단위 : ℃, mm)

연도별	평균기온(0.1℃)	평균최저기온(0.1℃)	평균최고기온(0.1℃)	강수량(mm)
1993	-	-	-	1,134.5
1994	-	11.5	22.2	1,177.5
1995	-	10.5	21.0	1,146.5
1996	-	-	-	1,251.5
1997	16.5	9.1	19.8	1,170.5
1998	13.5	9.1	18.6	1,660.0
1999	12.7	8.3	18.0	1,556.1

※자료 : 평택시 통계연보, 2000

(2) 강우와 바람

평택시는 산지의 발달이 적어 장마철인 6~9월 사이에 연 강수량의 약 70%가 내리며, 전선성 강우에 의한 집중호우도 내리는 현상을 보인다. 겨울에는 강우량이 10%에 불과하여 계절적 편차가 크다. 연중 강우량은 평균 1,182mm(1981~1990년)로 전국 평균 강우량인 1,152mm에 비견해 볼 때 큰 차이는 없다.

[1999년도 월별 강수량]

(단위 : mm)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강수량	7.3	1.8	54.0	73.6	121.3	76.7	345.0	338.4	402.2	92.3	25.3	18.2	1556.1

※자료 : 평택시 통계연보, 2000

바람은 1~3월과 9~12월에 서북풍이, 4~6월은 동남풍, 7~8월은 서풍이 불고, 일교차가 큰 4월과 10월에는 복사현상에 의한 안개 일수가 많다. 한편 매월 3월이면 중국화북지방의 황토가 불어와 황사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서풍의 영향 때문이며, 여름철에는 폭풍우를 동반한 동지나해의 열대성 저기압의 영향은 비교적 적게 받는다.

(3) 기타 날씨요소

1 일조시수

우리나라의 일조 시간은 평균 2,000~2,700시간이며 중부 서해안 지역은 2,500시간 내외가 되는데, 이 일조 시간의 짧음은 농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 평택지역은 과수원이 많고, 사과, 배, 포도 등의 산지로서 좋은 것은 일조시간이 평균 2,600시간으로 생육조건으로 맞기 때문이다.

2 서리, 눈, 결빙

서리는 매년 10월 중순에 시작하여 이듬해 4월 초까지 내리며 농작물에 영향을 주고, 눈은 연평균 10일 전후로 많지 않으나, 대략 11월 중순에 시작되어 이듬해 3월 초에 끝난다. 적설량은 불과 20mm 안팎으로 볼 수 있고, 얼음은 10월 말에서 이듬해 3월 중순까지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평택시는 전형적인 한국의 날씨를 보여주고 있다.

4) 농산물 생산량

(1) 미곡

미곡은 우리나라의 식량 중 대종을 이루고 있는 주곡으로, 평택시에서 최근 5년 간 평균 생산량은 90,721톤으로 전국생산량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도 5대 식량작물 생산량 91,794.3톤 중 86.717톤으로 94.5%를 점하고 있다. 특히 2000년도에는 8. 23~9. 1에 집중 호우와 태풍 '프라피룬'로 인한 피해 등으로 인하여 321.2ha (도복)의 논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영농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단보 당 511kg의 쌀을 생산하여 5년 연속 풍년 농사를 이룩하였다.

▮ 벼농사 연찬회(평택시 농업기술센터)

평택시의 2000년도 미곡 생산량(602천 석)은 경기도 전체 생산량의 14.9%, 전국 쌀생산량의 1.6% 수준이며, 서울 인구가 1개월 이상 자급할 수 있는 양으로 232개 자치단체 중 쌀생산량 6~10위권에 해당된다. 평택쌀은 품질면에서도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용수, 많은 일조량 등 좋은 조건에서 재배된 쌀로 많은 마그네슘과 알카리성 성분의 영향을 받아 등숙(여뭄)이 좋고, 영

[식량작물생산량]

구분 \ 연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계	**85,249.2톤**	**99,187**	**97,936.6**	**127,975**	**93,103.2**	**91,794.3**
미곡	21,948	94,838	93,653	123,554	89,404	86.717
맥류	82.2	87	66.5	80.0	50.9	43.9
잡곡	424.1	143.0	179	181.0	3075	251.1
두류	885.5	1,009.0	974.9	974.9	939.9	1,041.3
서류	1,900	164.0/3,100	3,062.9	3,062.0	2,400.9	3,741

※자료 : 평택시 통계연보, 2001

[최근 6년간 연도별 쌀 생산량 추이]

(단위: 면적:ha, 단수: kg, 생산량: 천 석)

구분	평택시			경기도			전국			전국 대비 (%)
	면적	단수	생산량	면적	단수	생산량	면적	단수	생산량	
1995	17,861	459	569	131357	424	3,867	1,055,868	445	32,601	1.75
1996	17,134	554	659	125,225	495	4,302	1,049,556	507	36,959	1.78
1997	17,184	545	650	123,617	497	4,264	1,052,395	518	37,842	1.72
1998	17,170	518	618	122,711	483	4,115	1,058,927	482	35,397	1.75
1999	17,033	525	621	123,102	502	4,294	1066,200	494	36,550	1.70
2000	16,970	511	602	121,657	479	4,043	1,072,000	494	36,742	1.60

※자료 : 평택시 통계연보, 2001

[2000년도 쌀생산 실적]

구분	재배면적(ha)	10g당 수량(kg)	생산량	
			중량(톤)	용량(천석)
목표	16,900	500	84,500	586.8
실적	16,970	511	86,717	602.2
증감	70(100.4%)	11(102.2%)	2.217(102.6%)	15.4(102.6%)

※자료 : 평택시 통계연보, 2001

[추곡수매실적]

(단위 : 톤)

연도	계	등급별				종자	비고
		1등	2등	등외	잠정등외		
1995	24,940	20,961	3,536	388	25	38	
2000	8,437	6,855	797	93	20	68	

※자료 : 평택시 통계연보, 2001

양분을 간직하게 하는 힘이 많으며, 토양이 비옥하여 비료의 사용량이 적고 서해안에서 불어오는 해풍의 영향으로 병해충도 적어 일찍이 친환경농업이 발달하여 쌀에 대한 안전성이 높고, 최첨단 도정시설을 갖춘 4개소의 미곡종합처리장과 3개소의 농업회사법인에서 적온(適溫)에서 건조하여 적정량의 수분율을 유지하고, 가공공정의 표준화 등 엄정한 품질관리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쌀을 생산하고 있다.평택시장이 품질을 보증하는 '시장보증미'와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 인증하는 '품질인증미'를 생산, 판매하고 있어 품질면에서 뛰어나 연차적으로 공급을 확대하여 나가고 있다.

▮ 수확직전의 보리밭(안중면)

평택시내에는 위생적이고 친절하며 균형잡힌 식단으로 국민식생활 개선을 선도할 수 있는 식당 중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에 적합하고, 맛과 종류가 독특하며 고장의 특색을 알릴 수 있는 「평택쌀전용음식점」 2개소를 시장이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맥류

맥류는 대맥(겉보리), 소맥(밀), 나맥(쌀보리), 호맥(호밀) 등으로 구분되며, 벼와 함께 중요한 식량으로 안정성 있게 재배되어, 1979년도 평택군의 전체 재배면적 1,295.5ha에서 생산량은 대맥 3,084톤, 소맥 0.3톤, 나맥 25톤, 호맥 76톤 등 3,185.3톤이었으나 식생활의 변화에 따라 식량으로서의 비중과 경제성에서의 경쟁력 저하로 자연히 생산성이나 소득이 높은 대체작물의 재배로 농가에서 재배를 기피하여 2000년도에는 재배 면적 25.7ha에 생산량 43.9톤으로 크게 감소되었다. 21

[연도별 맥류 생산량]

(단위 : 톤)

연도	계	대맥	소맥	나맥	호맥
1975	6,580.8	5,771	790	-	19.8
1979	3,185.3	3,084	0.3	25	76.0
1995	82.2	82.2	-	-	
2000	43.9	43.9	-	-	

※자료 : 『평택군지』, 1984. 평택시 통계연보, 2001

[하곡수매 현황]

(단위 : 톤)

연도	대 맥			
	계	1등	2등	등외
1995	15,624	13,392	2,232	
2000	0	0	0	

※자료 : 평택시 통계연보, 2001

년 사이에 4가지 곡종에서 대맥 한 가지만 재배하므로 자연히 재배면적은 1,269.8ha가 감소되여 당시 면적의 2% 수준에 불과하며, 생산량은 3,141.4톤이 감소되어 당시 생산량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3) 두류

두류는 콩, 팥, 녹두, 낙화생(땅콩) 등으로 매년 생산량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으며 연도별 생산량은 아래와 같다

[연도별 두류 생산량]

(단위 : 톤)

연도	계	콩	팥	녹두	기타
1995	888.5	605.6	61.4	23.0	198.5
2000	1,041.3	880.7	22.2	38.7	99.8

※ 자료 : 평택시 통계연보, 2001

(4) 서류

서류는 감자, 고구마 등을 말하며,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고구마는 1763년 (조선 영조 39년) 통신사로 일본에 갔던 조엄(趙曮)이 대마도로부터 부산진에 보낸 것이 시초라 하며, 감자는 1813년(순조 13년)에 북방으로부터 두만강을 건너 들어왔다고 한다.

[서류 생산 현황]

(단위 : 톤)

연도	계	고구마	감자
1975	1,984	1,044	940
1979	1,345	879	466
2000	3,741	1,905	1,836

※자료 : 『평택군지』, 1984. 평택시 통계연보, 2001

(5) 잡곡

잡곡은 조, 수수, 옥수수, 메밀과 기타 등을 말하며, 수량성(收量性)이 낮고, 주식으로서의 기능도 쌀이나 보리에 비하여 떨어지므로 미곡이나 맥류가 안전하게 재배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재배를 피하고, 열악한 농업환경에 적응력이 높기 때문에 산간지나 메마른 땅이나, 간작(間作) 또는 후작(後作)의 형태로 재배되고 있으며, 주종을 이루는 옥수수는 축산업의 발달과 함께 엔실리지(ensilage)용으로 재배면적이 늘어났으나 조는 1995년도 이후부터 통계상 재배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00년도 잡곡재배 면적은 74ha이고 생산량은 251.2톤이다.

[연도별 잡곡 생산량]

(단위 : 톤)

연별	계	수수	옥수수	메밀	조	기타
1975	148.0	147.9	37.9	1.2	4.0	-
1979	90.6	81.0	-	-	9.6	-
1995	124.1	-	105.6	-1		18.5
2000	251.1	-	241.7	-	-	9.4

※자료 : 『평택군지』, 1984. 평군시 통계연보, 2001

(6) 원예작물

1 채소류

우리지방의 채소재배는 해방 전 까지만 하여도 기술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였으나 60년대부터 종자개량과 온상재배 등 영농기술의 향상과 두 개의 기지촌이 생기면서 소비의 급증으로 활성화되어 재배자가 늘어 농한기 없는 농촌을 실현시켜 주었고, 전업농가에서는 주한 미군부대에 군납 등 생산성과 과학영농으로 경쟁력을 높여, 호경기도 누리고 있으나 때로는 과잉생산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다. 진위면 일원에서 생산되는 오이와 애호박은 토양과 기후조건이 맞아 전국 어느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맛 등 품질의 우수성으로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으며, 판매시장의 다변화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진위 애호박」 박스를 상표등록 및 의장등록 하여 출하하는 등 규격포장재를 이용한 리콜제 실시와 선별과 포장을 자동화함으로써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는 고품질의 생산에 선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진위 애호박

[2000 채소류 생산량 현황]

구분	면적(ha)	생산량(톤)
계	1,310.6	44,696
배 추	491.4	30,988
시 금 치	7.7	104
상 추	10.4	177
양 배 추	1.1	47
무 우	266	8,645
당 근	0.6	13
고 추	328	3,936
파	25.4	613
양 파	-	-
생 강	-	-
마 늘	180	173

※자료 : 평택시 통계연보, 2001

② 특용작물

특용작물은 특수한 용도로 쓰이는 농작물을 말하며 예전에는 목화, 모시, 대마, 양귀비 등도 있었으나 2000년 말 현재 참깨, 들깨 등 식용기름의 원료와 땅콩만 재배되고 있다.

[특용작물 생산량]

(단위 : ha/톤)

구분	참깨		들깨		땅콩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95	292.0	160.0	313.0	235.0	67.0	128.0
1996	132.0	76.0	88.0	81.0	32.0	67.0
1997	117.0	95.0	99.0	89.0	63.0	168.0
1998	94.0	60.4	77.4	60.4	58.7	106.3
1999	111.3	55.5	120.0	79.6	52.1	100.7
2000	88.6	50.4	99.5	77.0	42.2	87.1

※자료 : 평택시 통계연보 2001

③ 과수

우리나라는 그 기후와 토질이 과수재배에 적당한 곳으로 특히 평택지역은 서해의 해풍과 일조 시간, 점토함량이 많은 황토. 풍부한 지하수 등 과수재배를 위한 천

혜의 자연 조건을 이용하여 재배하고 있는 배, 사과, 포도는 단보당 소득이 높아 고소득 작물의 하나이며, 국민 경제수준 향상으로 국민 건강 식품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소비 도시인 서울, 인천, 수원 등의 대도시 소비 시장과 근접하여 유통상 좋은 위치에 있다.

▮ 성숙기에 접어든 배

우리 시 과수 전체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배는 토질과 기후가 적합하여 저장력이 높고, 품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그 성분이 100g당 수분 85.5%, 단백질 0.5%, 섬유소 0.8%, 지방 등으로 포도당이 적고 대부분 과당이며 당도가 15~16%로 매우 높고 수분이 많아 맛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품질의 우수성과 철저한 선별기 출하 등으로 신용도가 높아 1998년에 미국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등지에 배를 수출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862톤 15억 원을 수출하였다.

특히 평택배는 평택쌀 등과 더불어 평택시 특산품중의 하나로, '배꽃'은 그 '화사함과 우아함 그리고 순결함'을 시민의 표상으로 하는 평택시의 시화(市花)로 지정, 많은 시민들이 배꽃의 정취 속에 콘크리트 문명에 찌들은 '군중속의 고독한 현대인'이라는 현실을 잊게하여 주는 청량감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

[과실류 생산량]

(단위: ha, 톤)

연도	합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75	621.9	16,144.4	314.5	990.5	61.2	3,696.3	185.8	11,147.1	60.4	310.5
1979	509.8	7,078.8	362.5	943.5	63.3	5,053.2	84.0	679.9	-	402.2
1995	666.0	8,488.0	129.0	1,149.0	570.4	7,134.0	6.8	48.3	23.2	157.2
1999	912.0	13,934.6	65.4	633.6	811.7	13,071.0	4.8	31.4	30.1	198.6
2000	1,015.5	20,384	40.6	639	932.7	19,393	7.3	43	34.9	309

※자료 : 평택시 통계연보 2001, 평택군지 1984

④ 화훼류

도시화의 추세 속에 아파트 등 건물의 고층화, 집단화로 정신적 안정 욕구의 증대 등으로 아름다운 환경 조성을 위하여 꽃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도 재배면적이 108.4ha에 3,720천 본을 생산하였으며 화훼류도 1998년도부터 해외수출 길을 열어 2000년도에 857백만 원의 장미, 백합, 국화, 서양란, 선인장을 일본, 중

* 비모란 선인장 농장(포승면)

* 평택농업축제에 출품된 평택 장미

국으로 수출하였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농경이 중요한 산업의 위치를 차지하면서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와 추수감사의 잔치의 대표적이 행사로 영고(부여)와 동맹(고구려)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평택시에서는 1년 농사의 마무리를 하는 시점인 매년 10월 하순부터 11월초까지 3일간에 걸쳐 평택시청 앞 광장 등에서 농협 등을 비롯한 유관기관 · 단체와 함께 '평택시 농업 · 농악축제' 라고 일컫는 잔치 한 마당을 열어 오고 있다. 이 행사에는 흥겨운 농악경연대회, 군악대의 연주회, 학생 고적대 연주와 화훼의 전시 · 품평 · 판매 그리고 사진 · 서예 · 수석 등 각종 예술 작품 전시회 등의 '볼거리' 와 쌀과 배를 비롯한 농산물의 전시 판매, 한우고기와 수산물과 평택쌀로 만든 떡과 밥 등의 시식회, 읍 · 면 · 동 단위 전통음식 품평회 등의 '먹거리' 등을 제공하면서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풍성함과 흥겨움, 그리고 평택시민의 훈훈한 인정 속에 생산자는 풍년의 감사와 보람을, 참여자는 풍요와 흥겨움을 만끽하며, 함께 어우러지는 가운데, 내일의 기대와 희망을 그려보면서, 펼쳐지는 이 가을의 잔치마당에 외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더욱 정겹게 하고 있다.

5) 농업기반 조성

『평택의 역사와 문화 유적』(평택시 경기도박물관 1999)에 의하면, 「평택현은 …… 海溢 등으로 제언과 논들이 자주 피해를 입었다.」「평택현을 비롯하여 서천, 아산, 직산 등 서해안 연안 지역은 대체로 홍수나 해일의 피해를 입곤 했는데 이를테면 1648년 (인조 26) 평택 등 5개 지역에 해일로 인해 바닷가의 제언이 무너져 모두 침몰되었다고 전한다.」 또 「1719년(숙종 45) 양전 (量田)결과 1,77여 결로 무려 1,000결 정도가 줄었다. 이는 거듭되는 홍수와 해일로 많은 제언과 방축 및 농토가 유실된 결과로 여겨진다.」 1862년(철종 13) 진주민란을 시작으로 …… 이해 4월 중순경 평택농민들은 제언문제로 봉기하여 읍내에 까지 쳐들어갔다…… 서면과 북면의 14개 제언이 해일 등으로 무너져 농사를 그르칠 수밖에 없었는데도 각종 잡세

[평택시 저수지 현황]

저수지명	위치	수혜면적(ha)	계획저수량(㎥)
배다리	비전동	54.9	51.5
모산동	동삭동	24.5	38.8
내리	도일동	7	11.3
팔용당	도일동	15.7	14
금암	금암리	15.9	15.3
도도리	수월암리	7.8	6.4
마두	마두 1리	7.9	17.2
새말	금암 3리	5.9	5.3
아랫말	동천 1리	3.7	12.8
가곡	가곡리	5.7	4.7
고현	고현리	10	8.3
도언	동천리	6	4.7
사후동	동천리	10.5	18.5

※총 13개 저수지, 수혜면적: 175.5 계획저수량: 208.8
※자료 : 하수과

와 함께 물세를 계속 납세하게 되자 물세의 혁파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농업기반 시설이 취약하였던 당시의 어려움을 전하여 주고 있다.

평택시는 해안선이 24.5km로 서해와 접하여 있으므로 태풍 등에서 기인하는 해일 피해가 심하여 이를 예방하고 담수호로부터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1975년 5월 22일 준공된 2,564m의 아산만 방조제와 남양만에도 방조제 2,060m를 구축하였음에도, 음력 7월의 백중 사리에는 해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볼때 그 시절의 심각성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두 호수의 저수량은 130,469천 톤(평택호 98,980천 톤, 남양호 31,489천 톤)으로 전천후 영농의 기틀을 확고히 하였으며, 그 외에도 평택시내에는 수혜 면적

▮ 평택호 방조제 공사전의 아산만

▮ 평택호 방조제 준공직후의 아산만

▮ 모판에서 수확까지 기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벼농사(청북위탁영농회사 벼 육묘공장)

175.5ha인 13개소의 소규모 저수지와 41개소의 양수장이 있다.

경지정리 실적은 경지정리 가능 면적(13,642ha) 중 13,577ha로 99.5%이며, 65ha가 잔면적으로 남아 있다.

6) 농업 기계화

고도의 공업화로 젊은 농업 노동력이 다른 산업분야에 유출로 인하여 농업 기반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농공병진정책(農工竝進政策)의 일환으로 1960년대부터 영농과학화를 목표로 시작하여, 70년대부터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농기구가 개발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경지정리는 (정리가능면적 13,642ha 중 99.5%인 13,577ha가 정리) 필연적으로 대규모 기계화 영농의 촉매 역할을 하였으며, 작물의 품질 개선을 통하여 수확량 증대를 꾀하는 등 많은 발전을 촉진 시켰다. 그러나 농업기계화를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 차원에서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 부녀화 현상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여 수반되는 문제점을 보완시키기 위하여 사후관리에 의한 사용연한 연장, 농기계 영농작업 사고 시 피해보상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농업기계화 사업을 추진하여 1999년도에 쌀 전업농 농기계구입자금 1,727,226천 원, 농기계보관창고 204,730천 원, 공동이용조직지원 235,528천 원 등 2,167,484천 원을 지원하였다.

농기계의 공동이용으로 이용도를 제고하고 대형농기계 중심의 규모화 영농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구조개선 촉진을 위하여 농기계 공동 이용조직을 지원하고, 농업 노임의 상승에 대응하고 농가의 편의 제공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회사 법인의 지역 실정에 맞는 운영을 하도록 지원 육성하고, 농기계 이용율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기계 사후 봉사체제를 정비하여 앞으로도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갈 것이다. 평택시의 주요 농기구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주요농기구 보유 현황]

연도별	경운기	트렉터	이앙기	콤바인	건조기
1998	11,415	4,274	6,459	1,781	1,480
1999	8,648	4,159	5,493	1,655	1,503
2000	8,728	4,966	5,279	1,647	1,645

※ 자료 : 평택시 시정백서, 1999

7) 평택시의 농업 비전

▮ 청소년들의 농업현장 체험(평택시농업기술센터)

WTO체제 출범으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한 세계에서 살아 남기 위하여, 평택시는 농업도 단순한 식량생산 차원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화. 규모화. 현대화로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개발과 농업인을 전문 기업 경영체로 육성하여 생산, 유통, 품질, 안정성 중심의 저비용—고효율의 경쟁력있는 농업기반을 조성하여, 21세기 선진 농촌건설을 위한 지식 농업기반 및 효율적인 농산물의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수출농업의 활로 개척을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2001년부터 2016년 까지 아래와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1) 농업의 기업화 · 전문화를 주도할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 농산물 유통의 획기적 개선 : 소비자 물류센터 1개소 건설(100억원)
- 농업전문인력 육성 : 농업경영 및 생산유통시설 지원 (320명, 80억원)
  농업인후계자 육성 (3,000명, 60억원)

- 전문경영체 육성 : 전업농육성 (2,585명. 33억원)
  위탁영농회사 등(57개소. 39억원)

(2) 저비용 - 고효율의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 경쟁력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보급
  고유상표 브랜드 개발(15개 3억원)
  자동화온실 확대 설치 (3개소 15억원)
  규격출하사업(45,000매 330억원)
  경쟁력제고대책사업(9개 780억원)
  지역특화단지조성(1개소 10억원)
- 첨단기술개발 강화 - 농업기술연구단지 조성(1개소 10억원)
- 기존시설의 내실화 - 산지 유통시설확대(4개소. 19억원))
  품질인증확대 등 4개 사업(777억원)

(3) 수출농업구조구축

• 수출농산물 안정적 확보를 위한 규모화. 단지화

수출전문단지조성(원예 · 과수 · 축산 각1개소 30억원)

수출전업농 육성 (90명 45억원)

생산자 조직 육성 (70명 16억원)

• 수출농산물 지원체계 강화

농수산물 수출확대(240억원)

수출기술지원반운영(6개반)

• 해외시장개척 및 무역정보 수집전파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15회 3억원)

국제화훼박람회참가 및 판촉행사 (15회 3억원)

해외전시판매장 설치 (1개소 10억원)

(4) 농촌환경개선 및 복지증진

•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 경지정리(450ha 90억원)

기계화경작로 확 · 포장(1,000ha 100억원)

배수개선 사업(1,100ha 110억원)

정주권 개발 (30지구 420억원)

생활용수 개발 (90개소 180억원)

• 농 · 어업인의 복지증진 - 여가 문화시설 확충(3개소 3억원)

자녀장학금 지원(10,500명 75억원)

(5) 환경친화적 농림수산업 육성

• 시책추진 및 자원 개발 - 병해충 종합방제체제 확립(150,000ha 75억원)

환경농업지구조성(2지구 2억원)

권역별 환경농업 모형 개발(3개소 9억원)

축산분뇨처리시설 확충(1,500개소 300억원)

• 내수면어업 육성과 해양자원 보존 - 내수면 낚시터 개발육성(5개소. 3억원)

갯벌생태계조사 및 보전계획 수립

축산업

제2절

1. 가축사육 현황

평택시는 완만한 구릉 및 평야지대로 1967년 이후 전국의 시범적인 낙농지대로 발전하여 1979년 평택군통계에 의하면 농가호수 18,164호(답작 15,500호. 전작 260호. 과수업 360호. 소채업 140호. 특용작물 20호. 축산업 524호, 임금 농업노동업 1,360호)로 축산업이 1975년도 143호에서 4년 사이에 3.5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여 새로운 소득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장당동에 50여만 평의 부지에 뉴질랜드와 합작으로 「한 · 뉴시범목장」(후에 매일유업 시범목장으로 바뀌었음)이 그 위용을 자랑하면서 축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되었고, 진위면에 매일유업 평택공장에서 농가에서 생산한 우유를 가공 처리하게 되어 낙농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한바 크다고 하겠다. 1999년도 평택시의 가축 사육현황 등은 다음의 표와 같다.

▮ 낙농업(매일유업 목장 — 고덕면)

2.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농가 육성

WTO 체제 출범으로 외국 축산물과 경쟁 시점에 이르렀으므로 축산 시책 방향을 수입 개방에 대비하여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양축농가를 육성하여 경쟁력 있고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최우선 역점을 두어 구조개선, 축산물의 수

[가축 사육 현황]

(단위 : 마리)

연도 \ 구분		1995	1999	2000
한육우	호수	1,008	519	366
	마리수	7,552	8,159	7,034
젖소	호수	1,186	504	431
	마리수	21,223	17,702	17,068
돼지	호수	299	177	162
	마리수	90.015	142,564	148,127
닭	호수	232	190	278
	마리수	190	2,269,515	2,639,484
산양	호수	139	58	88
	마리수	58	1,337	1,448
사슴	호수	100	89	81
	마리수	89	1,385	1,002
토끼	호수	28	39	109
	마리수	39	3,602	3,696
개	호수	11,701	8,855	7,456
	마리수	8,855	23,026	25,638
오리	호수	35	17	42
	마리수	57,856	19,107	15,893
거위	호수	-	2	8
	마리수	2	14	21
꿀벌	호수	21	33	34
	마리수	1,504	2,017	2,321

※자료 : 평택시 통계연보, 2001

[가축전염병 예방 접종 현황]

(단위 : 마리)

구분 \ 연도	탄저, 기종저	돈콜레라	광견병	기타
1995	16,130	16,389	16,852	27,739
2000	12,425	545,940	28,587	37,873,875

※닭 : 병아리 포함.

※자료: 평택시 통계연보 2000

급 및 가격안정,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환경오염방지와 자원화를 위한 가축분뇨처리사업 지원 확대, 가축방역 등 수출 증대를 위한 추진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위생적이고 안정성이 높은 수출돈 생산으로 소득 증대에 중점 투자, 지원하고 있다.

1) 평택한우 명품화를 위한 고급육 생산사업

축산물 및 생우 수입 전면 개방화에 대응하여 한우고급육 생산에 주력하여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고 평택한우 명품화를 위하여 1999년 100두의 숫송아지의 거세를 시작으로 2000년 400두를 실시하여 최고의 등급을 받아 농가 소득은 물론 질좋은 양질의 한우고기를 공급하였고 2001년도에도 600두의 거세를 실시 중에 있다.

2) 고품질 우유생산을 위한 젖소 능력검정사업 추진

고품질의 우유생산은 물론 두당 생산을 높이기 위하여 평택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젖소의 개체별 능력검정을 199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99년에 36,6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200두의 능력검정을 시작으로 2000년도에 40,000천원 1,400두, 2001년도에는 62,000천원을 투자하여 능력검정은 물론 젖소선형심사 4,000두를 실시하고 젖소능력검정평가 대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실시하여 온 검정사업의 평가는 물론 낙농인들의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다. 특히 젖소의 우유 생산량이 '99년 두당 19kg의 유량을 2001년 23kg으로 높여 높은 소득을 창출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한다.

3) 양돈농가의 우수 모돈 교체사업

양돈업의 근간이 되는 우수 모돈을 공급, 돼지고기 품질개선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양돈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000년도에 180,0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800두의 우수 모돈을 개량하였고 2001년도에도 184,0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 양돈장

4) 축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품질의 고급화

한우전문판매점 지원 - 4개소 (축협 3, 민간 1) 1,368백만원

5) 초지관리 및 조사료 생산

- 660ha(상급 : 417, 중급 : 145, 하급 : 98)
- 조사료 생산량 : 19,800톤
- 월동작물재배 : 301.8ha

6) 축산재해 및 피해복구 : 114농가 (피해 : 2,825,855천원, 복구 : 1,117,000천원)

7) 축산분뇨처리사업 :

- 추진 실적 : 24개소/514백만원(2000년까지 누계 1,146개소/16,429)
- 지원시설 개선 : 간이정화방류식('98년까지) 지원에서, 저장액비화 · 퇴비화 시설로 개선.

임업

제3절

1. 개관

예로부터 치산치수는 나라를 다스리는 으뜸의 정책으로 풍요의 상징이었고, 산림녹화는 한 나라의 부강의 척도로, 고대국가에서 조선시대까지의 통치자는 식목에 관심을 두고 있었음을 각 읍현지에서 볼 수 있으며, 조선시대 말기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지방관리들은 식목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일제 침략기, 6 · 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산야는 황폐하여 1960년대에는 '붉은 산' 이 한국의 특징이라고 말 할 정도였다.

1970년대 국가 산업 부흥기에 정부는 산림청을 신설하고 대대적인 산림녹화 및 보호에 나섰고, 국민 소득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으로 농촌지역에 공급되어 「땔감 나무」의 대체 연료로 화석연료인 석탄(연탄)과 유류가 사용되었으며, 특히 연탄은 산림녹화의 1등 공신이었다. 이제는 Gas를 사용하는 시대로 변화하면서, 우리의 산야는 푸르름을 되찾게 되었고, 매년 3~4월의 국민식수기간의 식목과 11월의 육림 행사 등을 통하여 국토 녹화 운동은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조림사업(진위면)

평택시의 조림 실적과 임상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

[조림 실적]

(단위: ha, 천분)

연별	합계		장기수		유실수		기타	
	면적	분수	면적	분수	면적	분수	면적	분수
1995	48.7	106.7	27.0	81.0	7.7	3.1	14.0	22.6
1999	19.4	25.6	12.4	20.4	5.0	4.0	2.0	1.0

[임상별 산림 면적]

(단위: ha)

구분		1995	1999	비고
계		9,773	9,515	
입목지	계	9,698	9,396	
	침엽수림	4,764	4,540	
	활엽수림	766	723	
	혼효림	4,168	4,133	
무입목지	계	75	119	
	미입목지	18	17	
	황폐지	2	-	
	제지	57	100	

[임상별 임목 축적]

(단위: m^3)

연별	합계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1995	323,363	164,694	19,283	142,386
1999	416,675	212,041	21,657	182,977

[사방사업 현황]

(단위: ha, 천본, 천원)

연별	합계			산림 및 해안 사방			야간사방	
	면적	식재본수	공사비	면적	식재본수	공사비	공사비	연장
1995	190,000	5	116,952	1.90	5	49,712	780,075	0.7
1999	1.90	8	102,195	1.90	8	102,195	-	-

※ 자료: 평택시 통계연보, 2000

1) 산림 현황

평택시의 산림 면적은 9,515ha로 전체 면적의 2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유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소유별 임야 면적]

(단위: ha)

연도	합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계	산림청	타부처	계	도유림	시유림	
1995	9,773	482	136	346	221	101	120	9,070
1999	9,515	481	136	345	221	101	120	8,813

※자료: 평택시 통계연보, 2000

2) 임산물 생산량

임산물 생산은 밤, 대추, 도토리, 표고버섯, 산나물이 주종을 이루며, 평강공주가 온달을 찾아갔을 때 온달은 허기를 메꾸고자 느릅나무 껍질을 구해오는 길이었다는 삼국사기의 「취유피어산림(取楡皮於山林)」이라는 기록이 있듯, 식량부족으로 보리고개의 어려움을 겪던 그 시절에는, 현재와는 다른 시각에서 임산물이 고마운 식량이었을 것이다.

[임산물 생산량]

구분	용재	연료	종실	버섯	약용	산나물
단위	m³	M/T	kg	kg	kg	kg
1995	644	21	254,979	5,093	13	35,496
1999	2,278	-	13,859	5,225	-	18,590

※자료 : 평택시 통계연보, 2000

▮ 잘 조성된 침엽수림(무봉산)

여 백

수산업

제4절

1. 개관

『동국여지승람』에 진위 · 평택현 토산조에 붕어 · 숭어 · 게 · 지황이 산출된다고 하였고, 1894년에 간행된 진위현지에 진위현의 특산물 중에는 붕어와 게 · 생지황 · 향부자 · 금은화(인동덩쿨의 꽃)라고 하였는데, 붕어와 게는 장호천(진위천의 옛 이름)을 두고 일컬은 특산물이겠으며, 그 외는 한약재로 쓰이는 작물이었다. 여기에 나타나듯이 평택은 서해에 접하여 있으며 진위 · 안성천 등 4개의 하천이 접하는 곳이므로 자연 수산업과 많은 연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근년에 조사된 평택시의 어류 분포는 민물고기로 잉어 · 붕어 등 7종, 새우 · 조개류 7종 · 게류 5종 등 19종으로 보고되었다.

평택항 개발과 함께 침체기에 빠져 있던 수산분야는 정부의 무등록 어선 구제 방침에 따라 활기를 되찾았으며, 어가 현황 및 어선 보유 현황은 아래 별표와 같다.

1) 평택시의 수산여건

(1) 내수면

내수면의 수산세력은 양어장 104개소, 낚시터 14개소, 공동어장 4개소(773ha), 어선 190척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양어장의 크기는 경기도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특히 평택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의 민물시장은 전국을 대상으로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 메기 양식업(팽성읍)

(2) 해면

1993년 평택항만 개발공사로 인하여 어업피해보상이 완료된 후 인허가 사항이 없었으나, 1997년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한 무등록 어선 구제방침에 따라 어선 124척이 양성화되어 인근 화성 · 안산시에서 어선 등록 후 평택시에서 어업허가를 받아 현재 어선어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택항만 개발이 진행 중에 있어 매립되지 않은 갯벌에서 바지락, 맛 등을 채포(採捕)하고 있다.

2) 수산자원 조성사업

경제성이 뛰어난 토종수산자원증식으로 수산자원 보전지구 생태보전과 어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특히 빙어 수정란이식 및 방류사업을 통하여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지역특산물로 육성하고, 기 조성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으로 투자 계획에 반영하며, 사업 개요는 아래 별표와 같다.

[어가 및 어가 인구]

년별	어가			어가인구			종사자		
	계	전업	겸업	계	전업	겸업	계	남	여
1995	453	65	358	-	-	-	-	-	-
1996	456	69	387	2,258	341	1,917	906	481	425
1999	520	295	225	1,579	895	684	980	460	520

※1종겸업 : 겸업가구 수입중 어업 수입이 50% 이상
※2종겸업 : 겸업가구 수입중 어업 수입이 50% 미만
※자료: 평택시 통계연보, 2000

[어선보유]

년별	동력		무동력		1톤 미만	1~10톤	10~20톤	20~30톤	30~50톤	50~100톤
	척수	톤수	척수	톤수						
1995	64	46.34	85	22.46	138	10		1		
1996	52	42.59	97	22.16	138	10	1			
1999	94	52.26	96	24.33	180	10				

※자료 : 평택시 통계연보, 2000

[빙어수정란방류사업]

(단위 : 만립)

방류지역	계	'92~'94	'95년도	'96년도	'97년도	'98년도	'99년도
계	14,050	900	300	1,000	1,500	5,350	5,000
평택호	3,850	0	0	0	1,000	850	2,000
남양호	10,200	900	300	1,000	500	4,500	3,000

※자료 : 농축산과

[치어매입방류사업]

(단위 : 천미)

수면명	'98년도				'99년도	2001년도
	계	참게	동자개	뱀장어	동자개	동자개
남양호	117	84	30	3	103	125

[어촌계현황]

소속 수협명	어촌계명	어촌계원수			어 촌 계 장				비고
		계	남	여	성명	주 소	년령	전화번호	
계		348	291	57					
경기 남부 수협	권관리	70	62	8	김홍식	현덕면 권관리 663	58	681-8380	
	장수리	62	50	12	김영국	현덕면 장수리 128-1	43	681-8120	
	신영리	85	73	12	이민권	포승면 신영리 402	67	682-3578	
	만호리	103	83	20	오시화	포승면 만호리 264-10	59	681-6547	
	원정리	28	23	5	이강립	포승면 원정리 102	57	681-3212	자연부락

※자료 : 농축산과

[내수면어업계현황]

어업계명	계원수			어 업 계 장				주종 사업종
	계	남	여	성명	주 소	년령	전화번호	
계	103	101	2					
평택호	82	80	2	김용섭	팽성읍 석봉리 105	71	691-8211	공동어장
남양호	21	21	-	임석주	포승면 원정리 51	62	683-3211	공동어장

※자료 : 농축산과

3) 관내 낚시터 현황

평택시 관내 허가어업(낚시업)을 득한 어가는 13개소로, 평택시 관리 5개소(하천

: 새마을, 계양, 석봉, 서탄. 저수지 : 사후동), 농업기반공사관리 4개소(고잔, 월곡, 동막, 울성), 사유수면 4개소(당거리, 성광, 고현, 주말촌)가 있으며, 13개소에서는 붕어, 잉어 등이 주로 잡히고 있다. 『동국여지승람』에 진위 · 평택현의 토산물로 기록되어 있는 붕어는 현재도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평택 특산물이다.

[평택의 낚시터]

낚시터 명(대표자)	현황
• 고잔 낚시터(공재면)	• 위치 : 청북면 고잔리(683-5208, 353-7878) • 면적 : 11.7ha, 좌대수 260개 • 주요 어종 : 잉어, 붕어 등(1월~12월) • 낚시요금: 1일 25,000원
• 울성 낚시터(정복선)	• 위치 : 지제동(655-7096) • 면적 : 1.44ha, 좌대수 100개 • 주요 어종 : 잉어, 붕어 등(3월~11월) • 낚시요금: 1일 25,000원
• 성광 낚시터(성광복지재단)	• 위치 : 장안동(669-4295) • 면적 : 0.39ha, 좌대수 50개 • 주요 어종 : 잉어, 붕어 등(3월~11월) • 낚시요금: 1일 20,000원
• 당거리 낚시터(최상현)	• 위치 : 오성면 당거리(681-7010) • 면적 : 0.39ha, 좌대수 74개 • 주요 어종 : 잉어, 붕어 등(3월~11월) • 낚시요금: 1일 26,000원
• 새마을 낚시터(정두철)	• 위치 : 고덕면 궁리(664-5784) • 면적 : 1.8ha, 좌대수 125개 • 주요 어종 : 잉어, 붕어, 가물치 등(3월~11월) • 낚시요금: 1일 25,000원
• 사후동 낚시터(최창렬)	• 위치 : 진위면 동천리(662-9483) • 면적 : 1.20ha, 좌대수 68개 • 주요 어종 : 잉어, 붕어 등(3월~11월) • 낚시요금: 1일 25,000원
• 월곡 낚시터(허정회)	• 위치 : 죽백동(656-9184) • 면적 : 1ha, 좌대수 140개 • 주요 어종 : 잉어, 붕어, 송어 등(1월~12월) • 낚시요금: 1일 25,000원

낚시터 명(대표자)	현황
• 계양 낚시터(채수풍)	• 위치 : 팽성읍 노양리(691-2102) • 면적 : 1.31ha, 좌대수 40개 • 주요 어종 : 잉어, 붕어 등(3월~11월) • 낚시요금: 1일 25,000원
• 동막 낚시터(안희태)	• 위치 : 송북동 동막마을(666-9499) • 면적 : 2ha, 좌대수 40개 • 주요 어종 : 잉어, 붕어 등(3월~11월) • 낚시요금: 1일 25,000원
• 서탄 낚시터(인삼량)	• 위치 : 서탄면 회화리(664-3114) • 면적 : 1.02ha, 좌대수 90개 • 주요 어종 : 잉어, 붕어 등(3월~11월) • 낚시요금: 1일 25,000원
• 석봉 낚시터(김용섭)	• 위치 : 팽성읍 석봉리(691-8211) • 면적 : 12.7ha, 좌대수 300개 • 주요 어종 : 잉어, 붕어 등(3월~11월) • 낚시요금: 1일 25,000원
• 고현 낚시터(김은자)	• 위치 : 진위면 고현리(667-6366) • 면적 : 0.57ha, 좌대수 80개 • 주요 어종 : 잉어, 붕어 등(3월~11월) • 낚시요금: 1일 25,000원
• 주말촌 낚시터(박문수)	• 위치 : 칠원동(663-8880) • 좌대수 50개 • 주요 어종 : 붕어 등(3월~11월) • 낚시요금: 1일 20,000원

▮ 낚시터(팽성읍)

참고문헌

평택군지편찬위원회, 『평택군지』, 1984.
안성군지편찬위원회, 『안성군지』, 1990.
송탄시사편찬위원회, 『송탄시사』, 1994.
남양주시지편찬위원회, 『남양주시지』, 2000.

평택시 경기도박물관, 『평택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9.
경기도, 『지명유래집』, 1987.
용인문화원, 『내고장 민속』, 1987.
송탄시시사편찬위원회, 『향토사』, 1992.
평택시문화원, 『향토사료집(제2집)』, 1992.
천안군문화원, 『문화유적해설』, 1992.

평택시, 『시정백서』 1999.
평택시, 『평택시 종합발전계획』, 1996.
평택시, 『평택발전 방안연구』, 2000.
평택시, 『평택비전 2016』, 2001.
아름답고 푸른평택 21 추진협의회, 『아름답고 푸른평택 21』 1999.

경기도, 『1996년 기준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경기도, 『2001년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평택시, 『통계연보』, 1995.
평택시, 『통계연보』, 2000.
평택시, 「1996 기준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보고서」
평택시, 「1999 기준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보고서」
평택시, 『시정운영』 2001.

공업

제5절

1. 수공업의 발달과 평택

수공업은 도구와 토기의 생산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평택의 고덕면 · 오성면 · 현덕면 · 팽성 등지에서 신석기 유물로 추정되는 마제석검 · 돌도끼 · 화살촉 · 돌칼 등이 발견되었다. 원시적인 형태의 수공업품 제작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도구를 전업적으로 생산하는 숙련된 전문적 기능인인 공장(工匠)이 등장하게 되었다. 수공업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한 호칭은 매우 다양하다. 공장 · 공인(工人) · 수공업자(手工業者) · 장공인(匠工人) 등으로 불렸다. 대개 우리 나라의 공장은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사민관(四民觀)에 의해 신분이 규제되는 측면이 강하였다. 피지배계층인 농공상(農工商) 중에 농업은 본업으로 중시된 반면, 공장과 상인은 말업(末業)에 종사하는 좀 낮은 계층으로 인식되었다. 평택 역시 본업을 중시하는 풍토가 지배적이어서 수공업에 종사하는 공장이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공장은 사회에 꼭 필요한 구성원이며, 그들이 생산하는 수공업품의 공급 역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고대사회부터 수공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고대의 수공업은 관영수공업과 농촌수공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관청과 지배계층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후자는 자가수요 및 조세수납의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당시의 관영수공업은 주로 직물 · 도자기 · 도기 부문이 특히 발달하였다. 백제에는 무기의 제조를 관장하는 도부(刀部), 금속제품을 관장하는 사공부(司空部), 직조(織造)를 관장하는 주부(綢部) 등의 수공업조직이 있었다. 신라는 직물의 제조를 관장하는 기전(綺典)과 모전(毛典) 및 유기(柳器)나 죽세공품을 담당하는 양전(楊典) 등의 관청이 있었다. 통일신라에는 각종 수공업품의 생산과 조달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관청과 관리가 설치되었다. 철유전(鐵鍮典 : 금속제품) · 마전(麻典 : 삼과 모시의 길쌈) · 금전(錦典 : 비단) · 모전(毛典 : 모직물) · 와기전(瓦器典 : 토기와 기와) 등의 관청에는 간(干) · 사(史) 등의 관리가 임명되어 있었다. 이들 관료들은 수공업품의 조달과 수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시기 놋쇠를 비롯한 금은수공업제품은 주로 왕실과 소수 귀족들의 사치품으로 사용되었으며, 불교가 발전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불상 · 범종 · 향로 등도 많이 제작되었다.

상층공장의 신분은 5두품과 4두품이며, 지방 공장의 경우는 진촌주층 이하의 촌주층에 속하였다. 신라의 공장은 고려나 조선에 비해 높은 신분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억말적(抑末的)인 분위기로 일관된 이후의 시대와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농민수공업자의 구체적인 활동상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발굴된 유물을 통해 호미 · 낫과 같은 농기구를 비롯하여 수레의 부품, 건축에 필요한 철제품, 일상생활에 필요한 칼 · 마치 · 바늘 등의 철제품을 생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사원이나 주택의 건설, 기와의 제조에도 종사하였을 것이다.

고려시대에 이르면 점차 전업적인 수공업자가 증가하였다. 농촌지역의 길쌈 등 부업적인 수공업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자급자족의 형태였다. 그런데 수요가 늘어감에 따라 점차 전업적인 장인이 이전보다 훨씬 많이 출현하게 되었다.

고려시대의 수공업은 크게 관영수공업과 민간수공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영수공업은 주로 왕실과 국가 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수공업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고, 민간수공업은 일반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관영수공업에 종사하는 공장은 관공장(官工匠 : 관청수공업자), 민간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공장(私工匠 : 민영수공업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중앙의 여러 관청에는 관공장들이 소속되어 있었다. 건축과 토목공사를 담당하는 선공시(繕工寺)에는 토공(土工) · 목공(木工) · 석공(石工)이, 각종 병기(兵器)를 제작하는 군기시(軍器寺)에는 피갑장(皮甲匠 : 갑옷 제작) · 장도장(長刀匠 : 칼 제작) · 전장(箭匠 : 화살 제작) 등이 각기 맡은 바 업종에 따라 수공업품을 생산하였다. 의복을 관장하는 장복서(掌服署)에는 수장(繡匠 : 수놓는 공장) · 복두장(幞頭匠 : 복두 제작) · 화장(靴匠 : 가죽신 제작) 등이, 금속세공품의 제작을 담당하는 장야서(掌冶署)에는 은장(銀匠 : 은 세공) · 금박장(金箔匠 : 금박 담당) 등의 전문적인 공장이 배속되어 있었다. 총 13개 관청에 62종의 공장이 배치되어 있었다.

지방 관청수공업의 모습은 각 도에서 운영하던 금기방(錦綺坊) · 잡직방(雜織坊) · 갑방(甲坊)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중 금기방은 비단의 제작을, 잡직방은 여러 직물류를, 갑방은 무기의 제조를 담당하였다. 평택 지역에도 위와 같은 공장이 배치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밖에 지방관청 자체의 수요를 위한 수공업장도 있었으나, 그 수나 규모면에서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고려에는 금소(金所)·은소(銀所)·동소(銅所)·철소(鐵所)·자기소(瓷器所)·지소(紙所)·사소(絲所) 등의 여러 소가 전국적으로 존재하였다. 이 소들을 본거지로 하여 전업적인 수공업제품이 생산되었는데, 전체 수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다. 평택 지역에 존재했던 소는 찾아지지 않는다. 하지만 지방 수공업이 꽤 발전하였으므로 수공업자가 다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한편 민간수공업자인 사공장의 활동도 무시할 수 없다. 민간에서는 자가수요를 위한 의류나 관청에 납부하기 위한 포물류를 생산했으며, 꽤 많은 분야에서 전업적인 공장의 존재를 찾을 수 있다. 안공(鞍工 : 말 안장 제작)·옥공(玉工 : 옥의 가공)·홍정장(紅鞓工 : 붉은 가죽띠 제작)·철장(鐵匠 : 철기 제작)·지장(紙匠 : 종이 제조)·경장(鏡匠 : 거울 제작)·금박장 등의 사례가 나타난다. 아울러 고려시대에는 민간수공업으로서 베·모시·비단을 짜는 직조수공업과 돗자리·방석 등을 엮는 자리수공업, 제지업 등이 광범하게 발전하였다. 이들 공장들은 각자 수공업제품을 만들어 교역함으로써 생활을 영위해 나갔다.

수공업정책에 있어 조선왕조는 소극적이었다. 사농공상의 신분관에 입각하여 일반 백성의 생업 중 농업을 제외한 수공업이나 상업을 말업(末業)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장인이나 상인을 천시하였다. 그렇지만 관영수공업의 운영과 민간에서의 공물 수납은 여전하였다. 조선시대 수공업의 형태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국가 관청에 의해 만들어지는 수공업품의 생산이고, 다른 하나는 가내수공업에 의해 만들어지는 농기구·생활용품 등의 수공업품의 제작이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공조는 교량·도로의 개설·보수, 건축, 도량형기 제작, 배·수레 등의 제작, 식목, 철의 제련, 화목의 관리, 보물의 관리, 장공인의 관리를 하였다. 각 지방에도 공장을 두어 공산품·기계류 등을 제작토록 했다.

조선왕조는 왕실이나 관청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기 위하여 장인들을 경공장(京工匠)과 외공장(外工匠)으로 구분하였다. 경공장은 중앙 관아에 소속된 장인이다. 공조(工曹)·상의원(尙衣院)·군기시(軍器寺)·선공감(繕工監) 등의 30개 관청에 129종의 장인이 소속되었다. 지방 군현에 소속된 공장은 외공장으로 불렸는데, 27종에 달하였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외공장으로 갑장(甲匠 : 갑옷 제작)·야장(冶匠 : 대장장이)·궁인(弓人 : 활 제작)·시인(矢人 : 화살 제작)·목장(木匠 : 목수)·피장(皮匠 : 가죽 가공)·유장(鍮匠 : 놋쇠 가공)·칠장(漆匠 : 옷칠)·사기장(沙器匠 : 사기 제작)·궁현장(弓弦匠 : 활시위 제작)·지장(紙匠 : 종이 제조)·석장(席匠 : 돗자리 제

작) · 조각장(雕刻匠 : 조각 담당) · 마조장(磨造匠 : 맷돌 제작) · 묵장(墨匠 : 먹 제작) · 소성장(梳省匠 : 빗 제작) · 유구장(油具匠 : 기름 먹이는 공장) · 황옹장(黃瓮匠 : 항아리 제작) · 선자장(扇子匠 : 부채 제작) · 석장(石匠 : 석수) · 종모아장(鬃帽兒匠 : 상투 제작)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공장이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존재한 것은 아니었다. 지방의 사정이나 특성에 따라 몇몇 외공장이 소속되어 있었다. 역시 『경국대전』에 따르면 양성에 야장(冶匠) 1명, 시인(矢人) 1명, 목장(木匠) 1명이 배속되어 있었다. 진위현에도 역시 야장 1명, 시인 1명, 목장 1명이 있었다. 평택현에는 유구장(油具匠) 2명, 야장 1명, 시인 1명, 지장(紙匠) 2명, 석장(席匠) 1명, 목장 1명, 피장(皮匠) 1명, 칠장 1명이 소속되어 있었다. 배치된 공장의 인원은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그러나 수공업품 생산 공정의 분화과정을 고려할 때 이들 공장에게 부속된 수공업자도 상당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조선시대 중기 이후에 송탄 지역에는 대장간과 야철소가 있었다. 설화에 등장하는 풀무골 · 정골 · 사기골 등의 지명을 가지고 유적조사를 한 결과, 솥 · 농기구 · 사기그릇이 제작되었던 유적이 발굴되었다. 또 송탄 지역은 참나무가 숲을 이루어 숯막이 많았으며, 그 질이 좋아 궁중에 납품되기도 하였다. 탄현은 옛날 숯을 싣고 넘어간 데서 숯고개라는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수공업이 발달하면 상품의 유통도 촉진되게 마련이다. 전국 곳곳에 장시가 서고, 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와 관련된 업종도 늘어났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장시(場市)가 전국적으로 증가하였다. 진위에도 읍장(邑場)이 있었는데, 매월 1일과 6일에 열렸다. 이 장시를 통해 수공업품이 활발하게 거래되었을 것이다. 진위읍지의 기록에 의하면 상업과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적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꽤 많은 수공업 제품이 장시를 통해 매매되었을 것이다.

상품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그와 관련된 업종도 나타났다. 그중 점막(店幕)은 음식을 팔기도 하고 나그네들이 묵어갈 수 있는 곳인데, 진위에는 여러 곳에 점막이 있었다. 1899년 진위읍지에 의하면 읍내점(邑內店 : 홍문 앞) · 청호점(淸湖店 : 일북면) · 견산점(見山店 : 이북면) · 신제점(新堤店 : 마산면) · 우곡점(牛谷店 : 마산면) · 갈원점(葛院店 : 여방면) · 통복점(通伏店 : 병파면)이 있었다.

조선왕조 후기로 오면서 관청수공업은 점차 쇠퇴하였다. 관청수공업장에 종사하는 공장은 부역제가 아니라 고용제로 바뀌어갔고, 왕실 및 관청 수요를 위한 사옹원분원(司饔院分院)과 조지서(造紙署)와 같은 대규모 제조장에 민간의 상인자본이 침투하여 차차 민영화되어갔다. 이에 따라 관청수공업장에서 풀려난 공장들은 상품생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때문에 시전상인들과의 사이에 시장활동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데 공장과 시전상인과의 경쟁은 공장들의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상인들의 자본력에 의해 생산이 지배되는 방향으로 진전되었다. 상업자본에 의한 수공업지배가 진행된 것이다.

농촌수공업에도 변화가 생겼다. 원래 조선왕조는 농촌지방의 수공업제품은 공납(貢納)을 통해 포목과 같은 농가의 부업제품은 군포(軍布) 등을 통해 거두어갔다. 이 때문에 농촌지방에서 전업적 자영 수공업자의 성장은 오랫동안 저지되었고, 대부분 부업적인 측면에 머물렀다. 그러나 후기로 오면서 농촌수공업도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자영수공업이 발전해갔다. 17세기에 대동법이 실시되어 공물과 요역이 원칙적으로 폐지된 영향도 크게 작용하였다. 그 결과 농촌지역에 일종의 수공업 생산장인 점촌(店村)이 발달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수의 수철점(水鐵店) · 옹점(甕店) · 침점(針店) 등이 생겨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다고 한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수공업 부문에 또다른 변화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수공업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일정한 토지 위에 장비시설을 갖추고 원자재를 구입하는 한편, 일정한 임금을 지불하는 노동자를 고용하여 분업에 의한 협업체제에 의해 물품을 생산하는 방법이 수공업의 여러 부분에도 싹트기 시작하였다. 상인이 공장에게 미리 물품값을 지불하여 주문 제작하는 방식인 선대제수공업(先貸制手工業)도 출현하게 되었다.

수공업은 개항을 계기로 하여 자생적인 발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20세기초 열강에 의해 자본제 상품이 들어오게 되면서 많은 고유한 수공업이 산업자본으로 승화되지 못하였다. 문호개방 이전 수공업 부문에서 생산량이나 품질면에서 가장 앞섰던 면직물 생산까지도 공장제수공업 단계에 나아가지 못하고 선대제적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더구나 우리 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값싼 공업원료 공급지 내지 기계제 상품의 시장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일제시대에 송탄지역에는 일본인에 의한 철공소 · 도정공장 등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까지도 정미소 보다는 재래식 디딜방아 · 연자방아 · 물레방아 등이 보편적으로 이용되었다.

현대의 수공업은 대규모공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위축되었다. 따라서 수공업제품은 생활용품이나 산업용품보다는 대체로 기호품이나 장식용품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 지방에서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것이 보통이다. 현재는 죽세공품 · 등공예품 · 보석공예품 · 유리세공품 · 나전칠기 · 도자공예품 · 석공예품 · 전통가구 등의 공예품 위주의 수공업분야가 발전하고 있다.

2. 평택의 공업 개황

경제적으로 가장 활기찬 수도권 최남단의 관문이며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중심지이며, 경제적으로도 국내 최대 소비시장인 서울이 한 시간 거리에 위치하여 있고, 향후 아시아 대륙의 관문이자 환황해권 경제의 핵심거점으로 건설중인 평택항이 위치한 곳으로 양 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무궁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현재 건설중인 포승국가산업단지 및 평택항을 관할하는 위치에서 상품의 수 · 출입, 기술 조달, 물류비용의 절감 등이 용이하고 풍부한 도시기반 시설과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기업들의 산실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과 서울의 인구증가 억제정책과 광활한 대륙을 향한 환 황해권경제시대 도래에 따른 인구 유입이 계속되어 2001년 말 현재 356천여 명의 인구가 2010년대에는 인구 90만의 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풍부한 젊은 노동력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 · 공업 발전을 더욱 가속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제조업체 현황

조선시대의 공업 형태는 국가가 관장하는 관청〔工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공산품 제조와 개인〔工人〕에 의하여 가내수공업 형태로 만들어졌던 생활용품 등의 제조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시 관내에서는 진위현이나 평택현 등 관아 소재지였던 진위면 봉남리와 팽성읍 객사리 등에 병기나 농기구를 제작한 대규모 대장간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는 가내 수공업에 지나지 않았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지방관청의 장공인들 중 진위현과 평택현에 배치되였던 장공인(匠工人)들은 모두 13명이었다고 하였으며 이를 분류하면,

- 진위현 (3명)

야장(대장장이)	1명
시인(화살만드는 장공인)	1
목장(목수)	1

- 평택현 (10명)

유구인(기름먹이는 장공인)	2
야장	1

시인	1
지장(종이 뜨는 장공인)	2
석장(돗자리 만드는 장공인)	1
목장	1
피장(가죽 기술공)	1
칠장(옻칠장이)	1

위와 같이 관청에 의하여 관리되던 장공인들 외에도 그들에게 딸려있던 작업인들이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고, 지방민들에 의한 가내수공업 형태의 기능인들이 다수 존재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설화나 지명 유래 등에 등장하는 풀무골 · 정골 · 사기골〔사기막골 - 沙器幕 里〕 등의 유적조사에서 솥 · 농기구 · 사기그릇 등이 제작되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 취사 연료였던 '숯'의 생산이 많았다고 하는데 북부지역에 참나무가 숲을 이루어 이탄면(현재의 서탄면)일대에 숯막이 많았고, 이때 숯을 싣고 넘은 고개가 있어 이를 숯고개로 불렀다고 전하여 지고 있으며 현재 국민은행 송탄지점의 소재지인 탄현마을의 지명유래이기도 하다.

일제 침략기를 거치는 동안 일본인들에 의하여 동력에 의한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가내 수공업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으나 농기구를 제작 · 수리하는 철공소와 도정공장 정도였으며, 공업입국을 목표로 하였던 1960년대초 공업용 수원의 이용이 용이한 진위천과 오산천 주변에 소규모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는데 1962년 6월 20일 서탄면 수월암리에 한국필터(주) 공장(도투락 만두의 前身)이 최초였으며, 1962년도 발간된 평택군 통계연보에 의하면 1961년 12월 31일 현재 평택군 전체인구 155,329명(남자 76,310명, 여자 79,019명) 가운데 제조업 종사자는 10개 읍 · 면(평택읍 196명, 송탄면 183명, 현덕면 27명, 오성면 20명, 고덕면과 팽성면이 각 7명씩, 포승면 6명, 청북면 3명, 서탄면 2명, 진위면 1명)에 걸쳐 0.3%인 452명(남자 341명, 여자 111명)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볼 때, 당시의 제조업은 가내수공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하겠다.

2000년 말 현재 공장 등록업체는 714개 업체로, IMF관리체제 이후 재정여건에 따라 '99년도에 비하여 '96개 업체가 증가하였으며, 종업원이 36,399명으로 3,252명이 증가되었음은 업체 재무구조의 내실과 경제여건의 호전의 결과라 하겠으며, 1984년도에 평택군에서 발간한 평택군지에 의하면 1981년도 현재 평택상공회의소 자료로 생산기업체 수 57개소(읍 · 면별 분포는 진위면 23개소, 평택읍 19, 송탄읍 7, 서탄면 4, 고덕면 2, 오성면 1, 포승면 1)와 비교할 때 20년 사이에 약 11배로 증

가하였고, 공장 규모면에서도 당시 종업원 50인 이상의 업체 수는 35개소였으나 현재는 154개 업체이며, 300인 이상의 대기업체도 22개 업체로 규모의 신장을 보여주고 있다.

766개 업체를 업종별로 분류할 때 기계 · 금속 · 전자 · 자동차 업종(29%), 화학 · 고무프라 스틱(15%), 종이, 인쇄 · 목재 · 가구(16.5%), 비금속(7.0%), 섬유 · 의류 · 가죽 · 신발(5.5%), 기타(27%)로 전문화되었으며, 이는 경인지역의 풍부한 기술정보, 노동력, 관련부품업체의 지원, 수송의 편리 등 중소기업에 용이한 업종으로 전문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기도의 2001년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1999년 말 현재의 경기도 전체 규모 대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경기도 전체의 2.2%와 4.8%를 각각 구성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액은 83,180억 원(경기도 전체 1,170,200억 원), 부가가치는 26,660억 원 (경기도 전체 523,200억 원) 규모로 구성비 7.1%와 5.1%로 31개 시, 군 중 각각 4위와 7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새로운 공업지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하겠다.

4. 산업단지 현황

평택시 관내에 조성된 산업단지는 794,041백만 원을 투입하여 7개소에 3,208,000평으로, 이 중 국가산업단지인 2,084,000평 규모의 포승국가산업단지(사업비 512,800백만 원)와 지방산업단지 규모는 총 1,124천 평이며 281,241백만 원을 투자한 송탄지방산업단지를 비롯한 6개 단지로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

[입지별 제조 업체 현황]

(단위 : 개소/ 명)

입지별 / 규모별	계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계	766	37,866	22	74,041	151	12,633	513	11,212
계획입지	273	12,415	6	749	71	6,639	167	5,027
개별입지	493	25,471	16	13,292	80	5,994	345	6,185

[등록 공장 업종별 업체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계	식품	섬유	목재	종이	화학	비금속광물	조립금속	기타
업체수	766	72	37	19	37	64	38	73	426
종업원	37,886	2,963	1,005	250	1,650	2,410	720	3,100	25,788

1) 포승국가 산업단지

21세기 중추산업기지로, 서울, 인천, 청주, 대전 등의 대도시가 반경 100km에 위치하고 있으며,

- 6천여 만 톤의 하역능력을 갖춘 항만시설
- 서해안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교통의 요지
- 대단위 유통단지 및 주거, 상업, 지원시설, 공원 등의 자족시설을 모두 갖춘 최적의 산업입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곳

(1) 사업개요

- 면적 : 2,084천 평(1단계 : 1,300천 평, 2단계 : 784천 평)
  공장용지 : 1,096, 유통업무 : 255, 주거용지 : 783, 기타 : 670
- 사업기간 : '92~2001.12 , 1단계(98.12), 2단계(2001.12)
- 사업비 : 5,128억 원
- 사업 시행자 : 한국토지공사
- 개발방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2) 분양현황

- 분양주체 : 한국토지공사(경기지사 아산만 사업단)
-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 입주업체 : 공장용지 : 인천제철(주) 등 34개 사
  물류용지 : 신양물류 등 13개 사

[용도별 분양 현황]

총 면 적	공장용지(천평)		물류용지(천평)	
	분양대상면적	분양면적	분양대상면적	분양면적
2,084천평	1,096	473(34개사)	255	101(13개사)

※ 분양률 : 공장용지(43%) 물류용지(39.6%)

(3) 주요시설 현황 및 계획

- 경부고속도로 안성 I.C에서 서측으로 25km 지점에 위치하고 서해안 고속도로 서평택 I.C에서 산업단지에 직접 진입할 수가 있도록 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 국도 38호선 및 39호선 도로의 확 · 포장 개통으로 동서남북 사방을 통과하고 있으며 또한 포승 - 평택을 잇는 산업철도가 2009년 완공목표로 건설 예정임.

• 산업단지 좌측면에는 62선석/연간 62백 만 톤의 하역능력을 갖춘 평택항이 건설되고 있으며, 1단계 4선석이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음.

2) 지방산업단지

(1) 송탄지방산업단지

1 조성목적

- 수도권 내 부적격 공장에 대한 이전용지 제공
- 무공해 공장유치

2 입지여건

- 경부고소도로 오산 I.C(12km) 안성 I.C(9km)
- 1번 국도에 연접
- 평택항 23km, 청주공항 60km, 인천신공항 156km, 경부선(평택역) 5km 거리의 배후 시설

3 단지현황

- 위치 : 평택시 모곡동
- 총면적 : 1,086,289.6㎡(329천 평)
- 사업비 : 36.532백만원
- 사업기간 : 88.5.21~90.12.31
- 입주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
  ※ 용수(用水) 다소율 업종과 산업단지 입주 부적격 업종 제한
- 시행자 : 한국토지공사
- 관리기관 : 평택산업단지 관리공단

4 토지이용계획

계(㎡)	산업용지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시설
1,086,289.6	786,629.4	20,863.5	230,881.1	47,915.6

※ 공공시설 : 경찰파출소, 소방파출소, 은행, 우체국

5 입주업체현황

구분	계	제조업												임대업	건축중	물류	미착수
		소계	음식료품	섬유가죽	목재종이	화학플라스틱	비금속	1차금석	조립금속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부품)	기타				
업체수	178	152	7	8	8	41	3	2	18	22	30	10	3	17	6	1	2

6 기반시설

- 용수 : 배수지(2기) - 처리용량(10,000톤/일)
- 전력 : 50,000kw/일
- 통신 : 3,900회선
- 오 · 폐수처리 : 송탄폐수종말처리장 (13,000m³/일)

(2) 평택지방산업단지

1 조성 목적

- 개발유도권역의 동남부 지역개발로 내륙형 경공업 및 유통산업과 지역서비스 기능 부여
- 수도권 내 중소기업이전 및 시 전역에 산재한 공장을 집단화 배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2 입지 여건

- 경부고속도로 안성 I.C(1.7km), 국도 1번 인접
- 평택항 22km, 인천 신공항 164km.

3 단지 현황

- 면적 : 534,798.2m²(162천 평)
- 사업비 : 44,574백만 원
- 사업기간 : '90. 1. 5～'93. 12. 31
- 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

  ※ 용수(用水)다소비업종과 산업단지 입주 부적격업종은 입주 제한

• 시행자 : 평택시장(공영개발)

• 관리기관 : 평택산업단지 관리공단

계(㎡)	산업용지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시설
534,798.2	384,350.3	13,145.4	82,535.1	44,767.4

5 분양 · 입주업체 현황

구분	계	제조업												임대업	건축중	미착수
		소계	음식료품	섬유가죽	목재종이	화학플라스틱	비금속	1차금석	조립금속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기타			
업체수	70	63	2	2	6	13	2	3	4	13	13	2	3	3	2	2

6 기반시설

• 용수 : 6,500톤/일(광역상수도)

• 저력 : 16,000kw/일

• 통신 : 1,200회선

• 오폐수처리 : 입주업체별 1차 처리 후 하수종말처리장 유입

7 공공 시설 : 공원

(3) 장당지방 산업단지

1 조성목적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공업배치 정책에 부응
- 자립경제 기반 구축 및 지역 내 기존 산업의 활성화 유도
-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 주민 소득 증대 도모

② 입지여건

- 경부고속도로 안성I.C(10km), 국도 1호선과 인접
- 평택항 23km, 인천 신공항 156km, 평택역 5km

③ 단지현황

- 위치 : 평택시 장당동
- 총면적 : 149,718.5㎡(45천 평)
- 사업비 : 13,005백만 원
- 사업기간 : '95～'98. 3.30
- 입주 : 6개사
- 주 입주업종 : 음, 식료품, 석유, 화학, 기계, 장비 업종
  ※ 용수(用水) 다소비업종, 공해업종(염색, 주물, 도금, 염.안료, 피혁업종) 등 산업단지 부적격업종 입주 제한
- 시행자 : 평택시장(공영개발)
- 관리기관 : 평택시

④ 토지이용계획

계(㎡)	산업용지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시설
149,718.5	142,117.1	1,899.6	671.3	5,030.5

⑤ 입주업체현황

구분	계	제조업											임대업	건축중	비고
		소계	음식료품	섬유가죽	목재종이	화학플라스틱	비금속	조립금속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기타			
업체수	6	6	2					1	1			2			

※ 가동업체 수 : 5개사

⑥ 기반시설

- 용수 : 수도권 광역상수도 3, 4단계를 수원으로 장당동 배수지에서 공업용수, 생활용수 동시공급가능(공급능력 : 공업용수 2,754톤/일, 생활용수 244톤/일)
- 전력 :인입경로 : 서서울전력소 ⇒ 송탄변전소 ⇒ 입주업체
  공급능력 : 저압 154kv, 용량 6,412KVA
- 통신 : 송탄전화국에서 124회선 공급
- 오폐수처리 : 각 공장에서 1차 처리 후 인근의 송탄지방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장에 유입 처리(처리량 : 13,000톤/일)
- 산업폐기물
  - 일반 폐기물 : 칠괴지방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에서 처리
  - 특정 폐기물 : 위탁처리

(4) 칠괴지방 산업단지

① 조성목적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공업재배치 정책에 부응
-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자립경제 기반 구축
- 지역 내 기존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로 수출경쟁력의 제고 및 공업용지 수요 충족

② 입지여건

- 고속도로 : 경부고속도로 안성I.C(7km)
  인근에 동서고속도로 송탄 I.C개설(시공중)
- 국도 45호선 인접
- 지방도 340호선(1km)

③ 단지현황

- 위치 : 평택시 칠괴동
- 총면적 : 641,275.5㎡(194천 평)
- 사업비 : 70,325백만 원
- 사업기간 : '94～2000. 4. 19
- 입주 : 19개사
- 주 입주업종 :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전 제조업종

※ 용수(用水) 다소비업종, 공해업종(염색, 주물, 도금, 염, 안료, 피혁업종) 등 산업단지 입주 부적격 업종 입주 제한

- 시행자 : 평택시장(공영개발)
- 관리기관 : 평택시

④ 토지이용계획

계(㎡)	산업용지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시설
641,275.5	495,324.8	22,364.3	85,506.1	38,080.3

⑤ 입주업체현황

구분	계	제조업											임대업	연구시설	비고
		소계	음식료품	섬유가죽	목재종이	화학플라스틱	비금속	조립금속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기타			
업체수	19	18	1			2			6	1	1	7		1	

※ 가동업체 수 : 12개사

⑥ 기반시설

- 용수 : 팔당댐을 수원으로 수도권 광역상수도 3, 4단계에서 공업용수, 생활용수 동시 공급가능(공급능력 : 공업용수 5,561톤/일, 생활용수 1,903톤/일)
- 전력
  - 인입경로 : 서서울전력소 ⇒ 송탄변전소 ⇒ 입주업체
  - 공급능력 : 전압 154kv, 단지변전소 용량 53MVA
  - 전력소요량 : 50,283KVA
- 통신 : 송탄전화국에서 680회선 공급
- 오폐수처리 : 업체별로 1차처리 후 송탄지방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장에 유입처리(처리량 : 13,000톤/일)
- 산업폐기물 : 단지 내 폐기물매립장에서 처리

(5) 어연, 한산지방산업단지

1 조성목적

-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수도권 이전대상공장 수용을 위한 이전 적지 확보
-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자립경제기반 구축 및 지역 내 기존 산업의 활성화 유도
- 외국인 기업의 유치로 국내 산업 고도화에 기여

2 입지여건

- 경부고속도로 안성I.C(17km), 오산 IC(14km)와 근거리 위치
- 국도 1, 38, 지방도 340번 인접, 교통체계 양호
- 평택역 12km, 38, 39호 도로와 근접
-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포승국가 산업단지, 현곡 · 송탄지방 산업단지 등과 연계
- 현화택지 개발로 주택난 해소

3 단지현황

- 위치 : 평택시 청북면 어연, 한산리, 율북리
- 총면적 : 689,508.4㎡(209천 평)
- 사업비 : 55,857백만 원
- 사업기간 : '93～'99. 12. 29
- 입주유치 : 40～45개 사(계획)
- 주유치업종 :
  - 외국인투자기업 : 첨단업종, 고도기술 수반업종, NT마크인증 신기술 수반업종
  - 분양용지 : 음 · 식료품, 석유화학. 조립금속기계, 기타 제조업
    ※ 용수(用水) 다소비업종, 공해업종(염색, 주물, 도금, 염, 안료, 피혁업종) 등 산업단지 부적격업종 입주 제한
- 시행자 : 경기 지방공사
- 관리기관 : 평택시

4 토지이용계획

계(㎡)	산업용지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시설
689,508.4	463,544.7	30,690.5	148,621.9	46,651.3

5 입주업체현황

구분	계	제조업											임대업	연구시설	비고
		소계	음식료품	섬유가죽	목재종이	화학플라스틱	비금속	조립금속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기타			
업체수	25	25				6		3	2	1	2	11			

※ 가동업체 수 : 15개사

6 기반 시설

- 용수 : 수도권역상수도 5단계 공급계획
- 전력 : 19,3799kw/일
- 통신 : 1,067회선
- 오폐수처리 : 공장별 1차 처리 후 폐수 종말 처리장에 유입 처리
- 산업폐기물 : 자체 폐기물매립장 확보 처리

(6) 추팔지방산업단지

1 조성목적

- 수도권내 이전대상업체 유치로 공업기반 활성화
- 지역공업 육성으로 고용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
-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 증대

2 입지여건

-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속하여 경부발전축상 위치
- 국토의 중서부(경기도 남부)에 위치 (평택시청 남측 6km, 팽성읍 동측 1.5km)
- 경부고속도로 안성I.C 8km, 사업지구 북서쪽으로 국도 45번과 인접통과, 시도 250호선 관통, 국도 1번 · 38번 인접, 평택항, 서해안 고속도로 서평택 I.C, 경부고속전철, 수도권 전철 2복선(수원~천안간)(공사시행 중) 등 광역교통 접근성 양호

③ 단지현황

- 위치 : 평택시 팽성읍 추팔리, 남산리
- 총면적 : 690,992.2㎡(185천 평)
- 사업비 : 60,948백만 원
- 사업기간 : '93. 11～2000.12. 11
- 입주유치 : 52개사
- 주입주 업종 : 음 · 식료품, 목재, 나무, 가구, 섬유, 의복, 기타 제조업
  ※ 용수(用水) 다소비 업종, 공해업종(염색, 주물, 도금, 염, 안료, 피혁업종) 등 산업단지 부적격업종 입주 제한
- 시행자 : 평택시장(공영개발)
- 관리기관 : 평택시

④ 토지이용계획

계(㎡)	산업용지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시설
609,999.2	414,146.8	35,767	115,427.2	44,658.2

⑤ 입주업체현황

구분	계	제조업											임대업	연구시설	비고
		소계	음식료품	섬유가죽	목재종이	화학플라스틱	비금속	조립금속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기타			
업체수	34	34	4	1		14	1	1	2	4	3	4			

※ 가동업체 수 : 15개사

⑥ 기반시설

- 용수 : 팽성배수지 이용,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 전력 : 80,032kw/일
- 통신 : 1,765 회선
- 오 · 폐수처리 : 1차처리 후 평택 통복하수종말처리장(20,000㎥/일) 연계처리

• 산업폐기물 : 자체 매립장(19,600㎡)

4) 권역별 현황

3개 시 · 군 통합 이후 본청과 2개 출장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권역별로 평택시 전체의 등록된 업체 수(618 개소)와 종사자 수(33,146명)를 대비할 때

(1) 남부권

본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1읍 6동 (통합전 팽성읍과 통합전 평택시)의 남부권에는 세교동에 소재하고 있는 평택지방산업단지와 팽성읍의 추팔지방산업단지 등 2개소의 산업 단지가 있으며, 평택시 전체와 대비한 업체 수는 45.8%(283 개소), 종사자 수는 11,246 명에 33.9%를 차지하고 있다.

(2) 북부권

송탄출장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3면 7동(통합전 평택군의 진위, 서탄, 고덕면과 구 송탄시)의 북부권에는 업체 수는 중앙동의 장당산업단지, 송탄동의 송탄지방산업단지, 칠괴산업단지 등 3개소의 지방산업단지가 있으며, 평택시 전체를 대비한 업체 수는 41.7%인 258개소로 남부권 보다 25개소 적으나 쌍용자동차, LG전자 등 규모가 큰 업체들이 소재하고 있으므로 종사자 수는 54.8%인 18,163 명으로 54.8%를 점하고 있다.

(3) 서부권

안중출장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통합전 평택군의 5개면으로 구성된 서부권은 명실상부한 평택의 곡창지대에 걸맞게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으므로, 분양 중에 있는 208만평 규모의 포승국가산업단지와 청북면의 어연 · 한산지방산업단지가 있으며 시 전체와 대비한 업체 수 77개소로 시 전체의 12.5%에, 종사자 수는 3,738명에 11.3%를 차지하고 있다.

5) 행정 지원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와 IMF관리 체제로 인한 산업구조 조정과 업체간 경쟁이 치열하여 기업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이 극대화됨에 따라 제조업체 중 96.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육성 · 지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자금지원 확대, 우리 고장상품 팔아주기 운동과 우수상품 홍보, 전자상거래 등을 비롯한 판촉활동과 공장관련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은 물론 미진학 청소년이나 영세민 등 비교적 생활여건이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활용이 가능하나 기능이 없는 경제인력을 산업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2000년/283명, 2001년/158명에게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였고, 취업정보센터운영과 「구인 ·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하여 취업 결정, 3,900명(취업정보센터 3,663명, 구인 · 구직 만남의 날 237명)의 실적을 거두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행 · 재정적인 지원으로 경영환경개선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상업

제6절

1. 상업의 발달과 평택

1) 조선후기 평택 지역 상업발달의 배경

조선왕조의 지배체제는 그 사회 재부의 원천을 토지에만 한정하였다. 그리고 토지를 통한 재부의 소유자와 그 재부를 바탕으로 한 지배계급을 양반 지주층으로 한정하기 위해, 토지가 아닌 다른 분야 즉 상공업 및 광업분야에서 재부의 생성을 억제하는 억상정책(抑商政策)을 실시했다. 또한 민간상인의 외국무역을 통한 재부의 축적을 저지하기 위해 쇄국주의 정책을 철저히 했다. 이 때문에 국내상업은 화폐의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침체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선왕조의 억상주의 및 쇄국주의도 벌써 16세기로 들어서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친 17세기 이후에는 여전히 억상주의와 쇄국주의가 유지되면서도 밀무역(密貿易)으로나마 중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과의 민간무역이 어느 정도 열려 갔고, 국내에서도 17세기경부터 금속화폐가 지속적으로 유통될 수 있을 정도로 도시상업과 농촌상업이 발달해 갔다.

경기도도 이러한 상황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원래 서울과 가까운 경기지역에는 개성을 제외하고는 장시 설립이 금지되어 있었다. 서울이 소비도시이므로 외부에서 상품이 반입되어야 안정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서울의 상권을 장악한 시전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장시개설의 금지와 상업활동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 경기도 내 각 지방에서는 상업이 발달하고 장시가 개설되고 있었다.

임진왜란 이후 경기도 내 장시 개설이 허용된 이래, 장시가 급속히 확산되어

▮ 조선시대 말기 평택장

18세기 중엽에는 5일장은 모두 101곳에서 열리고 있었다. 당시 경기도 지역 장시권(場市圈)의 평균면적은 118km²로서 장시밀도가 높은 편이었고, 장시권의 평균반경으로 판단하건대 농민들은 대부분 하루 안에 장을 볼 수 있었다. 평야와 논농사가 발달하여 인구밀도가 높았던 경기도 남부지방이 북부지방보다 장시밀도가 높았다.

이러한 경기지역 장시의 발달은 17세기 후반 이후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사회적 분업의 진전으로 인한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아울러 전국적 유통의 중심지로서 급속하게 상업도시로 성장한 서울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서울이라는 대규모 소비시장의 존재는 서울 인근 지역의 생산과 유통구조를 변화시켰다. 송파장과 사평장, 누원점 등 서울 외곽에 유통거점이 형성되었고, 서울 주변의 농촌은 서울 시민을 판매대상으로 하는 상업적 농업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서울과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로도 크게 정비되었다. 17세기 후반에는 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각 나루터에 진선(津船)을 증치(增置)하는 등, 한강을 이용한 교통로도 정비되었다. 이를 이용하여 강원도, 경기도 및 경상도 지역의 물화가 서울로 집하되었다.

육상교통 역시 발달하였다. 1770년에 씌어진 『도로고』에서는 6대로, 19세기 전반에 편찬된 『임원경제지』에서는 7대로가 표시되어 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경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리고 程里考』에서는 간선도로를 10대로로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간선도로의 확대는 종전 별로(別路)나 간로(間路) 등이 대로로 승격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19세기 후반에 유통로의 발달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평택 지역의 상업 역시 유통로의 발달과 긴밀한 관련이 있었다. 예를 들어 신경준이 쓴 『도로고』를 보면 6대로 중에 제주로를 들고 있는데, 서울에서 해남을 거쳐 제주에 이르는 도로로서, 과천, 수원, 오산, 진위, 평택 등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이 교통로변에 장시가 위치하였다. 제5로변에는 군포(1)-수원(성문외 2, 성문내 4)-오산(1)-진위 신장(1)-소사장(5)〔(　)안의 숫자는 개시 일〕이 들어서고 있다. 아울러 소사를 지나 충청수영으로 빠지는 간로에 평택장(3)이 입지하고 있다. 특히 이 길은 19세기 후반의 『정리고』에서는 10대로로 승격하는 길이었다.

이러한 장시뿐 아니라 평택지역에는 많은 점막이 있었다. 점막이란 음식을 팔기도 하고 나그네들이 묵어 갈 수 있는 집으로, 음식점과 여관의 기능을 겸했던 곳이

다. 이러한 점막이 제주로가 지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다. 진위현에만 읍내점, 청호점, 견산점, 신제점, 우곡점, 통복점 등 7개의 점막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18세기말 19세기 초에 간선도로의 증가가 행정중심지나 군사요충지를 연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상품유통권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으며, 평택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음을 보여준다.

한편 소사에서 평택을 지나 충청수영으로 가는 길에 요로원장이 있었다. 소사장에서 요로원장의 거리를 살펴보면 소사장에서 평택장까지 20리, 평택장에서 요로원장까지 30리 거리였다. 그런데 19세기 들어 요로원장이 사라지고 인접한 지역에 둔포장이 나타났다. 이는 둔포에 장시가 개설되어 번창함에 따라 그 고객을 흡수하였기 때문이며, 그 배경은 금강상류와 아산만의 포구 상업이 활성화된 데 있었다.

이처럼 평택지역은 서울과 충청을 잇는 육상교통로의 요지에 위치하였을 뿐 아니라,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이었다. 따라서 조선후기 경기도 평택지역의 상품화폐경제는 당시의 육상 및 해상 교통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다.

2) 조선후기 평택지역 장시의 변화와 의미

조선후기 상품경제의 발전 상황을 잘 보여주는 지표의 하나는 장시의 개설과 발전에 있다. 특히 서울이 아닌 지방의 경우 장시를 통해 상품경제의 변화, 발전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조선후기의 상품유통은 장시와 포구란 공간을 거점으로 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행상이 촌락을 순회하여 매매하기도 했고, 촌락 내의 생산자간에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장시가 발생한 이래 행상이 촌락을 순회하면서 매매하는 것은 장시의 유통으로 전환되었다. 즉 조선의 상업은 모두 정일 개시의 방법에 의해 행해졌다. 농가의 상품경제화 수준, 나아가 농촌지역의 수요밀도가 평일상업을 요청할 단계에 이르지 않았던 반면, 거의 모든 농민이 하루 내에 장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장시의 밀도가 높았기 때문에 농민들은 장시를 통하여 잉여농산물을 처분하고 비자급분을 조달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날 외에 일용품을 구입하는 것을 집안에 여유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 그것을 몹시 수치스러워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장날 이외의 평일 상업은 잘 되지 않았다.

장이 갖는 경제외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당시 농민은 '물품매매의 목적이 없어도 남녀노소가 장시에 모이는 관습이 있었으며 그들이 장시에 나가 음식을 먹거나 오락을 하는 사이에 세상사를 담소하고 견문을 넓히는 것이 적지 않았다.' 이처럼 장시가 오락, 통신, 정보 획득 등의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장을 출입하는 노동력

이 유통비용으로 간주되지 않았고 장날마다 조금씩 판매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었다. 장시에 포섭된 영역에서 자급하지 못하는 상품을 공급하고 그 잉여를 외부로 이출하는 역할은 주로 행상이 맡았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조선후기에 편찬되었던 읍지(邑誌)를 통해 이천 지역 장시의 변천상을 살피고, 아울러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 배경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다만 고찰 시기는 1876년 개항 이전으로 제한하였다. 개항으로 인한 외국상품 및 상인의 침투, 철도의 부설, 도로의 개선 등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통망을 크게 변화시켰다. 그러므로 개항 이후까지를 동시에 고찰할 경우 개항 이전 평택지역의 상품경제에서 교통로의 발전이 갖는 의미가 많이 희석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조선후기에 편찬된 지지류에서 이천지역의 장시변화상이 잘 드러나는 것으로 『동국문헌비고(1770년 간행)』와 『임원경제지(1830년 간행)』, 『대동여지통고(1834년 간행)』를 들 수 있다. 이들 지지류를 통해 약 100년에 걸친 이천지역 장시의 변화상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임원경제지와 대동여지통고의 경우 4년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그 사이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이 시기 상품경제가 활발히 성장, 발전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1830년 이후에 간행된 평택 지역 관련 읍지류는 기존에 있던 읍지류의 내용을 그대로 전재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다. 그리고 1876년 이후에 간행된 것들도 검코에서 제외하였다.

반면 진위현과 평택현 소속 장시뿐 아니라 조선시대에는 평택군에 속하지 않고 수원부에 속했던 안중과 오타, 그리고 양성현에 속했던 소사장까지 함께 검토 대상에 넣었다. 왜냐하면 이들 장시가 현재는 평택시에 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택 지역 장시의 시기별 변화]

지역 \ 출전	동국문헌비고	임원경제지	대동여지통고
수원 안중장	1일	*	2일
수원 오타장	1일	*	*
진위 읍내장	2일	*	2일
진위 신장	*	1일	*
진위 구거리장	4일	*	4일
양성 소사장	5일	5일	5일
평택 읍장	3일	3일	3일

위의 표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서울-제주로 상에 있는 장시들은 개시일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조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도 서술했듯이 안중과 오타장을 제외한 장들은 제주로 상에 있고 각각 2, 3, 4, 5일에 개시되고 있다. 그리고 개시일도 장시의 거리에 따라 적절히 조정되고 있다.

▮ 옛 안중우시장(1970년대)

지역 주민이나 행상 모두에게 인접한 곳의 장날은 서로 달라야 편리하겠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인접한 장시간의 개시간격이 최대한 벌어져야 두 장을 동시에 보기 좋은 반면, 행상은 그것이 짧을수록 장날에 따라 행상하기가 편리하다. 따라서 행상에 편리하도록 인접한 장시 간의 개시간격이 1일인 경우와 지역 주민에게 편리하도록 2~3일인 경우의 빈도가 거의 같았다. 위 표에서도 인접한 장시간에 개시간격이 2일인 경우와 1일인 경우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평택지역의 상업발달이 교통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동국문헌비고』에 보이던 오타장이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오타장과 같은 개시일이면서 교통로의 요지에 있던 안중장에 흡수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역시 교통로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이었다.

안중장은 충청도 해안지역인 서산, 당진과 경기도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로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었다. 현재의 아산 방조제 축조 이전에도 아산, 당진에서 육로를 통해 서울로 가는 지름길이 있었는데, 그 길은 당진군 송악면 한진나루에서 아산만 해협을 건너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나루로 가는 길이었다. 이 길을 통해 사람은 물론 소나 생필품 등의 물자들이 운반되었다. 바로 이 요지에 안중장이 위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개시일이 같은 오타장이 안중장에 흡수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안중장이 1일에서 2일로 개시일을 옮긴 이유이다. 이 점은 분명하게 밝히기 어려운 점이 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안중장은 1일로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1910년 이후에 나온 자료들 역시 안중장의 개시일을 1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대동여지통고에만 2일로 나와 있어 그때 무슨 사정이 생겨 2일로 개시일을 바꾼 것인지, 아니면 오기인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특기할 것은 안중장이 경기도에서도 손꼽히는 소시장이 열렸던 곳이라는 점이다. 옛말에 '송아지는 한진나루를 통해 충청도 산골로 보내 길러지고, 다 기른 큰 소는 만호나루로 건너와 경기도 일대에서 부렸다'고 하듯이 두 나루를 경계로

▮ 현 안중가축시장(2001년)

소의 거래가 활발하였다. 그리고 만호나루로 건너온 소는 바로 안중장에서 매매되었다. 안중장은 평택시의 포승면, 오성면, 청북면, 현덕면 등 서부 4개면을 포섭하고, 북쪽으로 발안장과 수원장으로 연결되는 장이었다. 그래서 일대의 거래가 집중되었고 그만큼 소의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뿐 아니라 안중 지역의 상인들은 장시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백중 장날, 즉 음력 7월 백중 무렵에 장이 서면 싸전에서는 송아지와 쌀, 쟁기 등을 상품으로 걸고 큰 씨름판을 벌였다고 한다. 또 안중장에서는 '안중장이 세 번 깨지면 그 해에 풍년이 든다'는 말이 전해진다. 평택 서부 지역은 아산호가 생겨 농업용수가 풍부해지기 전까지는 비가 적었다고 한다. 그래서 장이 서지 않을 정도로 비가 오면 농업용수가 풍부해지고 그러면 농사가 풍년이 든다는 것이다. 농업을 기반으로 했던 평택지역과 안중장의 관계 등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네 번째는 비슷한 위치에 있는 진위 읍내장과 신장이 번갈아 서고 있는 점이다. 즉 개시일이 2일이던 진위 읍내장이 임원경제지 단계에서 개시일이 1일인 신장으로 바뀌었다가, 불과 4년 뒤인 대동여지통고에는 다시 2일장인 읍내장이 나타나고 신장이 사라지고 있다. 문제는 1899년에 간행되었던 『경기도진위군읍지여지도성책京畿道振威郡邑誌輿地圖成冊』을 보면, 장시는 읍장이 1일에 개시되는 것으로 나온다. 그리고 이 장은 신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자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 정확한 해석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위의 자료 외의 읍지에서도 진위읍장의 개시일은 1일로 나오고 있어, 이번에도 『동국여지통고』의 자료가 『동국문헌비고』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함으로써 나타난 착오가 아닌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진위 읍내장이 2일에서 1일로 개시일을 바꾼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진위 지역은 진위천이 흐르고 있다. 그리고 이 진위천 유역에는 여러 개의 장시가 서고 있다. 수원의 북문외장, 남문외장, 오산장, 진위의 읍내장, 안성의 읍내장, 용인의 도촌장, 양성의 현내장과 소사장이다.

이 중 특히 안성장에 주목하고 싶다.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안성은 화물이 모여 쌓이고 공장과 장사꾼이 모여들어서 한양 남쪽의 한 도회가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안성은 이 지역 시장권의 중심장으로서 기능하였다. 안성은 '장날은 2 · 7일의 6회이지만, 그 다음날까지 계속 거래하므로 3 · 8일을 합하면 한 달에 거의 12회 개시되었다. 안성은 수운편이 없는 경기 충청 양도의 내부 각지로 화물을 공급하고

한강의 상류 장호원부터 해안의 둔포, 군문포에 이르기까지 충청의 중앙부를 횡단하여 그 상업을 확장하였다.' 고 한다. 그래서 주변의 백암, 이실, 죽산, 양성, 소사, 평택읍장뿐 아니라 음죽의 돌원장, 용인장, 진위장, 입석장, 진천장의 안쪽에 있는 장시의 대부분을 포섭했을 정도로 일찍부터 대장을 형성하였다.

■ 양성현지도에 기록된 해창(지금의 포승면 수도사 부근)

결국 진위천 수운을 이용해 안성장과 진위 읍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안성장의 영향권 안에 진위 읍장이 있었다. 그런데 안성장도 진위 읍내장과 같은 2일에 개시되고 있었다. 따라서 안성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이 읍내장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그만큼 진위 읍내장의 입지가 약해졌을 것이다. 진위 읍내장은 이를 피하기 위해 개시일을 바꾸어야 했고, 그 결과 1일을 개시일로 하는 신장이 나타나고 읍내장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2. 해운의 발전과 평택지역의 상업

평택지역은 동부의 극히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거의 전지역이 경사가 완만한 풍화물 침식평지와 충적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지형 고도가 낮고 기복이 작은데다 경사가 완만하여 전체적으로 침식평야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풍화물 침식지형은 진위면 동쪽의 오성면, 안중면과 송탄 및 그 주변 지역, 평택시가 위치한 지역, 진위천 서쪽의 청북면과 포승면 지역 등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충적평야는 진위천과 그 지류인 통복천, 도일천 연안, 서정천 연안과 분향만의 주변 지역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특히 2개의 하천이 합류하는 곳에는 넓은 충적지가 발달해 있다. 이처럼 평택지역은 평탄한 침식평야와 충적평야가 넓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넓은 농경지가 개척되었고, 충적지에 인접한 풍화물 침식지에는 규모가 다양한 취락이 발달하였다.

그러므로 평택의 주된 물산은 미, 맥, 두류 등 곡류였다. 이러한 곡류의 유출은 주로 수운을 통해 해운에 유리한 포구로 운송되는 방식을 취했을 것이다. 그리고 조선후기 당시 수운을 통한 유통구조의 양태는 매우 다양했는데, 대표적인 것은 여객주인을 정점으로 이루어졌다. 여객주인은 화물을 매집 혹은 위탁받아, 이를 상선을 이용해 하천 상류의 내륙지방에 판매하였다. 거래매개는 화폐 혹은 물물교환이었는데, 해안지방의 어염과 내륙지방의 곡물 및 임산물이 주종을 이루었다. 왜냐하면

포구에서의 유통은 장시와 달리 부피가 크고 중량이 무거운 상품이 특히 유리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포구에 집산되는 중심적인 상품은 미곡을 중심으로 하는 곡물 및 소금을 중심으로 하는 수산물이었고, 고가의 소형상품이나 국지내에서 생산, 소비되는 상품은 포구에 잘 등장하지 않았다.

장시가 주변 농민을 위한 소매상업이 이루어지는 국지내적 유통의 중심지라면, 포구는 여객주인의 중개에 의해 선상과 육상(陸商), 지주, 부농 간의 도매적 성격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원격지 유통을 위한 결절점으로 파악할 수 있다. 포구에 출입하는 선박은 수십석, 수백석을 실을 수 있었는데, 수레가 다닐만한 도로가 흔치 않은 육로교통의 상황에서 대량의 물품 이동과 거래는 당연히 선박과 포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더욱이 18세기 후반 항해술의 발달과 상품경제의 발달로 전국을 연결하는 항로가 발달하고 있었다. 평택지역도 서천-비안-남포-보령-홍주-결성-해미-서산-태안-당진-면천-아산-직산-평택으로 연결되는 항로가 있었다. 이들 해로는 대체로 군현을 단위로 가장 큰 포구를 중심으로 주위의 소포구가 연결되고, 다시 군현과 군현 사이에는 각 도나 지역의 중심포구가 그 지역 해상유통권의 중심으로 기능하였다. 평택지역의 경우 그러한 역할을 담당한 포구가 바로 둔포였고, 그 중심에 여객주인이 있었다.

금강 상류와 아산만의 포구 상업이 활성화되면서 등장한 둔포장은 진위, 양성, 직산, 성환, 천안, 온양, 아산 등 사방 60~70리 지역의 유통 중심지 기능을 하였다. 비록 개항 이후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둔포의 경우 1895년경 여객주인이 22~23호(이 중 10여 호는 鹽客主임)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 둔포의 여객주인은 휘하에 보부상단을 거느리고 각 지역의 장시를 장악하였다. 둔포를 거점으로 하는 보부상단은 그 유통권에 포섭된 아산과 평택을 관할하였다. 당시 둔포 보부상의 규모는 평택, 아산 양군에 5백명이었다고 하며, 이를 남북의 2조로 나누어 둔포에 사는 황주연(黃胄淵)이라는 사람이 총관할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중 평택에 사는 보부상의 수만도 200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처럼 해운과 포구상업이 발달하면서 평택지역은 둔포와 긴밀히 연결되었고, 그 유통권 안에 포섭되었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평택 지역의 상업은 전국적인 유통권과 연결되었다. 때문에 19세기 후반이 되면 평택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서울로 반입되는 비중이 상당히 커지게 되었고, 그만큼 상업적 이익도 많았다.

요컨대 평택지역의 상업은 서울과 충청, 전라도를 잇는 다양한 교통로, 즉 서울~제주로와 서울~충청수영로, 그리고 서산, 당진~서울 간의 도로가 지나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었고, 주변에 수원과 안성 같은 상업 도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상업이 발달할 수 있었다. 아울러 18세기 후반 해운과 포구상업의 발달로 인해 둔포를 매개로 전국적 유통권에 포섭되어 상당한 규모의 상품 유통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道路攷』, 『林園經濟志』, 『大東輿地通考』
평택군지편찬위원회, 『평택군지』, 1984
정승모, 『시장의 사회사』, 1992
송탄시사편찬위원회, 『송탄시사』, 1994
고동환, 『朝鮮後期 서울商業發達史硏究』, 1998, 知識産業社
평택시, 경기도박물관, 『평택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9
姜萬吉, [市場과 商人], 『韓國史市民講座』9, 1991, 一潮閣
金大吉, [朝鮮後期 京畿道의 場市], 『水邨박영석교수화갑기념한국사학논총』 상, 1992
장재훈, [京畿地域의 位置와 地形的 環境] 『京畿地域의 鄕土文化』, 1997
李憲昶, 金鐘爀 ,[京畿地域의 市場變動], 『京畿地域의 鄕土文化』上, 1997
崔永俊, 金鍾赫, [京畿地域의 交通路와 交通의 發達] 『京畿地域의 鄕土文化』, 1997

3. 일제강점기 전후 평택지역의 상업

1) 1980년대의 점막

음식점과 여관의 기능을 가졌던 점막은 조선 시대의 교통로인 삼남로와 간선도로 주변에 일정거리를 두고 형성되었던 필수적인 존재였다. 1994년도 『송탄시사』에 의하면 진위현지에 나타난 1899년도의 진위현 내에 있었던 점막은 7개소(읍내점 : 진위면 봉남리 주변, 청호점 : 청호리 우촌주변, 견산점 : 견산리~오산사이, 신제점 : 봉남리~마산리 사이, 우곡점 : 송북동 우곡마을 주변, 갈원점 : 송탄동 칠원마을, 통복점 : 통복동 주변)였다고 한다.

문헌상에는 향시나 점막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지명 유래 등 구전에 의하면 청북면 한산리의 너더리 장터, 장안동 · 신장동의 구장터마을, 세교동 울성리의 장터거리, 원평동 신덕마을의 상점 및 주막, 도일동의 감주거리, 포승면 신영리의 장터,

▮ 진위현 지도에 기록된 청호주막과 갈원주막

오성면 숙성리의 주막거리, 청북면 삼계리의 옹포마을, 포승면 만호리 등은 비록 규모는 적을지라도 자연 발생적으로 상거래가 이루어졌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2) 일제강점기의 시장변화

일제하의 시장의 경제활동은 일본인들에 의하여 조선민족 착취 형태로 이루어졌다. 당시에도 5일장의 풍토와 보부상 · 행상 등의 활동은 지속되었다고 하지만 1905년 경부철도, 1914년 호남철도의 개설과 1920년대 경부공로(경성-광주-이천 -장호원-충주 등을 경유), 경순공로(경성-수원-오산-평택-성환-천안 등을 경유)의 확장 및 신설에 따라 기차와 자동차 등 교통수단의 발달로 새로운 교통중심지로의 인구이동 및 물산의 집적을 가져와 1938년 진위군청이 평택으로 이전하여 평택군청으로 개칭되면서 군의 중심이었던 진위면 봉남리 일대는 쇠퇴하고 조선시대 말기까지 5일장이 진위군청 소재지(진위면 봉남리) 일대에 섰고, 비록 규모는 작으나마 송탄동 장안부락과 신장동의 구장터마을 등지에도 시장이 있었다고 전해지나 교통의 발달은 장터를 평택군청 주변과 서정리역 주변으로 옮겨지게 하였으며, 특히 소사장이 평택역 주변으로 옮겨져 기존의 평택장(3, 8일장)과 합하여 평택역 부근에 새로운 평택장 (5, 10일장)으로 신설되면서 오늘의 거대한 상설시장의 토대가 되었다.

당시 우리나라 시장은 시장규칙에 의하여 4종으로 구분하였으며 1938년 현재 1,534개소로 그 종류별 숫자는

제1호시장(재래의 정기시장) : 1,458개
제2호시장(공설시장 : 일용품시장) : 28개
제3호시장(도매시장) : 36개
제4호시장(곡물증권 및 현물거래소) : 12개소였다.

▮ 조선시대 말기 평택장

광복이후 인구집중과 농협의 기능 강화 등으로 농촌시장은 점차 위축되고 도시에는 대규모 상설 도 · 소매시장의 급속한 증가로 1975년에는 농촌 정기시장은 1,047개소로 감소한 반면 공설 및 사설 상설시장은 786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62개소 등으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농촌의 정기시장은 그 규모가 축소되었다.

그리고 유일한 생활필수품 교역의 장이었으며, 친지 등을 만날 수 있었던 만남의 장, 사교의 장이었고, 많은 새소식을 접할 수 있었던 장시의 기능도 자연히 크게 위축되었다.

1) 정기시장

우리 고장에는 「재래시장」이라고 부르는 통복 · 서정 · 안중 · 송북 · 안정 · 송탄 중앙시장 등 6개소에의 정기시장에서 5일 간격으로 개시되고 있으며 주로 취급하는 상품은 일용잡화, 농 · 수 · 축산물, 가공식품, 의류 등이고, 시장 내 친목 단체적 성격의 시장번영회가 구성되어 운영 주체가 되어 왔다.

- 주거지와의 인접성과 지역주민과의 친근감, 그리고 일시에 많은 상인들이 모이므로 경쟁이 치열하고, 농산물의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직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가격 경쟁력으로 저렴한 가격에 필요로 하는 생활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으므로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으나, 재래시장은 시장 내 시설의 노후, 시장주변의 무질서, 주차시설의 미비, 경기침체, 대형점 출현 등의 요인으로 침체

되고 있으므로,

•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을 점포 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5억5천만 원을 2000년까지 지원한 바 있으며, 기존의 영세상인 등 중, 소 유통 업체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자금과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지원 시책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1) 통복 시장

가) 개설 년도 : 1950년대

나) 위치 : 평택시 통복동 100-1번지 주변일대

다) 상가현황 : 야채, 청과물 등 농산물, 잡화, 포목류, 식당 등 600여 개의 상설 점포에 전형적인 전통장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임

라) 상가여건

- 철도 부설로 폐쇄된 소시장이 옮긴 구 평택장(현재의 원평동 소재, 3. 8일에 개시)에서 6 · 25 전쟁 직후 경기남부 교통의 중심지인 현위치로 이전하여 미곡시장과 우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음
- 시가지에 전문유통업소(백화점, 슈퍼마켓, 할인점 등)가 있으나 상주인구의 증가로 활기를 띠고 있음
- 시장 내 600여 점포 중 도로변에 위치한 일부 상가는 현대식으로 모양을 갖추었으나 대부분 오래된 목조건물과 스레트, 기와 지붕의 재래민속시장임
- 정기 5일장날 외 평일에도 다양한 지역 농 · 수산물 · 특산물 등 산지물품이 많이 반입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음

마) 운영방법 : 상설시장의 기능에 5일장(5일, 10일)으로 운영

바) 특색있는 상품 : 계절별로 다양한 농, 수산물, 평택 배, 평택 쌀, 순대국밥, 의류 등

▮ 통북시장 남측 입구

(2) 서정리시장

가) 개설년대 : 1950년대

나) 위치 : 평택시 서정동 322번지 서정리역 앞

다) 상가현황

야채, 청과물 등 농산물, 의류, 잡화, 식당 등 100여 개의 상설점포와 노점으로 이루어지는 고향의 맛을 풍기는 장터임

라) 상가여건

- 1960년대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에 의한 증가로 확장되었음
- 1970년대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1호선 국도 변은 현대식 상가이지만 이면에는 시멘트벽돌 장옥이 있는 전통적인 민속시장임
- 인근에 농협의 하나로마트와 슈퍼마켓 등 전문적인 유통업소 입점으로 재래시장과 현대식 유통업이 공존하며 다양한 물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음.
- 정기 5일장 개장일에는 다양한 농, 수산물 등 특산 물품이 많이 반입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되고 있음

마) 운영방법 : 상설시장의 기능에 5일장(2일, 7일)으로 운영

바) 특색있는 상품 : 다양한 산지 농산물과 청과류, 잡곡, 장터순대국밥, 손칼국수 등

(3) 안중시장

가) 개설년도 : 1960년대

나) 위치 : 평택시 안중면 안중리(안중버스터미날 주변)

다) 상가현황 : 야채, 청과물 등 농산물, 의류, 잡화, 식당 등을 비롯한 점포 180여 개의 전형적인 시골장터로 고향의 맛을 물씬 풍기는 곳임

안중시장

라) 상가여건

- 직산현이었던 현덕면 황산리에서 이전하여 개설되었다고 전하여지는 장터로 서부 5개면의 상업, 교통의 중심지로서 인근에 새로운 전문유통업소인 슈퍼마켓, 의류, 생필품상가 등이 발전하였으나 활발한 지역개발로 민속시장의 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음

- 현대식과 재래식 상가가 혼재하여 발전하고 있음
- 정기 개장일에는 아직도 서부 5개면의 주민은 물론 외지인들도 많이 찾고 있는 시장임

마) 운영방법 : 상설시장의 기능에 5일장(1일, 6일)으로 운영

바) 특색있는 상품 : 산지 야채, 과일, 장터국밥, 영양탕 등

(4) 안정 5일장

가) 개설년도 : 1996년

나) 위치 :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농협중앙회 안정지점 주변)

다) 상가현황

- 야채, 청과물 등 농산물, 의류, 잡화, 식당 등을 비롯한 70여 개의 점포가 자리잡고, 노점과 상가가 형성되어 장날은 고향의 맛을 풍기는 곳임

라) 상가여건

- K-6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상업지역으로 생필품을 외지에서 구입하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 8일에 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음
- 시장내 70여 개 점포 중 주도로 변에 위치한 일부상가는 현대식 상가이나 대부분의 상가는 재래 상가로 형성되어 있음
- 정기 5일장 개장일에는 농 · 수산물, 특산물 등의 산지물품이 반입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음

마) 운영방법 : 정기5일장(3, 8일)으로 운영

바) 특색있는 상품 : 다양한 산지 농 · 수산물과 야채, 잡화, 의류 등

(5) 송북시장

가) 개설년도 : 1995년

나) 위치 : 평택시 송북동 송탄시외버스 터미널 부근(기존 : 송천시장)

다) 상가현황

야채, 청과물 등 농산물, 의류, 잡화, 식당 등을 비롯한 280여 점포와 노점상으로 형성

라) 상가여건

- K-55 미군기지 창설 이후 유입된 인구증가로 매일 새벽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아침시장」(1970년대 중반기까지 호칭이었고, 마을 명칭을 따라 송천시장이라고 불렀다.)을 1995년에 3개 시 · 군 통합과 민선자치제 실시후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4일과 9일

에 개시되는 정기시장이 되어 주민들의 이용도가 매우 높은 시장으로 발전되었다.

- 현대식 상가와 재래식 장옥이 혼재한 장터로
- 정기 개장일에는 다양한 지역농산물, 특산물 등 산지물품이 저렴한 가격으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음.

마) 운영방법 : 상설시장의 기능에 5일장(4일, 9일)으로 운영

바) 특색있는 상품 : 다양한 산지 농산물과 청과물, 잡곡, 장터순대국밥, 손칼국수 등

(6) 송탄중앙시장

가) 개설년도 : 1960년대

나) 위치 : 신장 2동 (K-55 기지 정문 앞 주변)

다) 상가 현황 : 농산물과 의류 · 잡화 · 식당 ·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등 400개 점포가 자리 잡고 있는 전통적인 재래시장과 국제화가 병존하는 장터임

라) 상가여건

K-55 기지에 미군 주둔으로 유입된 인구의 증가로 당시에 「아침시장」으로 불려지던 송북시장에서 직거래되던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한 상인들이 수요에 따라 저녁에 판매하게 되여 자연적으로 형성된 「저녁시장」이라고 하였으며, 고객은 내국인만이 아닌 주한 외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의 선호도가 높으며 노점상들과 어우러지는 상설시장화된 장터임.

마) 시장의 특색 : 야채로부터 첨단 산업의 산물까지 상품이 다양하며 특히 외국인의 기호에 맞는 상품이 많음

2) 상가

1961년도 평택군의 소매업은 점포수 1,034개소에 종사자는 1,865명, 점포 당 평균 종사자는 1.8인이었으며, 1999년도 말 현재 점포 수 5,523개소, 종사자 수 10,409명으로, 이를 1961년도와 대비 할 때 점포 수는 4,489개소 (4.3배). 종사원 수는 8,544명 (4.6배) 각각 증가하였고, 1개 점포당 평균 종사자 수는 1.85인으로 비슷한 수준이며, 이는 소매업의 영세성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하겠다.

급속한 도시화와 핵가족화로 맞벌이 부부의 급증과 지방자치제 정착에 따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지역상권의 신장 등 급진전하는 사회변화에 의하여 자연스럽

[도 · 소매업 지역별 사업체 수 및 종사원 수]

(단위 : 개소 / 명)

구분	계	자동차 판매 차량 연료 소매	도매 및 상품중개	소매업	비고
계	6,518/14,023	304/1,467	691/2,147	5,523/10,409	
팽성읍	339/649	11/36	32/161	296/452	
신평동	853/2,066	23/148	64/211	766/1,707	
원평동	167/373	11/38	41/101	115/234	
통복동	716/1,114	5/9	78/143	633/962	
비전1동	206/768	21/116	52/191	133/461	
비전2동	655/1,678	29/207	32/86	594/1,385	
세교동	266/769	47/236	75/258	144/275	
(남부지역소계)	3,202/7,417	147/790	374/1,151	2,681/5,476	
중앙동	401/754	26/102	82/158	293/494	
서정동	474/1,021	22/86	43/174	409/761	
송탄동	46/193	6/25	18/136	22/32	
지산동	215/396	9/32	13/22	193/342	
송북동	378/769	6/25	32/113	340/631	
신장 1동	134/232	5/7	6/18	123/207	
신장 2동	378/769	6/25	32/113	340/631	
(북부지역소계)	2,549/4,973	95/374	248/797	2,206/3,802	
오성면	57/131	4/19	8/37	45/75	
청북면	61/115	4/17	9/25	48/73	
포승면	142/364	19/124	12/28	111/212	
현덕면	68/165	8/32	5/26	55/107	
안중면	439/858	27/111	35/83	377/664	
(서부지역소계)	767/1,633	62/303	69/199	636/1/131	

※ 보기 : 기업체 수 / 종사자 수

※ 자료 : 평택시. 1999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게 아파트가 가장 선호하는 주거형태로 각광을 받게 되고, 또 5일마다 개설되는 정기시장보다는 소비자들이 필요한 물건을 언제나 공급받을 수 있고, 고정된 점포 운영으로 사후관리(After Service)가 가능하므로 가격 측면에서는 정기시장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뒤지지만, 신용 거래와 배달 등 질적인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으므로 상설상가를 선호하게 된 것은 필연적인 결과로 2000년 말 현재 일반시장 8개소, 대규모 점포(백화점) 1개소, 대형점(킴스 크럽. 씨마 2020), 농업협동조합 연

쇄점(하나로마트), 대형슈퍼마켓, 아파트 단지 내 상가, 편의점, 각종 체인점 등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평택시는 (주한) 미군 주둔지라는 지역적인 특수 여건에 걸맞게 송탄관광특구로 지정된 신장 1, 2동에 「쇼핑 몰」을 조성하여 지역내 거주 내. 외국인은 물론 처음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에게 관광과 쇼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외화 획득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생조직인 내국수출양복상조합(內國輸出洋服商組合)과 「송탄상공인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 평택 명동거리 야경

1960년대부터 평택역 앞 국도변을 따라 통복시장 입구— 평택경찰서 앞 식당가(일명 : 먹자골목)—평택시외버스 터미널에 이르는 평택극장 중심으로 형성된 상가는 위치상으로도 평택 시가지 중앙이며, 평택역과 시외버스 터미널 및 고속버스

[소매업 점포수 및 종사인원 비교]

(단위 : 개소. 명)

구 분		소매업점포수		종사자수		비 고
		1961	1999	1961	1999	
계		1,034	5,523	1,865	10,409	
남부	소계	401	2,681	671	5,476	
	평택읍	360	2,385	630	5,024	
	팽성면	41	296	41	452	
북부	소계	556	2,206	1,061	3,802	
	송탄면	504	2,020	1,008	3,506	
	진위면	11	87	11	162	
	서탄면	12	22	12	29	
	고덕면	29	77	30	105	
서부	소계	77	636	132	1,131	
	오성면	53	45	108	75	
	청북면	12	48	12	73	
	포승면	9	111	9	212	
	현덕면	3	55	3	107	
	안중면	-	377	-	664	

※ 자료 : 송탄시사 (1994. 송탄시시사편찬위원회)
1999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평택시)

▮ 의류상가(평택동)

터미널이 위치한 교통의 중심지이므로 지역을 찾는 외지인들이 제일 먼저 접대하게 되는 관문으로, 지역의 유행을 선도한다 하여 「평택의 명동거리」로 불리고 있으며 시에서는 1997년부터 시대 감각에 걸맞는 도로 포장과 조명시설 개량 등 「조형미와 문화와 쇼핑」이 함께 어우러지는「명동거리 상가로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유행의 최첨단을 걷는 젊은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IMF 관리 체제에 걸맞게 시민 절약 정신 함양을 위한 「아나바다」(아껴 쓰고, 나누어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운동의 일환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가구나, 폐가전제품 등을 무료로 수거하여 수리 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알뜰매장」을 7개소에 개설하여 운영하여 근검, 절약 운동을 실천하고, 그 이득금을 불우한 이웃 돕기 기금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유통산업은 생산자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주는 기능만을 수행하였으나, 공급과 수요의 중간 매개 역할로 생산자와 소비자 양쪽의 경비를 절감시키고, 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여 새로운 수요-공급의 유발, 판로 개척을 통한 고용의 창출과 제조업체간의 경쟁 촉발로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다양한 소비와 쇼핑 문화를 선도하는 기능으로 그 영역이 넓혀지고 있으며, 「홈 쇼핑」과 전자 상거래(e-business)가 활발하여 지고 있으므로 점차 시장이나 상가에서 직접 상품을 보면서 취사선택하는 방법이 아닌 신용거래로 변하여 가는 추세라 하겠다.

금융

제7절

1. 금융제도의 변천과 평택

1) 조선후기의 금융업자 - 여객주인

요즘은 도매상, 소매상, 백화점, 슈퍼마켓, 농협창고, 냉동창고, 통신판매, 은행, 보험회사, 오퍼상 등 상인의 종류가 다양하다. 또 과거에는 상인이 담당했던 은행 등 금융기관의 역할이 지금은 전문화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자본규모가 큰 도매상인이 창고업과 금융업, 창고업, 위탁판매업, 무역업, 숙박업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물품과 화폐, 신용의 흐름을 장악하였다. 그러한 상인 중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여객주인이었다.

여객주인은 서울의 한강 연안뿐 아니라 지방의 주요한 포구에서도 활동했다. 물론 대표적인 존재는 한강 연안에 거처하면서 선상(船商) 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었다.

원래 한강 연안의 여객주인이란 시골에서 배를 타고 상품을 팔러오는 상인들의 물건을 대신 팔아주고 그 댓가로 구문을 받거나, 시골 상인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여객주인과 이들 향상 사이에는 일정한 주인관계는 없는, 다시 말해 향상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가 거처하고 물건을 맡길 여객주인을 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여객주인은 향상에게 구문을 받아 생활하는 정도였고, 향상에 비해 경제적으로 부유한 처지는 아니었다.

하지만 시골에서 올라온 상인들이 물건을 한꺼번에 판매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객주인은 별도의 물품 보관 창고를 가지고 있어야 했다. 여객 주인은 창고를 만들어 향상들이 싣고 온 물건을 임시로 보관해 주었고, 또 시전 상인과의 거래를 주선

해 주었다. 그리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구문을 받았는데, 그 액수는 일정치 않지만 총거래액의 1%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조선 후기에는 경강 연변에 개인 창고가 더 많이 생겨났다. 상품화폐경제가 발전하면서 막대한 물량의 상품들이 서울로 집하되었다. 물화의 가치는 장소적 제약을 받기도 하지만 시간적 제약도 받는다. 물화를 일정 기간 보관하여 수요가 부족하게 되면 값이 오른다. 물화의 가치를 시간적으로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창고이다. 조선후기에 상인들이 갖고 있던 창고는 단순한 보관의 기능이 아니라 값의 등귀를 조장하는 일종의 독점행위의 수단이기도 했다.

여객주인들은 지방에서 올라온 상품을 그것이 팔릴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관해주기도 했지만, 이때에는 특별히 보관료를 받지는 않았다. 상품의 소유주는 객주, 여각에서 상품이 처분될 때까지 머물게되면서 숙식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지불하였고, 물품의 보관은 여객주인이 덤으로 해주었다. 그러나 객주, 여각에 드는 손님이 대개 상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 거의 필수적으로 창고가 딸려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창고를 가지고 물건의 출하 시기를 결정하여 수요와 공급의 차이를 이용, 부를 축적하는 기반으로 삼았던 것이다.

아울러 여객주인은 단순히 향상의 상품을 중간에서 주선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향상들에게 물품판매를 담보로 급전을 융통해주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각종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여 자본 회전 속도의 차이를 메워주는 역할도 하였다. 즉 상인들로부터 물건을 맡게 되면 임치표(任置票)를 끊어주었다. 물건이나 돈을 맡긴 사람에게 주는 일종의 보관증이었다. 상인들은 이러한 임치표를 담보로 사용하여 급전을 융통하기도 했다.

그리고 여객주인의 영업규모가 커지게 되면 은행업무를 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출차표(出次票)다. 이것은 돈을 지불할 때나 맡긴 물건을 찾을 때 작성하는 증서였다. 일시적인 금고 역할을 겸했던 것이다. 아울러 여기에는 일종의 예금 서비스도 겸하고 있었다. 즉 매각한 금액을 물주가 바로 가져가지 않고 맡길 경우에 객주는 그 기간동안 예금한 데 대한 이자를 원금에 가산해서 주었다.

또한 객주는 위탁 판매를 행하면서 부수적으로 대부업도 겸하였다. 객주는 물품판매를 위탁받았을 때 물품에 대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는 가도금(假渡金), 위탁판매를 조건으로 매상(賣上)하는 전도금(前渡金), 또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하는 대부금(貸付金) 등의 방식으로 대출 업무도 겸하고 있었다.

아울러 객주는 환이나 어음과 같은 신용화폐도 발행했다. 환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돈을 보낼 때나 자신이 현금을 직접 가지고 갈 때의 불편함이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사용했던 신용 거래 수단이다. 어음은 차후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

다고 보증하는 근대의 약속어음 비슷한 것이었다.

물론 여객주인들이 환을 발행하려면 그에 따른 수수료로 구문을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그러한 구문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환을 발행하는 것이 이익이었기 때문에 환의 사용은 갈수록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환은 나름의 신용관계를 기초로 성립하고 있었다. 환은 계약관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환을 물리는 퇴환(退換)도 할 수 있었다. 또한 환은 반드시 한번에 전액을 지불하는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몇 차례로 나누어 받을 수도 있었다. 따라서 환을 잡은 사람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환전을 찾아 이용할 수 있었다.

어음에는 지불기일이 밝혀져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 지불기일은 대개 한 장(場)(5일) 또는 두 장(10일) 동안이었으며 한 달을 넘는 경우는 드물었다.

어음에는 채권자의 이름이 밝혀져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어음을 딴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발행인의 승낙을 얻을 필요는 없었으나 양도받은 사람들은 일단 발행인에게 제시하여 지불기일과 금액을 밝히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었다. 이를 답음(踏音)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어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으나 지불기간이 한달 이내였으므로 대체로 2~3회의 양도로 그치고 말았다. 양도되는 과정에서 어음을 발행한 자가 양도하는 것을 부인하면 거래관계는 취소되기 마련이었다.

그리고 환과 어음은 단순한 차용증서가 아니라 신용화폐로서도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다만 어음의 액면가는 환 액면가보다는 일반적으로 영세하였다. 그것은 환이 대체로 큰 규모의 상인들 사이에서 유통되는 신용환표였다면, 어음은 주로 중소상인들과 소생산자들 사이에서 널리 유통되었기 때문이었다.

2) 평택지역 여객주인의 금융업

이처럼 조선후기 서울과 지방을 무대로 활동했던 여객주인은 단순한 상품거래의 중개상 역할뿐 아니라, 금융업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울에 있던 여객주인 중에서 평택과 진위, 그리고 직산 지역의 상인을 상대로 그러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다.

여객주인은 처음에는 개별적인 상인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였는데, 점차 역할과 권한이 커지면서 일정한 지역을 전부 관할하는 영업권을 획득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상인 중에 평택과 진위, 직산 지역을 관할하는 여객주인이 존재하였다. 즉 기득규(奇得奎)라는 사람은 충청도 직산, 경기도 진위, 평택의 경강여객주인이었는데,

도적을 만나 그 문서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영업권을 보장받기 위해 진위, 평택, 직산의 관아에 소지(所志)를 올려 영업권을 보장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로 보면 평택 지역의 상인들이 서울 지역과 거래를 할 때 경강의 특정 여객주인과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료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경우 일종의 금융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상품경제가 발전하고 평택 지역 상인들의 서울 출시가 늘어나면서 그 여객주인권의 가격도 급등하였다.

다음의 표를 보면 평택 등 지역의 여객주인권 가격이 1860년에서 1884년 사이에 거의 9배 가까이 급등하고 있다. 이 이유는 그것이 갖는 경제적 가치가 올랐기 때문이고, 그만큼 평택 지역과 서울 사이의 상품 거래가 활발해졌음을 의미한다.

[경강주인권의 가격변동 상황(18세기 후반~1900년 전후)]

지역 \ 시기	1778년	1815년	1860	1884
牙山 · 平澤 · 白石 · 稷山 · 溫陽 · 振威	200냥	400냥	1,300냥	11,000냥

평택 현지의 여객주인 활동도 활발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평택의 입지조건상 평택 현지보다는 평택을 포함한 지역의 유통 중심지였던 둔포와 수원에 거주했던 여객주인의 영향권 하에 있었다. 둔포장은 개장 이후 요로원장을 흡수할 정도로 큰 장시이자 포구였다. 요로원장은 19세기 10대로의 하나인 서울에서 충청 수영에 이르는 도로의 요충에 있었던 장시였다. 그러나 그러한 장시를 흡수할 정도로 둔포장의 입지조건은 탁월했던 것이다. 둔포를 중심으로 한 유통구역은 진위, 양성, 직산, 성환, 천안, 온양, 아산 등 사방 60~70리의 제 군읍을 끼고 있다. 특히 아산, 평택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과 콩은 대부분 둔포에 집하되었다. 수원 역시 경기도 남부 지역의 유통 중심지였고, 남양만 인근의 풍부한 해산물과 경기도 내륙 지역의 농산물을 교환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

그리고 둔포와 수원을 정점으로 하는 유통구조의 중심에 여객주인이 있었다. 조선후기 당시 수운을 통한 유통구조의 양태는 매우 다양했는데, 대표적인 것은 여객주인을 정점으로 이루어졌다. 여객주인은 화물을 매집 혹은 위탁받아, 이를 상선을 이용해 하천 상류의 내륙지방에 판매하였다. 거래매개는 화폐 혹은 물물교환이었는데, 해안지방의 어염과 내륙지방의 곡물 및 임산물이 주종을 이루었다. 왜냐하면 포구에서의 유통은 장시와 달리 부피가 크고 중량이 무거운 상품이 특히 유리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포구에 집산되는 중심적인 상품은 미곡을 중심으로 하는 곡물

및 소금을 중심으로 하는 수산물이었고, 고가의 소형상품이나 국지내에서 생산, 소비되는 상품은 포구에 잘 등장하지 않았다.

장시가 주변 농민을 위한 소매상업이 이루어지는 국지내적 유통의 중심지라면, 포구는 여객주인의 중개에 의해 선상과 육상, 지주, 부농 간의 도매적 성격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원격지 유통을 위한 결절점으로 파악할 수 있다. 포구에 출입하는 선박은 수십 석, 수백 석을 실을 수 있었는데, 수레가 다닐만한 도로가 흔치 않은 육로교통의 상황에서 대량의 물품 이동과 거래는 당연히 선박과 포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내륙이나 해안지방의 여객주인은 어염을 매입하거나 위탁받아 내륙지방의 여객주인 혹은 상인에게 판매 · 위탁하고 다시 이들은 보부상을 통해 각 지방 장시로 상품을 유통시키는 것이었다.

둔포와 수원에 있던 여객주인 역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비록 개항 이후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둔포의 경우 1895년경 여객주인이 22~23호(이중 10여호는 鹽客主임)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 둔포의 객주는 휘하에 보부상단을 거느리고 각 지역의 장시를 장악하였다. 둔포를 거점으로 하는 보부상단은 그 유통권에 포섭된 아산과 평택을 관할하였다. 당시 둔포 보부상의 규모는 평택, 아산 양군에 5백명이었다고 하며, 이를 남북의 2조로 나누어 둔포에 사는 황주연(黃胄淵)이라는 사람이 총관할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중 평택에 사는 보부상의 수만도 200명에 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1909~1910년에 걸쳐 작성된 『민적통계표』에 의하면 경부철도의 개통으로 둔포는 큰 타격을 입었다. 경부철도의 개통이래 둔포를 중심으로 하는 유통권이 천안에 흡수되고 말았다.

수원에서도 여객주인의 활동이 활발했었다. 19세기말 서울 남쪽의 경기도에서는 안성장(安城場), 장호원장(長湖院場)과 함께 수원장(水原場)이 가장 번성하였다. 수원장은 주변 지역에 수용품(需用品)을 공급하는 위치에 있었다. 즉 수원은 주변 일대 지역적 유통권의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수원에는 여러 장시를 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점포를 가지고 머무르면서 상업을 하는 여객주인들이 있었다. 19세기 말엽에 4호가 객주업을 영위했던 것으로 나와 있다. 이들은 물품을 구입할 때에 신용 여하에 따라서 다음 장날에 지불하거나 연말결산을 하기도 했다. 특히 19세기말에 활동했던 화성 남문 밖의 김홍선, 북문 안의 임흥수 등은 대객주로서 상업을 경영, 그 아래 많은 소상인들을 거느리고 그 일대의 유통권을 장악하였었다. 이들은 1900년대 초 수원 지방에 침투해온 일본상인들과도 경쟁을 벌일 만큼 그 저력을 발휘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둔포와 수원에 있던 여객주인의 금융업 양상에 대해 알아보자. 전술한

대로 여러 곳의 장시를 순력하는 보부상은 포구나 수원과 같은 도회지의 객주를 통함으로써, 각 지역의 물산을 유통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보부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을 토대로 상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드물게는 여객주인에게 월 2~3分 정도의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자금을 얻어 행상에 종사하기도 했다. 즉, 여객주인이 행상에게 금융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여객주인은 이러한 금융업을 위한 자금을 상인이 위탁한 것, 양반 등의 물주로부터 빌린 것, 혹은 자신의 자본 등으로 충당하였다.

여객주인은 이러한 자본을 대부할 때 소매상에 대해서는 다음 장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2분의 이자율인 장변(場邊)을, 도매상에 대해서는 보다 저리인 파수변(把守邊)을 놓았다. 그리고 소상인 중에는 이들 여객주인에게 약간의 보증금을 미리 맡겨두는 대신 물건을 먼저 받아 시장에 내다파는 사람들이 있었다. 또 이와는 반대로 미리 여객주인에게 물건을 받아서 시장에 내다팔고 그 대금을 여객주인에게 납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따라서 대체로 여객주인과 이들 소상인 사이의 금전 융통은 장날부터 다음 장날까지를 기한으로 이루어졌다.

나아가 여객주인은 신용업무를 맡기도 했다. 평택지역을 무대로 활동했던 상인은 대개 여객주인의 집에서 상품을 거래하고 받은 어음을 여객주인에게 할인을 받았다. 그리고 그 어음을 기초로 해서 다시 상품을 구입했다. 그리하여 객주는 각 지방에서의 거래처와 연락을 통하여 환업무를 했다. 개인의 의뢰는 물론 지방으로부터의 납세도 이 방법을 이용했다. 지방관이 그 상납금을 여객주인에게 위탁할 때는 여객주인은 그 돈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그것을 서울의 거래처인 여객주인에게 보내어 판매케 하고 그 대금으로 중앙정부에 납입하는 것이다. 여객주인간에 어음 결제를 통한 환업무가 이루어지고 조세상납도 이러한 연계를 활용했던 것이다.

이처럼 근대적인 은행이 출현하기 이전에 평택지역에서는 둔포와 수원을 근거지로 하는 여객주인들이 상업 자금의 대부와 예치, 그리고 신용업무를 맡아보았던 것이다.

참고문헌

홍희유, 『조선상업사(고대 · 중세)』, 1989

정승모, 『시장의 사회사』, 웅진, 1992

高東煥, 『朝鮮後期 서울商業發達史硏究』, 1998

吉野誠, 「領事館報告를 통해본 朝鮮의 內地市場-1900년의 忠淸南道」 『近代朝鮮의 經

濟構造』, 比峰出版社, 1989
이헌창, 「開港期 忠淸南道의 流通構造」『近代朝鮮 工業化의 硏究』, 1993
柳承烈, 「韓末 · 日帝初期 商業變動과 客主」,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崔永俊, 金鍾赫, 『京畿地域의 交通路와 交通의 發達』『京畿地域의 鄕土文化』, 1997

2. 현대의 금융제도와 평택

광복 이후 1956년 5월 주식회사 농업은행이 발족되면서 금융조합 업무가 농업은행으로 이양되었으며, 1957년에 발족된 농업협동조합이 1961년 농업은행과 통합되면서 농촌지역 금융의 구심점이 되었고, 일반은행 중 우리 고장에 제일 먼저 자리잡은 상업은행 평택지점과 더불어 지역의 금융을 주도하여, 1981년도 7개 은행 점포의 금융 거래 총액 중 예금 32%, 대출 54%를 차지하여 독보적이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 평택군농업협동조합(1967년 당시)

'70년대부터 사회의 다변화와 더불어 상업, 공업, 서비스 산업 등 경제성 산업 구조의 다양화는 금융유통구조의 변화로 은행 6개소에 지역단위농협 5개소에 신용금고 5개소, 새마을금고 등이 설치되었고, 각종 계모임과 신탁금융, 증권, 보험회사

[표 1 1981년도 금융기관별 예 · 대출금 현황]

(단위 : 천원)

기관별 \ 구분	예 금 (A)	대출금 (B)	A:B대비 (%)
계	34,798,982	21,354.093	61.4
상업은행 평택지점	4,897,604	19,87,404	40.9
경 기 은 행	2,759,055	1,150,939	41.7
한 일 은 행	4,640,733	1,305,778	28.1
중 소 기 업 은 행	1,800,000	1,823,977	101.3
국민은행 송탄지점	4,101,349	2,795,141	68.2
상업은행 송탄지점	5,512,841	734,403	13.3
평택군 농협지부	11,127,400	11,456,450	103

※자료 : 평택군지 (1984. 평택군지편찬위원회)

[표 2 연도별 금융기관 현황]

(단위 : 개소)

연도 \ 기관	'94	'95	'96	'97	'98	'99	비고
계	26	35	41	43	33	30	
조 흥	4	4	5	5	4	4	
한 빛	3	3	4	5	3	4	
제 일	1	3	3	3	1	1	
한 일	2	2	4	4	3	-	
서 울	1	1	1	1	-	-	
국 민	-	2	2	2	2	2	
외 환	1	2	3	3	3	2	
주 택	2	2	3	3	3	2	
신 한	-	-	-	1	1	2	
한 미	3	3	4	4	2	2	
하 나	-	-	-	-	-	1	
중소기업	3	3	3	3	3	3	
한국산업	1	1	1	1	1	-	
농협중앙회	7	9	8	8	7	7	

※자료 : 평택시 통계연보, 2000

[표 3 연도별 일반은행 예 · 대금 비율]

(단위 : 백만원)

연도 \ 구분	예금(A)	대출(B)	A:B
1995	4,002,0	4,413,0	110,3
1996	7,806,6	7,033.8	90.1
1997	10,383.5	10,154.7	97.8
1998	10,677.5	9,728.0	91.1
1999	12,951.0	12,617.7	97.4

※자료 : 평택시 통계연보, 2000

등이 경쟁적으로 일반 생활에 좀더 가까이 다가왔다.

1992년에 24개소이던 은행 점포는 3개 시 · 군이 통합하던 1995년에 35개소, '97년 43개소를 정점으로 IMF사태로 금융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부실 은행 정리계획에 의하여 일부 은행의 폐치 · 통합 및 점포망 정비로 '99년 말 현재 30개소로 감소되었고, 농협은 중앙회 평택시 지부와 5개 지점, 지역조합 4개소에 14개 지점과 2개 지소, 특수조합(평택과수조합) 1개소에 1개 지소, 그리고 1969년에 설립된

[표 4 새마을금고 현황]

(단위: 개소, 명, 백만원)

구 분 \ 연 도	금고수	회원수	자산액	예금액 A	대출액 B	A:B 대비
'94	12	36,180	65,591	56,358	51902	92.1
'95	10	39,160	77,207	56,260	59,118	105.1
'96	10	43,079	93,430	66,238	65,900	96.6
'97	10	45,895	98,678	69,933	73,658	105.3
'98	9	42,708	105,041	85221	68,768	80.7
'99	6	44,727	111,152	90,914	62,926	69.2
중앙		18,377	53,158	43,766	28,716	65.6
안중		7,736	14,841	12,851	10,168	79.1
지산		12,460	31,834	28,657	18,713	65.3
LG전자		2,813	7,369	4,801	2,078	43.3
만도기계		655	1,516	180	1,045	580.6
쌍용(주)		2,686	2,434	659	2,206	334.7

축협 본점과 7개 지점 등이며, '99년도 농 · 축협의 예금은 1조 1541억 7,700만원, 대출금은 8,511억 1천 6백만원이다. 새마을 금고는 '93년도 13개소에서 '96년도 10개소, '99년 6개소이며, 회원 44,725 명에 예금 909억 1천 4백만원, 대출금 629억 2천 6백만원으로 매년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신용협동조합 10개소와 금융결재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증권사, 보험회사 점포가 있다.

IMF체제로 안정성과 신용의 상징이던 은행도 도산되어 고액예수금의 지급유보 및 예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지급금액 조정을 통한 장기분할 지급으로 IMF관리

▮ 농협 평택시 지부 객장의 여행원들

▮ 조흥은행 평택지점 객장

[표 5 예금성질별 분석]

(단위 : %)

구분 / 연도	저축성예금					요구불
	구분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기타	
1995	74.4	20.3	11.2	17.1	25.8	25.6
1996	78.0	13.8	11.4	15.3	37.5	22.0
1997	81.0	13.3	13.4	29.6	24.7	19.0
1998	91	22.8	3.9	12.8	51.4	9.0
1999	84.3	35.5	6.4	30.4	12	15.7

[표 6 어음 교환 현황]

(단위 : %)

구분 / 연도	장 수 (천 매)	금 액 (십억)	장당평균 (천원)	부도액 (십억원)	부도율 (%)
계	45,139.6	39,177.9	867.9	480.4	1.2
1995	9,318.0	8,169.0	8,770		
1996	11,399.3	9,976.7	869.5	56.0	0.6
1997	12,980.8	11,613.4	892.7	110.6	1.0
1998	10,512.0	9,089.9	864.7	134.2	1.5
1999	10,247.5	8,499.9	829,5	179.4	0.2

※ 자료 : 평택시 통계연보, 2000

체제하의 국가금융 위기의 심각성을 실감하게 하였고 구조조정을 통한 「거품(군살)빼기」는 기업은 물론 사회 각계로 확산되었고 금융제도의 기능(저축기능, 부의 저장, 지급기능, 신용공여기능, 위험이전기능, 유동성기능, 정책기능)에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예수금의 상품 선택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예금 성질별 분석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95년도 예금 총액 대비 구성비를 보면 저축성 예금은 74.4%에서, '99년도 84.3%로 약 10%P 증가하였고, '97년도 각각 13% 수준이던 정기예금은 35.5%로 22.2%P 증가하였으나 정기적금은 7%P 감소되어, 투자 방향을 찾지 못하는 유동성자금이 안정성과 수익성(높은 금리)을 추구하는 심리의 발로에서 오는 결과라고 해석된다.

어음교환은 1996~1999년까지 4년 동안 45,139,100매에 발행금액 39조 1,799억원으로 1매당 평균 발행 금액은 868천원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의 금액이며, 부도액은 4년간 합계 4,800억원으로 부도율은 기간 중 평균 1.2%이며, '96년도 0.6%에서 매년 상승되어 '99년도 2.1%로 3.5배 증가되어 경제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에서 동원된 예금액에 대한 환류 정도를 측정하는 예 · 대금비율(預 · 貸金比率)구성비를 보면 금융기관(농 · 축협 포함 30개소)과 새마을금고(6개소) 예금액 14조 1,961억원/ 대출금 13조 5,317억원, 대비 95.3%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주요 기능 중의 하나인 융통기능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 백

2장 교통 · 통신 · 관광

여 백

교통

제 1 절

1. 교통 · 통신의 변천과 평택

조선시대의 교통체계는 사회 · 경제적인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치 · 군사적인 의미가 더욱 컸었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교통체계는 육상교통과 해상 · 하상 교통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역제는 육상교통체계의 중심이었고 조운은 해상 · 하상교통체계의 중심이었다.

역제는 공문서의 전달, 관물의 수송, 외국사신의 왕래와 공무여행자들에 대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그리고 조운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조세의 운반과 관할을 위해 이루어진 제도였다. 즉, 조운은 역제와는 달리 해로나 하천을 이용하여 물자를 운송하는데 목적이 있었고, 따라서 특정 목적을 위한 특수한 교통로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였다. 이밖에도 역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나 공무여행자를 위한 원제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제도적인 것과 함께 교통문제는 경제현상과 결부지어 살펴야 한다. 도로와 수로를 이용한 교통현상은 사람과 물자의 운송이라는 형태로 가시화되며, 경제활동의 입장에서 이는 정보교환과 재화의 유통과정으로 규정할 수 있다. 경제활동은 생산, 유통, 소비과정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유통과 소비는 각각 교통로와 시장을 전제한다. 한편 각 시장은 교통로로 매개되기 때문에 시장은 교통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도로의 발달과정을 살필 때에는 중심지와 그 배후지간의 상관관계, 교통수단, 역사성, 주요 경제활동, 주민성과 생활양식, 전략적 중요성 등의 인문지리적 조건과 지형, 지질, 기후, 식생 등의 자연지리적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하에서는 조선시대 평택의 도로망과 역원제, 수운의 발전, 그리고 통

신제도에 대해서만 간략히 살피고, 상품경제의 발전과 교통로의 관계에 대해서는 평택의 상품경제를 다루는 장에서 살피기로 하겠다.

1) 평택의 육운 교통

조선은 처음으로 전국에 지방관리를 파견하는 등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표방하였다. 때문에 지방 관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했는데, 이는 교통 및 통신 수단을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 국가의 체계적인 통치를 위해선 지방에 대한 통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러한 사실은 일본 통감부 시대에 치도사업을 가장 시급히 시행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조선 정부 역시 도로에 많은 신경을 썼다. 조선시대에 전국을 연결하는 육상교통망은 서울을 중심으로 각지로 연결되는 대로와 중로로 구성된 간선로와 이곳에서 나뉘어진 지선이 있었으며, 각 고을로 연결되는 소로가 있었다. 조선시대에 불리워진 대로, 중로, 소로 등 도로의 분류는 도로의 폭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영조척(營造尺)이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의 도로 폭은 도성 내와 외방 도로의 경우가 달랐으며, 대체로 같은 대로라 해도 도성내의 도로 폭이 훨씬 넓었다. 도성 내에서는 대로가 56척, 중로가 16척, 소로가 11척의 폭을 지녔으며, 도로 양편에 모두 2척 정도의 도랑이 있었다. 반면 외방 도로는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대로나 중로에서는 길 양편에 도랑이 있었으며 대로는 약 20척, 중로는 약 15척, 소로는 약 10척 정도였다. 그 밖에 마을 사이에 통하는 도로들은 아주 협소한 보도였다.

그리고 전국으로 연결되는 노정은 주척(周尺)을 사용하였는데 1척 6촌을 1보로 하여 360보를 1리로 하였다. 외방 도로의 기점은 돈화문이었고, 10리마다 작은 돈대, 30리마다 큰 돈대를 세우고 역을 설치하였다. 후에는 이수(理數)와 지명을 새겨 여행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5리마다 정자를 세우거나 30리마다 버드나무 등을 심기도 했었다.

이렇게 정비된 조선의 도로는 크게 6개의 간선도로를 기본적인 축으로 하고 있었다. 이 6대로는 모두 서울을 기점으로 하고 있었으며, 서울-의주간 제1로부터 시계방향으로 도로에 번호가 부여되었다. 제1로는 서울-의주로, 제2로는 서울~경흥 서수라로, 제3로는 서울~평해로, 제4로는 서울~동래로, 제5로는 서울~제주로, 제6로는 서울~강화로였다.

이러한 6대로 중 평택을 지나는 도로는 제5로로서 서울-제주로였다. 이 길은 서울에서 해남을 거쳐 제주로 가거나, 전주에서 진주를 거쳐 통영에 이르는 도로로

서, 과천, 수원, 오산, 진위, 평택 등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평택은 영남과 호남에 이르는 주요 간선도로의 길목에 위치했던 것이다.

이러한 6대로가 19세기 후반이 되면 10대로로 늘어나게 된다. 물론 이 도로들은 기존의 6대로에서 분기한 것으로 최초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고 있었다. 『정리고 程里考』에서는 간선도로를 10대로로 기록하고 있는데, 서울~수원로, 서울~충청수영(보령)로, 서울~해남로 등이 추가되고 있다.

그리고 이 중 충청수영로가 평택을 지나고 있었다. 충청수영로는 원래 제5로에서 갈라진 도로였다. 즉 수원에서 진위, 소사를 거쳐 성환으로 가기 전에 팽성 쪽으로 빠져 신창, 광천을 거쳐 충청 수영에 이르는 길이었다. 이 길은 충청도 서해안 지역의 산물이 서울로 운반되는 중요한 길로써 상품 경제의 발전과 함께 주요 간선도로로 승격하였고, 그 중요 기점에 평택이 위치했다.

진위현지도에 표시된 삼남대로(상단 좌측에서 하단 우측으로 표기된 도로)

즉 평택은 충청과 경상, 전라도 지역에서 서울에 이르는 대로 위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대로상에서 경기권에 접하는 관문이기도 했다. 아울러 당시 생활문물 교류가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진위면 지역은 서울까지 하루에 왕복은 가능하지만 중간에 세 번 휴식을 해야 하는 거리였고, 평택은 1일 반의 노정이 필요한 거리였다.

삼남대로(진위면 견산리 부근—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같은 주요 간선도로 외에 충청도에서 평택을 거쳐 서울로 이르는 지름길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다. 그곳은 당진군 송악면 한진나루에서 아산만 해협을 건너 평택시 포승면 만호나루로 가는 길이다. 이 길은 충청도 내포지방에서 수원을 거쳐 서울에 이르는 지름길이었다. 그래서 당진과 예산 지역의 물산은 이 길을 통해야만 했으며, 특히 소의 거래가 매우 활발했다. 경기도 주민들의 '충청도 사람들은 소를 키울 줄만 알고 부릴 줄은 모른다'는 말도 바로 이 길을 통한 소의 거래에서 유래된 것이었다.

2) 평택의 역제(驛制)

조선 왕조는 도로 정비와 함께 교통 제도, 즉 역제도 정비하였다. 조선 초기에 이

루어졌던 교통제도는 세종대와 세조대에 일부 변화하였으며, 성종대에 이르러 대략의 틀이 완비되었다. 그 결과 8도 행정구역 내에 41개의 역도(驛道)와 543개의 역이 분포하였다.

조선시대의 역제는 찰방제를 확립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405년(태종 6)에 조선은 고려의 공역서(供驛署)를 개편하여 실제 관장부서인 승여사(乘輿司)를 두고, 이를 병조에서 총괄하게 함으로써 찰방제를 확립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전국적으로 5찰방과 39역승으로 480여 역을 운영했고, 1535년(중종 30년)에 역승을 모두 찰방으로 승격시켰다. 그리하여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경기도 5, 충청도 9, 경상도 10, 전라도 7, 황해도 2, 강원도 3, 함경도 3개의 역도가 기록되어 있다.

현재의 평택시는 조선시대의 경기도 수원과 양성의 일부, 진위현, 그리고 충청도에 속했던 평택현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평택시에 설치되었던 역도 위에서 살펴본 역도 중에서 경기도의 양재도(良才道)에 속한 역과 충청도의 금정도(金井道)에 속한 역, 2곳이 있었다. 즉, 삼남대로가 지나는 양재도의 관할 하에 있는 청호역(菁好驛)과 충청수영로가 지나는 금정도의 관할인 화천역(花川驛)이 그것이다. 양재도에 속한 청호역은 전라도를 거쳐 제주에 이르거나, 진주를 거쳐 통영에 이르는 길에 위치한 역이었다. 그리고 화천역은 충청수영에 이르는 길에 위치한 역이었다. 특히 양재도는 『만기요람』(1808) 단계에서 영화도(迎華道)로 명칭이 바뀌고 찰방역도 양재에서 수원 북문 밖의 영화역으로 이전되었는데, 이는 정조대에 이루어진 수원 개발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역제는 조선후기까지 지속되다가 1895년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되었다. 1895년(고종 32)에 역참제를 폐지하고 우체사를 설치하여, 전국의 역로와 파발을 일원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때 진위면 지역은 수원과 공주 사이에 매일 공문서를 발송하는 직로에 위치했고, 평택지역은 이틀에 한 번씩 발송하는 5로 중 1로에 편제되었다.

3) 평택의 원과 주막

조선전기, 특히 15세기에는 교통 · 운수 활동이 자연적이기 보다는 정책적이었다. 중앙집권체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통치체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통과 통신 그리고 운수 조직이 정비되어 갔다. 새 왕조의 교통 정책도 이같은 중앙집권화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숙박시설 역시 이러한 방향에서 운영되었다. 원(院)이 바로 그러한 시설이었다.

원은 공무로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숙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로의 요충

지나 인적이 드문 깊은 산 속에 설치되었는데 국가가 직접 관리하였다. 조선왕조는 국초에 숭유정책을 내세워 사찰을 정리함과 더불어 종래 사찰이 운영하던 원까지 모두 국유화하여 역참제의 보조기관으로 삼고 환속한 승려 또는 인근 주민 중에서 덕망있는 사람에게 운영을 책임지웠다.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전국 원의 수효는 대략 1,300여 곳이었다. 대체로 도로 연변에 설치되었던 원은 30리마다 하나씩이었으나, 지형조건에 따라 평탄한 곳은 간격이 길었고 험한 곳은 간격이 짧았다.

평택 지역에도 장호원(長湖院), 이방원(李方院), 백현원(白峴院), 갈원(葛院), 상원(上院) 등 여러 곳의 원이 있었다. 특히 갈원은 현재의 원칠원 부락이며, 예로부터 역원으로서 상업이 발달하고 삼남대로가 마을을 통과하는 곳이어서, 왕의 행차가 있을 때 쉬어갈 정도로 규모가 컸던 곳이었다.

그러나 원은 이용자가 한정되어 있었고, 재정기반이 취약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집권 체제가 해이해지면서 조선왕조의 경영 의지도 많이 약해졌다. 그래서 16세기 중엽부터 방치되는 원이 속출하였다. 『반계수록』에 의하면, 17세기 당시 원은 주인이 없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거의 파괴되었다고 한다. 이후에도 일부 원이 존속하여 그 명맥을 유지하고는 있었으나 원의 기능은 점차 쇠퇴하였고, 대부분 소멸되어 갔다. 평택 지역 역시 모든 원이 소멸되었다. 『동국여지승람』에 나타난 원들이 조선 후기에 간행된 읍지에는 모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선 후기에는 사사로이 설치된 주막이 그 기능을 대신하였다. 『대동지지』에 의하면, 「각 역로 주변에 국가가 공무 여행자들의 숙식을 위하여 원을 세웠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대부분이 문을 닫고 점사(店舍)가 새로이 생겨났고, 원 이름이 그대로 점 이름이 된 곳이 많다」고 하였다. 평택 지역에도 그러한 주막이 여러 곳에 생겨났다. 특히 청호점이나 갈원점은 역이 있거나 원이 있던 지역에 설치된 점막으로 대동지지의 설명대로 원의 이름이 그대로 점의 이름이 된 경우이다. 그리고 백현원이 있던 지역과 가까운 곳에도 주막이 있어 감주(甘酒)거리로 불렸다.

4) 평택의 수운(水運)

육상교통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수운은 원거리 대량수송을 담당하고 있다. 문헌상 수운의 역사는 삼국시대로 소급할 수 있으나 발전된 모습은 고려시대의 조운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조운제는 이후 조선말까지 시행되었는데, 이는 세곡을 운송하는 것이었으므로 그 기간과 지역, 그리고 수로가 한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면서 수운활동은 세곡 운송뿐 아니라 상품을 매개로 지역간 유통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이를 통해 경제

발전단계의 수준을 가늠케 하는 지표가 되었다.

평택 지역 역시 진위천과 안성천이 흐르고 있으며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수운이 발전하였다. 특히 당시의 수운은 조운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선 평택의 조운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평택은 세곡(稅穀)을 해당 지역에서 배를 임대하여 상납하는 지역이었다. 진위현은 흑진(黑津)에서 세곡을 모아 수원을 거쳐 서울로 납부하였다. 평택현은 노산포(老山浦)에서 세곡을 모아 수원 대진(大津)을 거쳐 서울로 납부하였다. 이렇게 평택이 조운제에서 육운이 아닌 수운을 이용하게 된 것은 진위천과 안성천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진위-안성천은 한남정맥과 금북정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하천면적과 유역면적이 작아 수운 활동은 있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발달하지는 못했다. 주로 곡식을 운반, 먼 지역으로 보내는 유통로 역할을 담당했다. 왜냐하면 진위-안성천 유역은 한북정맥으로 한강유역과 구분되지만, 이 산줄기는 고도가 높지 않을 뿐더러 연속성도 약해서 한강유역과의 경제활동을 포함한 문화교류를 제한할만한 장애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곡식을 제외한 주요 물품의 유통은 주로 육운을 이용했다.

반면 진위천 유역의 남쪽 방향으로는 동일 유역권의 연장지역으로서 천안, 아산, 당진, 예산 등 충남의 북부지역과 교류가 많았다. 진위-안성천 유역은 현재 해수가 내륙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 진위천, 안성천, 삽교천, 곡교천, 무한천 등이 모두 각각의 하천처럼 보이지만, 하곡이 발달했던 빙기 때에는 아산만을 하구로 하는 하나의 하천과 그 지류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긴밀한 연관성을 갖기 때문이다. 특히 18세기 후반 해운이 활발해지면서 이들 지역과의 교류는 더욱 활발해졌다. 당시 충청도의 연해로는 서천—비안—남포—보령—홍주—결성—해미—서산—태안—당진—면천—아산—직산—평택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더욱이 이들 해로는 대체로 군현을 단위로 가장 큰 포구를 중심으로 주위의 소포구가 연결되고, 다시 군현과 군현 사이에는 각도나 지역의 중심포구가 그 지역 해상유통권의 중심으로 기능하였다. 따라서 연해로의 끝에 위치했던 평택은 충청도지역의 해운과 경기도 내륙지방의 육운을 연결하는 결절점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5) 통신제도

조선시대의 통신제도는 주로 국방상의 이유로 설치, 운영되었다. 이른바 봉수제도가 그것으로, 봉수를 이용하여 국경의 현황을 보고하는 것이었다. 이는 밤에 올

리는 횃불[烽]과 낮에 피워 올리는 연기[燧]를 합한 말로서 변방의 상황을 중앙이나 각 지방 변경의 기지에 알리기 위한 군사적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었다. 봉수는 평상시에는 불이나 연기를 하나, 적이 나타나면 둘, 적이 경계 가까이에 오면 셋, 경계를 침범하면 넷, 접전을 하게 되면 다섯을 올렸다. 즉, 평상시의 상황에서부터 싸움이 일어난 상황까지 보고를 하는 형태로 적의 침입에 대비한 통신유형이었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봉수는 남산에 설치된 봉수에 집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봉수제는 심한 바람이나 구름이 심하게 끼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고, 그 경우에는 봉수군들이 차례차례로 달려서 보고해야 하는 등 통신수단으로서 한계가 있었다. 국경경비를 위한 군사적인 목적으로서의 통신 이외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 조선 경기 진위군 북면 은산리 정회식 씨에게 일본에서 보낸 서신(편지)

실제로 봉수제는 임진왜란 당시 통신수단으로서의 한계를 노출하였기 때문에, 임진왜란 이후에는 봉수제의 보완책으로 파발제가 실시되었다. 파발제의 실시는 1591년(선조 30년) 5월 한준겸의 건의에 따라 서발(西撥), 북발(北撥), 남발(南撥)의 3대로를 근간으로 하여, 기발(騎撥)은 25리마다 1참(站), 보발(步撥)은 30리마다 1참을 둠으로써 성립하였다. 서발은 기발이었고, 북말과 남발은 보발로 이루어졌다. 남발은 동래에서 서울까지 31참, 920리에 이르는 길에 발참을 세우고, 긴급한 변방의 사정이나 공문서를 전송하였다.

이러한 파발제도는 관문서를 전송하는 것이 주임무였으나, 파발의 설치를 보면 평안도와 함경도, 그리고 경상도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이루어졌다. 즉 경기에서 충청, 전라도를 지나는 길은 별도의 발참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는 임진왜란이라는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의 상황을 긴밀하게 전달해야 할 시대적 상황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평택을 지나거나 평택에 보내지는 공문서는 파발제가 아닌 기존의 역로를 이용해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전술했듯이 평택에는 양재도에 속하는 청호역과 금정도에 속하는 화천역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 역로를 이용하면 공문서의 전송이 가능했다.

그러나 역로와 파발제의 이원적 운영은 효율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1895년(고종 32)에 역참제를 폐지하고 우체사를 설치하여, 전국의 역로와 파발을 일원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때 진위면 지역은 수원에서 공주 사이에 매일 공문서를 발송하는 직로에 위치했고, 평택 지역은 이틀에 한번 씩 발송하는 5로 중에서 1로에 편제되었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동국여지승람』, 『대전통편』, 『증보문헌비고』, 『정리고』, 『임원경제지』, 『대동지지』

평택군지편찬위원회, 『평택군지』, 1984

송탄시사편찬위원회, 『송탄시사』, 199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33-조선 후기의 경제』, 1997

고동환, 『朝鮮後期 서울商業發達史硏究』, 1998, 知識産業社

평택시, 평택시 문화원, 『진위면지』, 1999

이헌창, 「開港期 忠淸南道의 流通構造」 『近代朝鮮 工業化의 硏究』, 1993

崔永俊 · 金鍾赫, 『京畿地域의 交通路와 交通의 發達』 『京畿地域의 鄕土文化』, 1997,

이혜은, 「조선초기 교통망과 교통수단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 80

2. 현대의 교통 일반

1) 교통 여건

평택시는 서울로부터 약 76㎞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충청남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고 주변 5개시(아산시, 안성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와 연접해 있는 교통요충지로서 남북을 가로지르는 1호 국도 및 45호 국도가 관통하고 있고, 동서로는 국도 38호선이 연결하고 있는 경기남부권의 교통 중심도시이며, 지리적으로 볼 때 북부지역, 남부지역, 서부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심과 부도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포승국가산업단지와 평택항 건설, 7개 지방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지역의 배후 거점 지역이며, 서해안 고속도로의 일부 개통에 따라 지역간 통과 교통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교통정체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제 이후 교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국도 38호, 39호 및 82호선의 4차선 확 · 포장사업을 완료하였고, 종합적 교통정비를 위해 '98년에 평택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발주, '99. 6월 완료하여 현재 경기도 도시교통심의회에 상정 중에 있다.

교통개선을 위한 중기계획으로는 지역간 통과 교통의 우회처리를 위해 현재 외곽 순환도로 중 미연결 구간의 연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내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의 기능별 위계 확립과 도로망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사업의 집중적인 추진과 병행하여 도심지역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권장, 회사 통근버스의 공동운영, 노상주차장 유료화, 자가용 10부제 이행, 종업원 무료주차 폐지 등 교통수요 관리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0년에는 승용차 부제운영을 기존 10부제 운영에서 5부제로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하여 평택시 공직자를 중심으로 적극 참여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 을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1) 도로 현황

(단위 : 미터)

총 연 장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 · 군도
602,183	17,140	111,608	115,540	357,895

(2) 포장율

(단위 : %)

총 연 장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 · 군도
89.0	100	83	75.4	94.7

(3) 자동차 등록현황

(단위 : 대)

계	승용차	승 합	화 물	특 수	비 고
93,570	65,898	8,725	18,653	294	

2) 교통영향 평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하는 교통 영향평가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거나 시설물을 건축할 때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설치 · 운영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99년도에 교통영향 평가를 받은 사업은 다음과 같다.

○ 도시 교통 정비지역 : 평택시 전지역('99년도에는 지방심의 8건)

3. 대중교통 및 운수행정

1) 대중교통 여건

평택시의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시내 · 외버스 115개 노선 166대, 마을버스 36개 노선 21대, 법인택시 385대, 개인택시 862대가 운행되고 있다. 21세기 일류도시 평택건설 목표에 발맞추어 평택시 지역에 항만, 산업단지 조성 및 대규모 유통시설이 개설됨에 따라 유통수요의 증가와 시민들의 대중 교통수단에 대한 욕구는 크게 증가되었으나 이러한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교통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종합터미널 건설 등으로 대량 수송체계를 확충하고 단기적으로는 시내 · 외버스 및 택시의 증차 및 증회로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또한 시내버스의 질적 향상과 병행하여 버스승강장의 적정위치 설치 여부 및 버스노선은 굴곡, 장거리노선, 과밀노선 등 불합리한 노선의 지속적인 개선과 운수종사자들의 소양교육을 통한 서비스 개선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중교통 행정을 수행해 나아갈 계획이며,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평택시외버스터미널

2) 운수업체 현황

(1) 택시업체 현황

계	회 사 택 시			개 인 택 시	
	업체수	차량대수	증차대수	차량대수	증차대수
1,247	11	385	8	862	35

(2) 버스업체 현황

업체수	차량대수	증차대수	비고
3	166	3	

(3) 화물업체 현황

업체수	차량대수	증차대수	비고
262	1,726	187	

※ 개별용달, 개별화물 제외.

(4) 렌트카업체 현황

업체수	차량대수	증차대수	비고
15	275	6	

(5) 장의자동차 사업현황

업체수	차량대수	증차대수	비고
10	27	9	

※ 개별용달, 개별화물 제외.

(6) 정비업체 현황

업체수	종합	소형	부분 정비
266	22	24	220

(7) 폐차장 현황 : 4개소

(8) 자동차 매매업

업체수	증가수	비고
53	20	

(9) 버스운행 현황

계		시내		시외		마을버스	
노선수	대수	노선수	대수	노선수	대수	노선수	대수
151	187	115	166	-	-	36	21

4. 교통질서 확립

1) 기본현황

(1) 주 · 정차 금지구역 지정 현황 : 121개구간, 58.61㎞

(2) 불법 주 · 정차 단속현황

(단위 : 건, 천 원)

계		단 속		견 인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34,337	1,385,257	33,000	1,350,919	1,337	34,338	

(3) 불법 주 · 정차 단속인력 현황

(단위 : 명)

계	일반	기능직			청원경찰	공익요원	비 고
		소계	주정차	운전			
69	5	14	6	8	9	41	

(4) 단속 장비 현황

(단위 : 대)

계	견인차				순찰차	무전기	사진기	기 타	비 고
	소계	대형	중형	소형					
43	5	1	3	1	3	17	18	-	

(5) 견인관리사무소 현황

개소	면 적	주차가능대수	소유자	비 고
2	3,330 ㎡	135	평택시	

(6)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

(단위 : 건)

발생대수	강제 처리			자진처리	처리중	비고
	소계	폐차	매각			
649	187	187	-	462	-	

(7) 사업용 차량 단속현황

1 택시

계	승차거부	부당요금	장기정차	차량내 미비치	기타	비고
15건	7	5	-	-	3	

2 버스

계	노선위반	질서문란	장기정차	차량내 미비치	기 타	비 고
75건	-	-	-	-	75	

3 교통불편신고 처리현황

계	승차거부	합 승	불친절	질서문란	청소불량	난폭운전	기 타	비 고
91건	21	3	25	1	-	2	39	

2) 주 · 정차 등 교통질서 확립

시내 주요 도로변의 불법 주 · 정차로 인한 차량소통 불편 초래 및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강력한 계도 · 단속활동으로 위반차량 감소 및 주차질서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단속을 하지 않으면 위반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 및 시민 교통소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차시설의 부족은 점진적인 확충과 시설개선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설치하였으며, 단속방법을 A · B · C등급으로 분리하여 단속을 할 뿐 아니라 주요 통행로의 주 · 정차 금지구역을 확대지정 및 계도 · 단속활동 강화로 원활한 차량소통과 교통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사업용 차량인 버스, 택시 등 일부 운전자들의 불친절, 부당요금 징수, 승차거부, 정류장질서문란 등 불법행위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수시 단속을 실시, 시민의 교통이용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방치된 차량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방치차량 처리에도 힘쓰고 있다.

5. 주차난 해소

1) 원인과 해소대책

평택시는 35만 인구에 9만 3천여 대의 차량이 있다. 최근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주차장 확보가 차량 보유대수에 크게 못미치고 있어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되고 있는데 특히 부설주차장 설치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에 건축된 건물이나 다가구 주택의 주차시설 미확보로 많은 차량이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에 주 · 정차하고 있어 보행 및 비상시 소방차량의 통행로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차수요가 많은 시내 중심지역의 주차시설 부족과 기계식 주차장 미사용 등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유휴지를 조사, 주차장으로 조성하며 공원, 녹지, 공공용지 및 하천변 등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심각한 주차난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우며, 시민들의 차량 함께타기 등으로 나홀로 차량의 사용을 줄이고 자기 차량의 차고지를 스스로 확보하고자 하는 의식이 필요하다.

2) 주차장 현황

(1) 주차장 현황

합 계		노 상		노 외		부 설		비고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2,606	56,145	44	2,316	72	3,745	2,490	50,084	

(2) 공영주차장 현황

합 계		노 상		노 외		부 설		비고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114	5,464	44	2,316	14	915	56	2,233	

(3) 주차장 확충 현황

개소수	면 수	면적(㎡)	사업비(천 원)	비 고
2	113	3,139	2,568,247	

3)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1) 자동차등록 업무의 종류

○ 등록업무 : 신규, 이전, 변경, 말소, 압류, SOFA등록 등

○ 기타업무 : 정기검사관리, 책임보험관리, 임시운행허가, 저당설정, 제증명 등

(2) 건설기계등록 업무

○ 등록업무 : 신규, 이전, 말소, 저당, 압류, 변경, 제증명

○ 기타업무 : 건설기계사업, 조종사면허관리, 검사관리

(3) 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 : 대)

합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화물
93,570	65,898	8,725	18,653	294

(4) 최근 3년간 자동차 증가 현황

구 분	'97	'98	'99
등록대수	86,384	86,716	93,570
증가대수	9,164	332	6,854
증가율	12	4	7

(5) SOFA 자동차등록 현황

계	승 용	승 합	화 물
3,490	3,024	294	172

(6) 건설기계 등록 현황

구 분	계	관 용	자가용	영업용
'99년	2,586	16	915	1,655

(7) 건설기계 조종사 현황

구분	계	불도우저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기중기	로울러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모우터 그레이더	기 타
'99	3,348	154	1,072	231	1,484	279	14	23	26	65

3) 건설기계 민원행정 전산시스템 구축

건설기계 관련 민원업무를 자동차등록 전산망과 연계, 전국전산망을 구축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2,581대, 조종사 면허자 3,348명의 기초자료를 입력 완료하여, 앞으로는 전국 온라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평택역

(1) 연혁

- 1905. 1. 1 : 경부선 개통과 동시에 보통역으로 영업 개시
- 1972. 2 1 : 6급 역에서 5급역으로 승격
- 1987. 12. 30 : 현 역사준공

(2) 편제 및 인원

구 분	계	역장	역무계장	운전계장	운전원	역무원	수송원	비 고
정 원	29	1	2	2	6	12	6	공익근무요원
현 원	28	1	2	2	5	12	6	현재원 5명

(3) 재산 관리 현황

1 정거장면적

총 86,616㎡ (26,277평)	토지 : 85,483㎡	역광장 : 5,530㎡ 역 사 : 572㎡ 대합실 : 270㎡
	건물 : 1,133㎡	

2 임대 허가용지 : 11건 2,140㎡

▮ 평택역

▮ 기차를 이용하는 평택시민들

(4) 1일 평균 업무량

• 수송량 - 여객 : 13,000명(승차 : 6,000, 강차 : 7,000명)
- 화물 : 발송 1.0량, 도착 2.0량
- 소화물 : 발송 40개, 도착 350개

(5) 열차운행 현황

1 열차 종별

(단위 : 천 톤)

구 분		여객 열차					화물 열차	소화물 열차	합계	비고
		새마을	무궁화	통일호	계	합계				
계	정기	(82)	151(7)	4	155(89)	186(97)	22(54)	8(2)	216(153)	*주말열차 (토, 일요일, 공휴일 운행 *( )평택역 통과열차
	주말	(6)	25(2)	6	31(8)					
상행	정기	(41)	78(1)	2	80(42)	96(46)	10(29)	5	111(75)	
	주말	(3)	13(1)	3	16(4)					
하행	정기	(41)	73(6)	2	75(47)	90(51)	12(25)	3(2)	105(78)	
	주말	(3)	12(1)	3	15(4)					

2 열차선별

(단위 : 천 톤)

선별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충북선	합계			비고
종별		무궁화	통일호	계	무궁화	통일호	계	무궁화	통일호	계	무궁화	통일호	계	무궁화	무궁화	통일호	계	
상행	정기	35		35	18		18	12		12	12	2	14	1	78	2	80	
	주말	6	3	9	3		3	1		1	1		1	2	13	3	16	
하행	정기	31		31	18		18	12		12	11	2	13	1	73	2	75	
	주말	6	3	9	2		2	1		1				2	11	3	14	

(6) 기타 역광장 활용

○체육시설 조성 : 베드민턴장 1개소 설치 운영

○시민과 여객의 휴식을 위한 소공원 조성

• 느티나무 휴게소 4개소 : 평택시에서 조성

• 만남의 광장 : '88년 5월 평택 라이온스클럽에서 건립 운영

○주요업무 : 평택시와 주변도시의 여객수송, 화물 및 고화물취급

통신 및 전기

제2절

1. 통신제도의 변천과 평택 – 봉수 · 역참을 중심으로

1) 봉수제도의 변천과 평택

(1) 봉수제도의 변천

전기통신의 발명은 통신의 일대 혁신적인 진보로서 인간사회의 공간과 시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했다. 이렇게 전기 통신에 이르기까지 통신의 진화과정을 살펴보면, 가장 원시적인 형태는 빛깔 및 모형 등에 의한 표식, 불빛 및 연기 등에 의한 가시신호(可視信號) 통신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봉화 신호는 가장 오랜 연혁을 가지고 있는 통신방법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수 많은 사람이 사용했다. 이러한 봉화 신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제도가 봉수제도(烽燧制度)라 할 수 있다.

봉수(烽燧)란 횃불[烽]과 연기[燧]로써 급한 소식을 전하던 전통시대의 통신제도이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신호했다. 역참제도(驛站制度)와 함께 신식 우편제도와 전기통신이 창시되기 이전의 전근대국가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통신방법이었다. 봉수는 역마(驛馬)나 인편을 이용하는 것보다 시간적으로 단축되었고, 신속한 효용성을 발휘하여 지방의 급변하는 민정상황이나 국경지방의 적의 동태를 상급기관인 중앙의 병조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 물론 봉수제도는 일반 국민들의 개인적인 의사표시나 서신을

▮ 조선의 봉수망

▮ 화성봉수대(1930년대 초)

전달할 수는 없는 것으로 국가의 정치 · 군사적인 정보전달기능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봉화신호를 사용한 것은 멀리 삼국시대 초엽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지만, 조직적으로 체계화된 봉수제도는 고려시대 중기에 시작되었다. 1149년(의종 3)에 봉수를 올리는 규정이 마련되는데, 낮에는 연기를 밤에는 횃불로 알리되 평시에는 이를 한번씩 했고, 변방이 위급한 상황이라든가 사태의 추이가 험악하게 전달될 때는 2번, 적이 침입하여 멀지 않아 전투가 시작되려할 때에는 3번, 적과 아군이 접전하여 전황이 급박한 상황에서는 4번 불을 피워 알렸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봉수제도는 고려시대의 것을 계승하여 더욱 발전시켰다. 봉수대의 설치방법은 위치에 있어서 30리마다 그 곳 제일 높은 곳에 봉화대를 두되, 만약 산이 서로 막혀서 불편할 때에는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거리에 설치했다.

봉수의 종류에는 수발기관에 따라 서울로 직접 연결되는 본선에 해당하는 직봉(直烽)과 직봉과 연결되는 지선에 해당하는 간봉(間烽)이 있으며, 직봉과 간봉은 다시 3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해안이나 국경지방에서 초소역할까지 함께 수행했던 연변봉수(沿邊烽燧)와 연변봉수를 받아 서울로 연결하는 내지봉수(內地烽燧),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지봉수의 내용을 받는 경봉수(京烽燧)가 그것이다.

1797년(정조 21)에 이만운(李萬運)이 편찬한 『증보문헌비고 增補文獻備考』에 따르면, 당시 전국 각지에 산재한 봉수대의 숫자는 모두 623개소인데, 직봉(直烽)의 봉수대가 369개소이고, 간봉(間烽)의 봉수대가 254개소였다고 한다. 봉우리에서 봉우리로 전하여 최종적으로 서울 남산의 목멱산(木覓山) 봉수대로 전해지는데 대략 12시간 가량이 걸렸다고 한다.

수도 서울에 있는 봉수대로서 지금의 남산인 목멱산(木覓山) 봉수대는 경봉수로서, 전국의 모든 봉수가 모이는 중앙봉수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가장 중요한 봉수대였다. 목멱산 봉수대는 동쪽으로부터 서쪽을 향하여 제1, 제2, 제3, 제4, 제5봉의 5개소가 있었다. 5개의 봉수 노선을 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방향을 살펴보면 모두 각각 일본, 중국, 러시아에 대비했음을 추측할 수 있고 이와 같이 국방과 통신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높은 산의 정상에 설치했던 봉수대 자리가 현재의 마이크로웨이브 중계소의 위치와 대부분 일치하는 것은 두 방식 모두가 가시거리 통신방식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시대 봉수를 올리는 방법은 횃불이나 연기를 평시에는 1번, 적의 형적이 나

노선명	출발지	주요 경유지	도착지	직봉	간봉
제1로	함경도 경흥(慶興) 서수라(西水羅)	온성(穩城) 유원(柔遠) →북청(北靑) 석용(石茸) →안변(安邊) 철령(鐵嶺) →경기도 양주(楊州) 아차산(峨嵯山)	한성(漢城) 목멱산(木覓山)	120	60
제2로	경상도 동래(東萊) 다대포진(多大浦鎭)	영천(永川) 성황당(城隍堂) →순흥(順興) 죽령(竹嶺) →충청도 충주(忠州) 마산(馬山) →광주(廣州) 천림산(天臨山)		40	103
제3로	평안도 강계(江界) 만포진(滿浦鎭)	의주(義州) 통군정(統軍亭) →평양(平壤) 화사산(畵寺山) →경기도 송악(松嶽) 국사당(國師堂) →한성(漢城) 무악(毋岳) 동봉(東峰)		78	22
제4로	평안도 의주(義州) 고정주(古靜州)	삼화(三和) 우산(牛山) →황해도 장연(長淵) 미라산(彌羅山) →해주(海州) 연평도(延坪島) →한성(漢城) 무악(毋岳) 서봉(西峰)		71	35
제5로	전라도 순천(順天) 돌산도(突山島)	진도(珍島) 여귀산(女貴山) →옥구(沃溝) 화산(花山) →경기도 양성(陽城) 괴태곶[塊台串] →양천(陽川) 개화산(開花山)		60	34
합계				369	254

타나면 2번, 적이 국경에 가까이 왔을 때에는 3번, 적이 국경을 침범했을 때에는 4번, 적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는 5번을 들게 했다.

봉수대에서 근무하는 봉수군(烽燧軍)이나 오장(伍長)은 전부 봉수대 근처에 거주하는 자로서 정했고, 봉화 시에 큰 바위나 바람의 영향으로 연기와 불꽃이 통하지 않을 때는 봉수군이 이어달려 다음 구역으로 급히 달려가 알리도록 했으며, 봉수군은 다른 일에 종사하지 못하고, 오직 높은 곳에 올라가 멀리 살펴 경계하는 임무만을 맡았다.

봉수제도는 기상조건이 좋지 않을 때에나 흐린 날씨에는 고장이 있었고, 지키는 병사의 과실이나 태만이 아니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 경우도 있었다. 봉수제도는 역참제도나 파발제도와 병행되면서 치폐(置廢)를 거듭하다가, 1894년(고종 31)에 근대적인 전기통신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 원정리 봉수대 원경

(2) 평택의 봉수

지금의 평택지역은 예전의 경기도와 충청도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 지역은 변방으로부터 서울과 연결되는 삼남지방 봉수의 최종 목적지로 그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다섯 가지 봉수의 경로중 제5로의 선상에 평택 지역이 위치하고 있었다.

평택 지역에는 두 개의 봉수대 자리가 확인된다. 지금의 포승면(浦升面) 원정리(遠井里)의 괴태곶[塊台串] 봉수대와 비전동(碑前洞)의 망해산(望海山) 봉수대이다.

괴태길곶[塊台吉串]이라고도 불렸던 원정리의 괴태곶[塊台串] 봉수대는 위의 표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 제5로의 직봉에 해당했으므로, 그 자체 중요한 봉수대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간봉(間烽)과 직봉(直烽)을 이어주는 분기점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고 하겠다.

직봉의 경로로 보아 괴태곶 봉수대는 전라도 순천의 돌산도에서 출발하여 서울의 목멱산 봉수까지 이어지는 제5로의 선상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직접적으로는 직산(稷山)의 망해산(望海山) 봉수대로부터 전달받아 수원(水原)의 흥천산(興天山) 봉수대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한 괴태곶 봉수대는 역시 제5로의 직봉이기도 했던 전라도 옥구(沃溝)의 화산(花山)에서 출발해 괴태곶에 이르는 간봉(間烽) 제2로의 종착점 역할을 하기도 했다. 즉 직접적으로는 충청도 면천(沔川)의 창택곶[倉宅串] 봉수대로부터 전달받아 다시 직봉 제5로의 수원(水原)의 흥천산(興天山) 봉수대로 이어주었던 것이다. 참고적으로 『증보문헌비고』를 바탕으로 당시 괴

▮ 고지도에 나타난 원정리 봉수대(괴태길곶)

태곳 봉수대를 거쳐가는 직봉 제5로와 간봉의 봉수 경로를 각 고을별로 빠짐없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봉 제5로>

전라도 순천(順天) 돌산도(突山島)→백야곶[白也串]
→흥양(興陽) 팔전산(八田山)→마북산(馬北山)→천등산(天登山)→장기산(帳機山)
→장흥(長興) 전일산(全日山)→천관산(天冠山)
→강진(康津) 원포(垣浦)→좌곡산(佐谷山)→완도(莞島)
→해남(海南) 달마산(達麻山)→관두산(館頭山)
→진도(珍島) 여귀산(女貴山)→첨찰산(僉察山)
→해남(海南) 황원성(黃原城)
→나주(羅州) 군산(群山)
→무안(務安) 유달산(鍮達山)→고림산(高林山)
→함평(咸平) 옹산(瓮山)→해제(海際)
→영광(靈光) 차음산(次音山)→고도도(古道島)→홍농산(弘農山)
→무장(茂長) 고리포(古里浦)→소응포(所應浦)
→부안(扶安) 월고리(月古里)→점방산(占方山)→계화리(界火里)
→옥구(沃溝) 화산(花山)
→임피(臨陂) 오성산(五聖山)→불지산(佛智山)
→함열(咸悅) 소방산(所防山)→용안(龍安) 광두원(廣頭院)
→충청도 은진(恩津) 강경대(江景臺)→황화대(皇華臺)
→노성(魯城) 노성산(魯城山)
→공주(公州) 월성산(月城山)→고등산(高登山)→쌍령산(雙嶺山)
→ 천안(天安) 대학산(大鶴山)
→ 아산(牙山) 연암산(燕巖山)
→ 직산(稷山) 망해산(望海山)
→ **경기도 양성**(陽城) **괴태곶**[塊台串]
→ 수원(水原) 흥천산(興天山)
→ 남양(南陽) 염불산(念佛山)→해운산(海雲山)
→안산(安山) 정왕산(正往山)
→인천(仁川) 성산(城山)
→부평(富平) 유곶[杻串]
→김포(金浦) 백석산(白石山)

→통진(通津) 수안산(守安山)
→강화(江華) 대모성산(大母城山)→진강산(鎭江山)→강산(綱山)
→교동(喬桐) 규산(圭山)
→강화(江華) 하음산(河陰山)→남산(南山)
→통진(通津) 남산(南山)
→김포(金浦) 냉정산(冷井山)
→양천(陽川) 개화산(開花山)
→한성(漢城) 목멱산(木覓山)

<직봉 제2로>

전라도 옥구(沃溝) 화산(花山)
→충청도 서천(舒川) 운은산(雲銀山)
→ 비인(庇仁) 칠지산(漆枝山)
→남포(藍浦) 옥미봉(玉眉峯)
→보령(保寧) 조침산(助侵山)
→홍주(洪州) 홍양산(興陽山)
→결성(結城) 고산(高山)
→홍주(洪州) 고구(高丘)
→서산(瑞山) 도비산(島飛山)
→태안(泰安) 백화산(白華山)→주산(主山)
→해미(海美) 안국산(安國山)
→당진(唐津) 고산(高山)
→면천(沔川) 창택곶[倉宅串]
→**경기도 양성**(陽城) **괴태곶**[塊台串]

괴태곶 봉수대는 지금의 평택시 포승면 원정 7리 마을의 뒷산인 봉화재[烽火嶺, 해발 83m]의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는 해군의 평택항 건설공사로 인해 해군기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봉화재까지 오를 수 없다.

■ 원정리 봉수대 봉돈 노출상태

『세종실록지리지 世宗實錄地理志』와 『신증동국여지승람 新增東國輿地勝

覽』, 『대동지지 大東地志』 등의 문헌에 의하면 괴태길 봉수는 "양성현(陽城縣)의 서쪽 90~100리 지점에 있다."고 했다.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는 "포승면 원정리 동서로 50칸, 남북으로 20칸의 돌담 안에 1칸 반, 높이 1칸의 돌로 쌓은 봉수대 2개가 있으며, 이전에는 5개가 있었다 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전국유적목록 全國遺蹟目錄』에는 "봉수대의 터는 동서로 50칸, 남북으로 20칸의 돌담이며, 크기는 지름 1칸 반이다."라 했다.

한편 망해산(望海山) 봉수대는 지금의 평택시 비전동(碑前洞)에 있었다고 추정된다. 조선시대에는 충청도 직산(稷山)에 속했던 용봉산 정상부에 흙을 쌓아 만든 지름 9m의 타원형 모양의 봉수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 일대에 대한 택지개발로 인해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 『대동지지』 등의 기사를 종합하면, 망해산 봉수는 예전의 경양산(慶陽山)인 직산현의 망해산에 있으며, 남쪽의 아산(牙山) 연암산(燕巖山) 봉수에서 연락을 받아, 북쪽 양성(陽城)의 괴태곶 봉수로 연락하는 봉수였다고 한다.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는 "병남면(丙南面) 비전리(碑前里)에 응봉산(鷹峰山) 봉수가 있는데, 지름은 약 5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2) 역참제도의 변천과 평택

(1) 역참제도의 변천

역참(驛站)은 우역(郵驛)이라고도 하며, 국가의 명령과 공문서의 전달, 변경의 중요한 군사정보, 그리고 사신의 왕래에 따르는 영송(迎送)과 접대 등을 위해 마련된 교통·통신기관의 하나이다. 역참제도의 기원은 도로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에 이르러 중앙집권적인 고대국가를 형성해 가는데 지방통치를 원활히 하고 외적의 침입에 대한 방비를 강화하기 위해 도로가 발달했다. 이처럼 정치적, 군사적 요구에 따라 발달된 도로가 제도적으로 체계화된 것이 역참제도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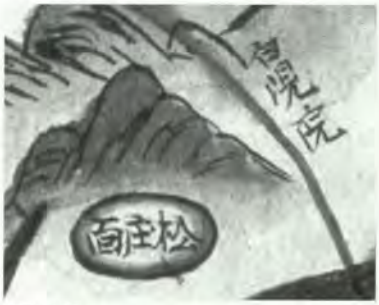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역제의 기원은 『삼국사기 三國史記』에 실린 기록을 전거로 487년(신라 소지왕 9)으로 보고 있다. 이것이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고려시대에 들어와 체계화되는데, 『고려사 高麗史』를 보면, 전국의 525개의 역(驛)을 22개의 역도(驛道)로 편성하여 역참을 조직했다.

조선시대에는 대체로 고려시대의 역참제도를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켰다. 중앙집권적인 군현제도를 강력하게 추구하던 조선왕조로서는 역이 차지하는 기능을 중요시하게 되었고, 지방에 대한 중앙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역의 기능을 충분히 이용

▮ 진현지도에 기록된 원

▮ 장호원

▮ 이방원



▮ 백현원

▮ 갈원

하기 위하여 전국의 역을 서울을 중심으로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관리체계의 개편, 역로의 보충 및 개정, 역원의 보충, 역전(驛田) 경영의 활성화 등 여러 차례의 개편을 통해 역참 행정을 펴나갔다.

(2) 평택의 역참

고려시대 22개의 역도 가운데 '충청주도(忠淸州道)'가 지금의 평택현을 지나는 역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충청주도'는 수원(水原)에서 출발하여 전의(全義)·부여(扶餘)·공주(公州)에 이르는 지역과 수원에서 출발하여 양성(陽城)·진천(鎭川)·청주(淸州)·문의(文義)에 이르는 지역, 그리고 아산(牙山)·예산(禮山)·해미(海美)에 이르는 지역 등 지금의 충청도 일원에 걸쳐 분포된 도로로 모두 34개의 역이 있었다. 지금의 평택에 해당하는 당시 양성에는 가천역(嘉川驛)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당시 수원 관할이던 청호역(菁好驛)도 지금의 평택시 지역에 해당한다.

조선시대의 역참을 『세종실록지리지 世宗實錄地理志』와 『경국대전 經國大典』에서 확인해보면, 조선전기에 평택 관내의 역(驛)은 모두 3개가 확인된다. 당시 경기도에는 영서도(迎曙道), 도원도(桃源道), 중림도(重林道), 양재도(良才道), 경안도(慶安道), 평구도(平丘道) 등 6개의 역도(驛道) 아래 모두 47개의 역이 있었다. 그 가운데 지금의 평택을 지나는 역도는 양재도였는데, 조선후기에 영화도(迎華道)로 개칭되었다. 양재도 관할에는 낙생(樂生), 구흥(駒興), 금령(金嶺), 좌찬(佐贊), 분행(分行), 무극(無極), 강복(康福), 가천(加川), 청호(菁好), 장족(長足), 동화(同化), 해문(海門) 등 12개의 역이 소속되어 있었다. 그 가

운데 양성현의 가천역(加川驛)과 진위현의 청호역(菁好驛)이 지금의 평택시 관내에 해당한다.

한편 당시 충청도는 좌도(左道)와 우도(右道)로 나누어 역도를 편성했는데, 좌도에는 연원도(連原道), 율봉도(栗峯道), 성환도(成歡道) 등 3개의 역도 아래 41개 역이, 우도에는 금정도(金井道), 시흥도(時興道), 이인도(利仁道) 등 3개의 역도 아래 24개 역이 있었다. 그 가운데 지금의 평택을 지나는 역도는 시흥도였는데, 시흥도 관할에는 창덕(昌德), 일흥(日興), 급천(汲泉), 순성(順城), 흥세(興世), 장시(長時), 화천(花川) 등 7개 역이 소속되어 있었다. 이 시흥도는 조선 후기에는 금정도의 관할로 이속된다. 그 가운데 평택현의 화천역(花川驛)이 지금의 평택시 관내에 해당한다.

한편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출장한 관원들을 위해 각 요로(要路)와 인가가 드문 곳에 국영 숙식시설을 두었는데, 이를 원(院)이라고 했다. 1843년 간행된 『진위현지(振威縣誌) 등 조선후기의 각종 읍지류를 보면, 평택 지역에는 모두 5개의 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즉 진위현 관내에 장호원(長湖院), 이방원(李方院), 백현원(白峴院), 갈원(葛院) 등 4개의 원이 있었고, 평택현 관내에 상원(上院)이 있었다고 한다.

장호원은 현재 진위천으로 불리는 냇물의 옛 지명인 장호천(長好川)에서 온 명칭으로, '호(湖)'라 쓴 것은 1899년 간행된 읍지에서는 '호(好)'라 수정되었다. 장호원의 위치는 진위현의 중심지였던 봉남리의 봉남교에서 진위천을 건너, 서탄면으로 가는 도로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오리곡 부근으로 추정되나 흔적은 없고, 일설로는 오리곡 마을 앞 들에 큰 다리가 묻혀있다고 전해져 옛 도로의 존재가 구전으로 내려옴을 알게 한다. 이방원은 무봉산의 서편 끝자락에 위치하고 오산~가곡리 사이의 옛 삼남대로 상에 접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갈곶리~청호리~가곡리 사이의 어느 곳인지는 미상이다. 백현원은 동막 마을 앞에서 장안리를 넘는 흰치고개에 있었다고 하는데, 백현이 순 우리말로 '흰치고개'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갈원은 현재의 원칠원 부락을 말하며, 예로부터 역원으로서 상업이 발달하고 삼남대로가 마을을 통과하는 위치에 있어서, 왕들의 행차시 충청도 접경인 이곳에서 쉬었다 가는 곳이었다. 갈원에는 인조때 왕이 벼슬을 주었다는 옥관자정이 있고, 병자호란으로 거치면서 없어진 갈원사의 터가 남아 있었으나 주택지로 변했으며, 일부 주추는 재활용되었다고 하듯 마을 전체가 역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나, 관청으로서의 역원 위치는 분명하지 않다. 한편 상원은 평택현의 동쪽 5리 지점에 있었는데, 지금의 팽성읍(彭城邑) 노양리(老陽里) 계양(桂陽) 근처이다.

참고문헌

• 원전자료 : 『조선왕조실록 朝鮮王朝實錄』, 『경국대전 經國大典』, 『신증동국여지승람 新增東國輿地勝覽』, 『증보문헌비고 增補文獻備考』, 『여지도서 輿地圖書』, 『만기요람 萬機要覽』, 『대동지지 大東地志』, 『진위현지 振威縣誌』

• 논저

남도영, 『韓國馬政史』, 1996

평택군지편찬위원회, 『平澤郡誌』, 1984

송탄시사편찬위원회, 『松炭市史』, 1994

평택시 경기도 박물관, 『平澤의 歷史와 文化遺蹟』, 1999

• 책

『평택군지 平澤君志』

2. 현대의 통신 일반

1) 전신제도의 도입

전보는 1885년 전신으로 외국과 교신함을 시초로 하여, 1896년 전국에 통신망을 확산하였다. 당시 전보는 관보 · 국보 · 사보로 구분하고, 전신국을 한성 총사, 인천 · 원산 · 부산 · 평양 · 공주 · 진주 등 39곳의 지사를 두어 시행했다.

2) 전화의 도입

봉수의 폐지 이후, 일본인에 의해 1902년 전화가 가설되었다.

처음에는 한성~개성, 개성~평양, 한성~수원간에 개설되었으며, 1905년까지 전국에 확산되었고, 우리 고장에는 1920년부터 전화가 보급되었으며, 당시 전화는 우편국 소관이었다.

3) 평택 지역의 전신 · 전화 현황

1945년 8 · 15 해방 이후, 전신 · 전화는 우체국 소관 업무로서 이어지다가, 통신의 체계발달로 전신 · 전화 업무가 급등하던 1979년 전신 전화국이 설립되어 전화 · 전보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으며, 통화량이 늘어나자 평택군 지역의 당초 2, 4, 7, 9 등이 52. 62 등 두자리 숫자로 변했다가, 지금은 세자리 국번으로 바뀌어 그 수요의 팽창을 느끼게 하였다.

(1) 전신

유 · 무선 통신에서 무선통신을 통해 국내 · 외에 업무연락, 외교, 국방관계통신 등을 하는 것을 전신이라 하고, 일반적으로는 전보를 말한다.

우리고장의 전보는 평택우체국이 1920년 3월 2일 개소된 뒤 시작되었으며, 전보는 점차 전화의 보급이 각 가정마다 되는 추세로 인해 줄어들고 있고, 현대에는 무선통신의 이용이 증대되어 텔렉스, 무선전화, 무선호출 등 그 용도가 매우 다양하여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다.

1960년의 전보 취급 현황을 보면, 평택군 전체 10,311건, 1961년은 평택군 전체 19,818건으로 나타나, 1년 사이에 우체국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우체국의 업무중에서 전신 · 전화 분야는 그 범위가 커짐에 따라 확장되어, 1972년 5월 14일 시내전화 방식채택, 1979년 12월 23일 평택군 광역전화통신 개통, 1982년 1월 1일 한국전기 통신공사 서울지사 평택사업소가 개소하였으며, 1983년 1월 1일 평택 · 송탄 각기 전신전화국으로 승격되었고, 1985년 7월 1일 반전자식 13,500회선을 개통하였고, 1986년 9월 1일자로 1급국으로 기관승격하여 1999년 1월 1일 송탄전화국이 흡수 통합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국내전보취급 현황]

연 별	총 계	발 신			수 신		
		계	유 료	무 료	계	유 료	무 료
1995	79,791	19,183	19,159	24	60,608	66,601	7
1996	102,964	26,058	26,044	14	76,906	76,902	4
1997	108,965	15,962	15,948	14	93,003	92,997	6
1998	76,537	7,718	7,708	10	68,819	68,811	8
1999	73,676	5,889	5,886	3	67,787	67,783	4
평택	44,517	4,872	4,869	3	39,645	39,643	2
송탄	29,159	1,017	1,017		28,142	28,140	2

(2) 전화

1920년 3월 2일부터 우체국에서 개국하여 현재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정보 · 통신 · 인간의 융화를 기업이념으로 「한계에 도전하는 세계첨단기업」「가치를 창출하는 종합통신사업」「고객과 함께 하는 인간중시경영」 실천을 바탕으로 깨끗한 통화품질,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는 21세기 텔레토피아를 실현하는 기반입니다.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내, 시외, 국제전화 교환시설의 다원화, 전송로의 디지털화, 광케이블화를 추진하는 등 기본통신시설을 선진화하여 21세기 광대역 종합정보 통신망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구촌의 주역으로 세계를 향해 보다 세련되고 알찬 국제전화 통화품질을 위하여 '97년 2월에 메추 해저광케이블을 개통하여 국제전용회선, 국제프레임릴레이, 국제페킷교환, 인말세트통신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와 '월드폰카드', 'KT카드'의 취급지역을 확대하였다. 또한 자유로운 무선통신을 위하여 연구 및 투자를 음성, 데이터,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위성휴대통신 및 차세대 이동통신서비스를 위하여 2000년도부터 연구개발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앞으로는 세계경쟁이라는 거친 물결 위에서도 한국형 통신문화라는 깃발을 내걸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며, 국민복지통신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평택지점의 시설현황은 다음과 같다.

1 교환시설

1998년 12월 말일 현재 평택지역의 시설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기종	시스템수	시설수	계약자수	수용율(%)	비고
계		9	186,648	153,724	82.36	
평택전화국	M10CN	1	28,000	22,315	79.69	
	TDX-1B	1	21,700	17,937	82.65	
	TDX-10A	1	26,300	18,109	68.85	
송탄전화국	M10CN	1	29,100	24,060	82.68	
	TDX-1B	1	20,000	18,045	90.23	
	TDX-10A	1	29,328	22,111	75.39	
안중분국	TDX-1B	2	19,020	20,019	68.98	
팽성분국	TDX-1B	1	13,200	11,128	84.30	

② 선로시설

시내케이블(㎞)	시외, 국간 케이블(㎞)	광케이블(㎞)	관로(㎞,공장)	인수공(기)	전주(본)	단자함(개)
2,152.1	134.8	232.7	4,187.4	5,420	27,658	17,029

③ 전송시설

합계(시설/운용)	PCM(시설/운용)	광단국(시설/운용)
120,582/91,527	18,726/8,842	101,856/82,685

평택전화국

▮ 평택전화국

(1) 연혁

- 1982. 1. 1 한국전기통신공사 서울지사 평택사업소 개소
- 1986. 1. 1 평택전화국 1급국 승격
- 1999. 1. 1 송탄전화국 흡수통합
- 1999. 7. 1 안성전화국 흡수통합

(2) 영업구역

구역	지역	시	동	읍 · 면	가구수(천)	인구수(천)
평택시 안성시	계	2	16	21	159	495
	본국	1	13	9	44	133
	일반국	1	3	12	115	362

○면적: 977.17㎢ → 수도권강남본부 4,403㎢의 22.2% : 2위

(3) 조직 및 인원

• 편제 : 일반국 2국 (송탄 · 안성), 1분국(안중) 2부15과

※ 분기국사 47개소

• 인원 : 303명

(4) 재원 규모

1 예산

(단위: 백만 원)

구 분		1998년	1999년	증감율(%)
수 입	계	112,123	98,598	▽13.7
	영업수익	109,667	97,579	▽12.4
	영업외 수입	2,456	1,019	▽141.0
지 출		18,485	17,230	▽7.3

2 자산

구분	유동자산	고정자산	합계	비고
가치	12,028	113,413	125,441	

(5) 통신시설

1 전화회선

구분	시설수	계약자수				수용율(%)
		일반 전화	사 업 용	공중 전화	계	
계	235,362	210,948	1,912	5,921	218,781	92.9
본국(안중)	110,820	99,254	839	2,819	102,912	92.9
송 탄	68,848	63,303	757	1,612	65,672	95.4
안 성	55,694	48,391	316	1,490	50,197	90.1

2 정보통신

구 분	ATM	HINET-P	CO-LAN	KORNET	전용회선	ADSL
계	231	335	164	266	13,890	26,440
본 국	121	312	100	266	6,858	13,272
송 탄	53	6	64	-	3,733	9,878
안 성	57	17	-	-	3,299	3,290a

평택우체국

(1) 연혁

- 1920. 3. 2 평택우편소 개소
- 1948.10. 1 평택우체국으로 개칭
- 1987. 7. 10 현 청사준공
- 1997. 7 . 1 과편제 신설 및 소속국 편입 (3과 1실)
- 1999. 4. 1 송탄우체국 관서급조정에 따른 관내국 편입

(2) 편제 및 인원

① 편제

국 장

자국 : 2과, 1실	관내 : 19소속국, 7취급소
영 업 과 우 편 물 류 과 마 케 팅 지 원 실	6급국(9) : 안중, 오성, 평택합정동, 평택비전동, 평택비전2동, 평택중앙동, 제309군우 800군우, 송탄 7급국(4) : 청북, 평택본정, 수원지법평택지원, 평택송탄공단 별정국(6) : 팽성, 포승, 현덕, 진위, 서탄, 경기고덕 취급소 : 안정, 서정, 하북, LG전자, 세교동, 이충동, 평택대

② 인 원

(단위 : 명)

계		자 국		관 내		비 고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178	173	55	55	123	118	

(3) 역대국장 재임기간

연번	성 명	재임기간	비 고
1	정종백	'94. 02. 01～'95. 10. 01	
2	이점식	'95. 10. 02～'97. 06. 30	
3	김남철	'97. 07. 01～'98. 12. 31	
4	정 완	'99. 01. 01～현재까지	

(4) 우편물현황

(단위 : 건)

구분 / 연도	총계	접 수				배 달			
		계	보통	특수	소포	계	보통	특수	소포
1997	22,386	8,166	7,285	816	65	14,220	13,319	831	70
1998	22,326	7,641	6,611	964	66	14,685	13,778	844	63
1999	31,431	9,838	8,716	1,043	79	21,593	20,274	1,216	103
2000	36,466	10,792	9,555	1,135	102	25,674	24,147	1,405	122

(5) 실적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우정사업수익	예금연평잔고	보험계약고	비 고
1999	4,732,078	76,093,289	138,240,952	
2000	4,962,602	98,955,569	198,018,861	

(6) 일반 우체국 현황

연번	우체국	주소	직원수	비고
1	송탄우체국	평택시 지산동 753-1	26명	
2	안중우체국	평택시 안중면 안중리 246-10	15명	
3	평택중앙동우체국	평택시 서정동 33-6	6명	
4	평택합정동우체국	평택시 합정동 829-2	4명	
5	평택비전동우체국	평택시 비전2동 819-3	4명	
6	평택비전2동우체국	평택시 비전2동 878-4	5명	
7	오성우체국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186-1	4명	
8	제309군사우체국	평택시 신장동	3명	
9	제800군사우체국	평택시 포승면 원정7리 산109-53	3명	
10	평택청북우체국	평택시 청북면 현곡리 299-26	3명	
11	평택본정우체국	평택시 팽성읍 본정리 98-5	3명	

연번	우체국	주소	직원수	비고
12	평택송탄공단우체국	평택시 모곡동 442-6	4명	
13	평택지원우체국	평택시 동삭동 150-2	3명	
14	팽성우체국	평택시 팽성읍 근대리 256-6	11명	
15	경기고덕우체국	평택시 고덕면 좌교리 387	4명	
16	현덕우체국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산3	6명	
17	포승우체국	평택시 포승면 내기리 1-13	6명	
18	서탄우체국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244	4명	
19	진위우체국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 186	9명	

(7) 주요 취급업무

▮ 평택우체국 전경

○ 우편

· 국내우편(통상, 소포, 민원우편, 전자우편, 우편 주문판매, 경조우편카드)

· 국제우편(통상, 소포, 국제특급)

○ 우체국금융

· 온라인환, 경조환서비스, 우편대체, 자기앞수표,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 전 파

· 간이무선국 허가

○ 통신

· 사용전 점검검사

○ 수탁업무

· 공중전화카드, 각종복권, 제세공과금수납, 주유권, 소포상자, post shop

평택시청

(1) 정보화 분야

정보화는 21세기 생존과 번영을 위하여 반드시 해야되는 필요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고 정보화 추진으로 삶의 질 향상, 행정능률 제고 등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고 있으며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택시지역정보화 촉진조례('99. 1. 18 제376호) 및 평택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규정('99. 6. 29 제108호)을 제정하였다.

지식정보화 사회로 급속한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효율적인 행정정보화와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99년도에는 정보화사업 관련 예산 1,455백만 원을 투자하여 각종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주요 정보화 사업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 컴퓨터 2000년문제(Y2K) 해결 ····· 102건
- 공무원 1인 1PC 보급 ····· 1,208대
- 근거리통신망(LAN) 보급 ····· 335개소
- 정품 S/W 보급 ····· 17종, 2,151본
- 정보화교육실시 ····· 1,321명
- 인터넷홈페이지 확대구축 운영 ····· '99. 5. 1
- GIS 사업을 위한 1/000 수치지도 제작 ····· 54.75㎢
- 수치지형도 활용 장비 및 S/W 도입 ····· 1식
- 지리정보시스템 추진관련 원시자료 정비 ····· 31종 21,402건
- 지방행정정보은행(LAIB) 인터넷 서비스 ····· '99. 10. 13
- 시 자치법규 인터넷 서비스 ····· '99. 10. 13
- 무료 인터넷 부스설치 운영 ····· 3개소
-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류 발급 ····· 호적 등 24종

① PC 보급현황

(단위 : 대)

구 분	계	686이상	586	486이하	비고
계	1,208	169	679	360	
본 청	456	79	271	106	
직속기관	149	19	98	32	
사 업 소	103	20	59	24	
출 장 소	176	21	106	49	
읍 면 동	324	30	145	149	

② 근거리통신망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업무명	계	일반 업무용	지방세 업무용	비고
설 치 수	335	246	89	

③ 전산업무용 회선현황

회선명	계	주민등록	자동차 관리	부동산 관리	근거리 통신망	인터넷	지방세	기타
회선수	97	28	1	5	9	1	35	18

④ 정보화교육 현황

○공무원

(단위 : 명)

구 분	계	본 청	농업기술센터	송탄출장소	외부기관	비 고
인 원	638	442	143	17	36	

○시민

(단위 : 명)

구 분	계	본 청	농업기술센터	여성회관	기타(위탁)	비 고
인 원	683	191	309	163	20	

⑤ 주전산기 현황

- 기 종 : 국산주전산기(타이컴) Hiserver-6420(현대전자)
- 규 모
  - CPU : MC68040(40MHZ) 2장 - MEMORY : 256MB 1장
  - IOP : MC68030(256MHZ) 2장 - HDD : 2.5GB 4장
- 활용업무
  - 전자우편시스템, 지방예산회계관리, 지방행정정보은행, 상하수도요금관리

⑥ 평택시 인터넷 홈페이지 현황

- 확대개편일 : '99. 5. 1
- 주 소 : http://city.pyongtaek.kyonggi.kr
- 접 속 자 수 : 48,530명('99. 12. 31 현재)
- 시스템구성
  - 운영체제 : Windows NT 4.0
  - DBMS : SQL Server 7.0
- 전용선속도 : 512Kbps
- 주요내용
  - 한 글 : 10개분야(406개의 세부항목 500페이지)
    시장실, 열린행정, 평택시의회, 시민생활, 문화관광, 산업경제,
    보건복지, 자치법규, 통계연보, 링크, 사이트맵
  - 영 문 : 7개분야(32개의 세부항목 150페이지)
    시장실, 일반현황, 행정, 의회, 문화관광, 산업경제, 사이트맵, 방명록

(2) 통신분야

행정통신망은 시청(STAREX-LDI : 1000회선), 송탄출장소(STAREX-LDI : 400회선)의 구내 자동교환기를 각각 설치 운영중이며, 시 ↔ 송탄출장소간의 E/M 15회선과 사업소, 읍 · 면 · 동, 유관기관 등 TD 400여 회선의 전용선으로 전화 및 FAX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97년 10월 시 ↔ 도간 초고속종합통신망(MUX)구축으로 전화 · FAX · 데이터회선을 수용하고, '98년 10월 시 ↔ 도간 영상회의 시스템과 '98년 12월 행정시외교환망(전국단일망)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통신기기 설치 현황]

(단위 : 대)

구분	교 환 기		FAX동보기		FAX	MUX	키폰(식)	행정시외교환기(식)
	기종	대수	음성	FAX				
합 계		2	-	2	113	1	33	1
본 청	STAREX-LD	1	-	1	34	1	9	1
송탄출장소	STAREX-LD	1	-	1	12	-	2	
읍 · 면 · 동					67		22	

1 행정통신관리

정보화사회에 적극 대처하고 정보통신분야의 발전에 따라 통신망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선진행정 기반을 구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PC 등 정보기기의 확산과 통신망의 발달로 세계는 지금 정보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의 실현 없이는 선진경제의 정착, 균형적인 지역발전, 효율적인 작은 정부의 구현도 불가능하며, 정보화 사회는 우수한 통신망과 정보산업을 필요로 한다. 21세기가 도래하면서 영상회의, 영상전화 등 영상통신이 보편화될 것이며,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융합된 고도의 정보화 사회가 다가오게 된다. 평택시는 이에 적극 대처하여 다음과 같은 많은 행정통신의 발전을 하게 되었다.

평택시의 행정통신 발전은 1960년대 자석식교환기에서 1970년대는 공전식교환기, 1980년대는 ST기계식자동교환기를 거쳐 1990년에는 전자식자동교환기로 경기도청과 사업소, 출장소, 읍 · 면 · 동, 유관기관 등에 E/M과 T/D전화망을 구성하여 신속한 행정 업무에 대처하고 있다. 또한 도 ↔ 시간 문서수발을 위하여 1970~1980년대까지 텔레타이프(인쇄전신기)를 사용했다.

통신의 발달로 1990년부터 모사전송기(FAX)로 대체 사용하면서 1992년도부터 읍 · 면 · 동까지 확대운영하므로 신속한 행정업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1997년에는 시 ↔ 도간 초고속국가통신망(다중화장비)을 구축하여 전화, 모사전송(FAX), 데이터통신을 수용, 사용하였으며, 1998년에는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 시-도간 영상회의와 행정시외 교환망은 물론 시청, 출장소, 읍 · 면 · 동 일반전화민원 FAX를 행정FAX로 대체하여 초고속통신망을 이용 전국단일통신망을 구축하여 회선료와 시외전화요금 절감은 물론 고품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또한 1998년 전국 단일방재 무선망이 설치되어 비상통신과 재난 재해시 신속한 업무처리를 할수있다.

앞으로 위성통신망을 이용 더욱 신속, 정확하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에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전력(경기지사 평택지점)

(1) 연혁

- 1926. 9 : 천안전등(주) 평택출장소로 발족
- 1937. 10 : 남선전기(주) 천안지점 평택출장소로 개편
- 1961. 7. 1 : 한국전력(주) 충남지점 평택출장소
- 1965. 3. 20 : 한국전력(주) 충남지점 평택영업소로 승격
- 1970. 7. 7 : 한국전력(주) 수원지점 평택영업소
- 1971. 7. 31 : 인천지점 평택영업소로 소속 변경
- 1972. 3 : 수원지점 산하영업소로 소속 변경
- 1982. 1. 1 : 경기지사 평택지점(Ⅲ)으로 승격
- 1983. 10 : Ⅱ급 지점으로 승격
- 1985. 5. 20 : 현 사옥으로 이전
- 1987. 2. 11 : Ⅰ급 지점으로 승격

(2) 기구 및 정원 현황

1 기구

② 인원

구 분	간부직	사무직	기술직	기능직	별정직	계
정 원	12	16	10	30	13	81

④ 역대 지점장 및 재임기간

구 분	직 급	성 명	재임기간	비 고
1대	3	이승석	1961. 7 ~ 1965. 3	
2대	3	이만기	1965. 4 ~ 1968. 4	
3대	3	박병호	1968. 5 ~ 1968.11	
4대	3	박희발	1968.12 ~ 1969. 2	
5대	3	원성중	1969. 3 ~ 1970. 6	
6대	3	최영선	1970. 7 ~ 1971. 7	
7대	3	한태희	1971. 8 ~ 1972. 4	
8대	3	이창문	1972. 5 ~ 1972.11	
9대	3	김시벽	1972.12 ~ 1974. 7	
10대	3	유수원	1974. 8 ~ 1975. 2	
11대	3	윤재열	1975. 3 ~ 1977. 2	
12대	3	박광우	1977. 3 ~ 1979. 4	
13대	3	이우재	1979. 5 ~ 1980. 7	
14대	3	임용태	1980. 8 ~ 1982. 5	
15대	3	박찬광	1982. 6 ~ 1983.10	직무대행
16대	2	김실근	1983.11 ~ 1984. 5	
17대	2	윤정로	1984. 6 ~ 1986. 7	
18대	2	구용회	1986. 8 ~ 1987. 2	
19대	1	송성복	1987. 3 ~ 1989. 4	
20대	1	김웅재	1989. 5 ~ 1991. 4	
21대	1	김동규	1991. 5 ~ 1992. 1	
	2	조병두	1992. 2 ~ 1992. 5	
22대	1	임채중	1992. 6 ~ 1993. 4	
23대	1	전인덕	1993. 5 ~ 1994. 1	
24대	1	김주천	1994. 2 ~ 1996. 1	
25대	1	이용호	1996. 2 ~ 1997. 4	
26대	2	김환호	1997. 4 ~ 1998.11	
27대	2	조성희	1998.12 ~ 현 재	

(3) 업무 현황

1 관할 행정구역

○ 관할 구역 : 평택시 전역(1읍 8면 14동)

○ 면적 및 인구 : 452㎢, 35만 명

2 영업 현황

구 분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기타	계
고객호수	호수	89,577	14,916	1,883	8,028	4,607	118,011
	점유율	75.9	12.6	1.6	5.9	4.0	100
판매량 (월)	MWh	21,772	20,398	133,956	9,330	6,192	191,648
	점유율	11.4	10.6	69.9	4.9	3.2	100
판매수입 (월)	백만원	2,165	2,200	7,753	307	319	12,744
	점유율	17.0	17.3	60.8	2.4	2.5	100

3 배전설비 현황

배전선로	선로긍	지지물	개폐기	주상변압기	
(Feeder)	(km)	(본)	(개)	대수	용량(KVA)
49	2,710	57,712	830	13,498	459,000

▮ 한전 평택지점

관광 · 레저

제3절

1. 개관

우리나라 중서부의 경기도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평택시는 동은 안성시, 남은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를 접경하고 동북으로는 용인시, 서북은 화성군과 접한 2도 5개 시 · 군과 인접하고 있는 경기도 최남단의 관문이다. 평택시의 면적은 451.55㎢로 대구광역시의 면적과 유사하고 서울시 면적의 3/4정도이며, 인구는 1999년 12월 말 현재 348,502명이다.

평택시는 1995년 5월 10일 평택시, 송탄시, 평택군이 통합되어 도농복합도시가 되었고, 도농통합에 따라서 도시계획법 대상지역인 도시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대상지역인 농촌지역이 상존하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 평택은 수도권 정비계획상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3대권역 중 성장관리권역에 포함되어 있어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빠른 성장이 예상되며, 수도권 남부거점도시로서의 중추관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평택지역에 위치한 평택항은 환황해권의 중심항으로 세계 제 3대 경제권으로 급부상된 동북아(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 중심에 위치하여 세계물류 및 국제종합무역의 중심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또한 중국을 연결하는 카페리가 운항될 예정이어서 중국의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최적의 관광 · 레저지역으로 자리를 잡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 전철이 2002년 수원에서 평택을 거쳐 천안까지 연장됨으로 인하여 짧은 시간 내에 수원과 통합되어 서울에서의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이 될 것이다. 한편 경부선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중

▮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으로 평택은 서울에서 1시간 생활권에 접어 들었다

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가 2002년 완공될 예정이어서 교통이 편리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접근성이 뛰어난 관광 · 레저지역으로 성장할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있는 지역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적 이점을 바탕으로 평택지역은 평택호관광지 종합레포츠타운 건설계획을 갖고 국내외 투자자들과 활발한 협상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평택시는 주한미군이 있는 송탄지역을 1997. 5. 30 관광특구로 지정하게 하여 타 지역보다 관광산업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고, K-6, K-55 등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특수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서울의 이태원과 같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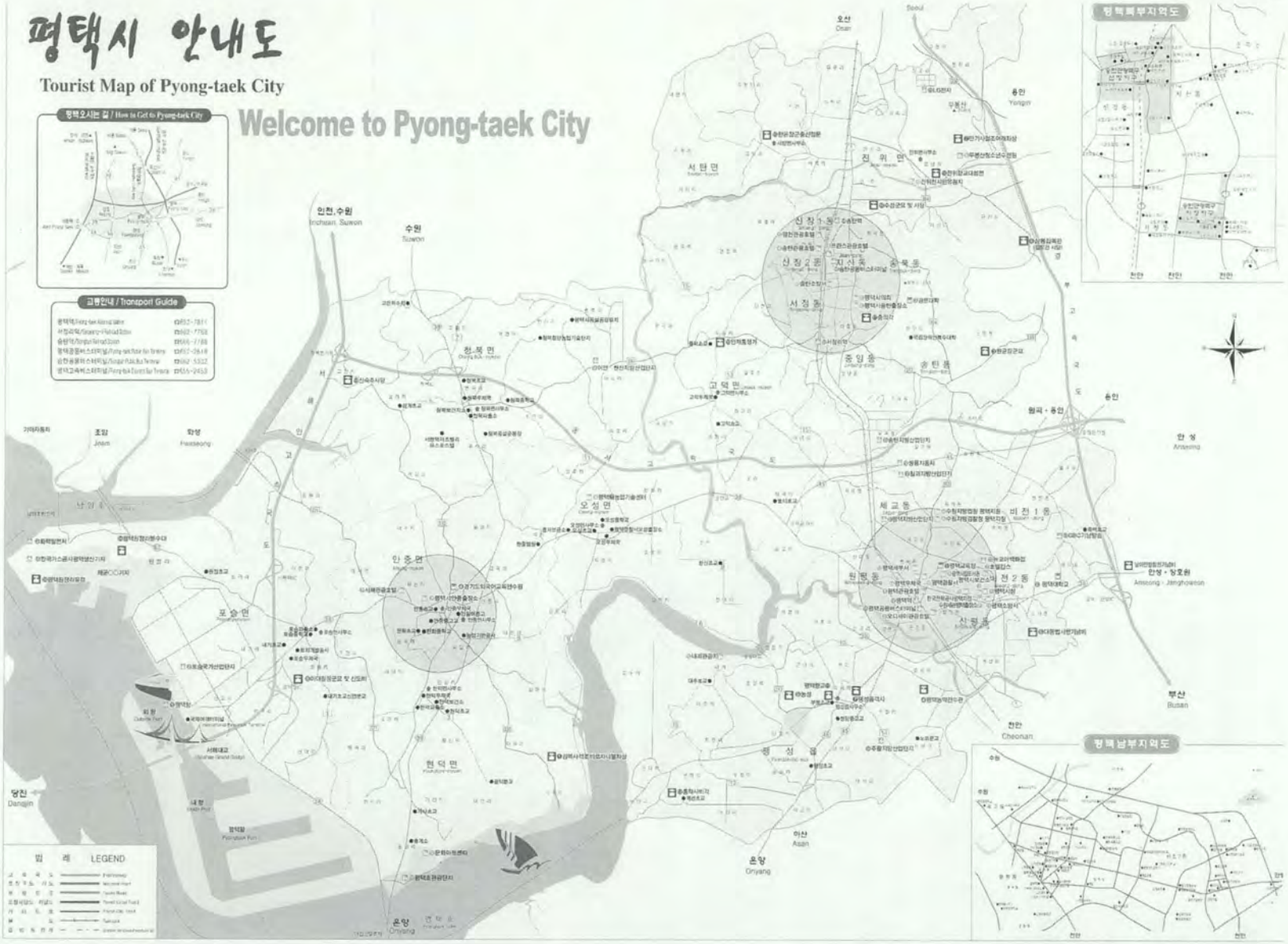
2. 관광자원의 현황

현대의 관광은 기본적으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관광자원과 풍속 · 행사 · 생활 · 예술 · 교육 · 스포츠 · 오락 · 산업을 포함하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역사 문화유산은 조상들이 살아온 삶의 궤적으로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다. 하지만 문화적 관광과 사회적 관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21세기 평택시 관광개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평택지역이 갖고 있는 관광자원의 중요성과 다양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맥락 아래에서 평택의 대표적인 종류별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 현황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1) 평택시 종류별 관광자원 현황

평택시는 역사적으로 훌륭한 문화유산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문화관광자원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또한 잘 보존되어 있다. 각종의 문화재는 평택시민의 삶의 터전과 가까이 하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문화시민의 자긍심을 느끼게 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 면에서는 평택은 평지가 많아 자연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타 지역과 비교해 다소 적은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다.


평택시 안내도
Tourist Map of Pyong-taek City
Welcome to Pyong-taek City
평택오시는 길 / How to Get to Pyong-taek City
교통안내 / Transport Guide
평택북부지역도
평택남부지역도
범 례 LEGEND
인천,수원
Incheon, Suwon
수원
Suwon
오산
Osan
용인
Yongin
서탄면
진위면
신장1동
신장2동
지산동
송북동
서정동
중앙동
송탄동
고덕면
청북면
원곡·송탄
안성
Anseong
조암
Joam
화성
Hwaseong
오성면
안중면
포승면
현덕면
세교동
비전1동
원평동
전2동
신평동
안성·장호원
Anseong · Janghowon
부산
Busan
천안
Cheonan
평택
Pyeongtaek
당진
Dangjin
내항
Inner Port
외항
Outer Port
평택항
Pyeongtaek Port
서해대교
Seohae Grand Bridge
행정동
아산
Asan
온양
Onyang

[표 1 종류별 관광자원 현황]

구 분		문화재 및 관광자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심복사 석조 비로자나불 좌상, 만기사 철조여래상, 원릉군 원균 선무공신교서
	주요무형문화재	평택농악
지방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	대동법시행기념비, 삼봉집 목판, 팽성읍객사
	기념물	이대원 장군묘 및 신도비, 원균 장군묘, 농성, 민세 안재홍 생가
	민속자료	원정리 봉수대, 정도전 선생 사당, 한온 장군 충절정문, 수성군 사당, 충의각
문화재 자료		평택향교, 홍학사비각, 진위향교 대성전
관광자원		평택호 관광지, 송탄관광특구, 진위천 시민 유원지, 평택항,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

2) 관광레저명소 현황

평택의 관광레저 명소 현황을 역사 · 문화유적관광지, 관광레저유원지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역사 · 문화 유적관광지

평택은 다양한 역사 · 문화유적관광지를 갖고 있으며 이것을 정리해서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 좌상

현덕면 덕목리 심복사내에 소장되어 있는 석조비로자나불 좌상은 보물 565호로 왼손을 밑으로 지권인을 결한채 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한 자세로 앉아 있는 모습이다. 이 불상은 비교적 볼륨이 있고 단정한 모습의 우수한 상으로 경기도에서는 드물게 보는 통일신라시대의 석불이다.

2 만기사 철조 여래좌상

진위면 동천리 무봉산 기슭에 위치한 만기사는 942년(태조 25) 남대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하나 동천리 부근에 있었던 당초 지은 절은 없어졌으며 최근에 지어진 것을 1993년 대웅전 이전 중창한 것이다. 보물 제567호인 철조여래좌상은 고려시대 불상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철불상의 하나이다. 이 불상은 양수와

오른쪽 팔은 원래 별도로 주조된 것이었으나 지금은 절단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으며 현재의 것은 새로 조성된 것이다.

▮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제11-나호인 평택농악은 유희성이 뛰어나 관광상품으로 매우 가치가 높다

③ 원릉군 원균 선무공신교서

원릉군 원균선무공신교서는 1604년(선조 37)에 발급된 것으로 임진왜란 및 정유재란이 끝난후 나라에서 공이 있는 장수들에게 내리는 녹훈봉작교서의 하나로서 원릉군 원균을 선무 1등 공신으로 하여 증직을 내리는 문서이다. 이 교서는 국내에서 발급된 선무공신교서중 1등공신교서로 유일한 것이며 그 역사성과 희귀성을 인정받아 보물 1133호로 지정되었다.

④ 평택농악

평택지방은 드넓은 벌판을 배경으로 농업이 발전하여 왔으며 따라서 자연히 농악도 함께 발달해 왔다. 또한 경기 · 충청지방에는 예로부터 전문 연희패가 발달해 왔는데 특히 걸립패가 가장 늦게까지 남아 활동하였다. 전문 연희패의 영향을 받아 더욱 발전해 오던 평택농악은 인근의 안성 · 화성 등지와 함께 농악의 중심 역할을 해오던중 1985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받으면서 명실공히 웃다리가락의 대표적인 농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⑤ 대동법시행기념비

소사동에 위치한 대동법시행기념비는 유형문화재 제 40호로 조선 효종 때 김육이 충청감사로 있을 때 공부의 불균형과 부역의 불공평을 없애기 위하여 호서지방에서 실시한 대동법이 좋은 성과를 거두자 대동법 시행을 만인에게 알리며, 백성을 생각하는 그 덕을 기념하기 위하여 1659년(효종 10)에 이곳에서 남동쪽 약 50m 지점 언덕에 세웠던 것을 1970년대에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

⑥ 삼봉집 목판

진위면 은산리에 위치한 삼봉집 목판본은 고려말 조선초 학자이자 문신인 조선 개국의 원훈, 삼봉 정도전의 시문 및 저술을 모은 삼봉집의 목판이다. 현재 사당 정문옆 보호각에 보관되어 있는 삼봉집 목판본은 본래 대구에 보관중이던 것으로 1912년 진위면 은산리에 사당을 건립하고 옮겨 보관해 오고 있는 것이며 1986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32호로 지정되어 문중의 관리를 받고 있다.

7 팽성읍 객사

팽성읍 객사리에 위치한 팽성읍 객사는 유형문화재 제127호로 이 건물은 조선시대 팽성현의 객사로 원래는 작은 규모였던 것을 현종 때 크게 중창하였고 다시 1760년(영조 36)과 1801년(순조 1)에 중수된 것이다. 현재는 대문간채와 본채가 남아있는데 본채는 전체 9칸 가운데 3칸은 중대청이고 좌우에 동서헌이 각각 3칸씩이다.

8 이대원 장군묘 및 신도비

포승면 희곡리에 위치한 이대원 장군묘는 경기도 지방문화재 제56호로 1587년(선조 20)남해안에 출몰하는 왜구를 정벌하여 큰 공을 세웠으며 흥양에 침입한 왜구를 토벌하기 위하여 적은 수의 군사로 손죽도 해상에서 적과 싸우다 포로가 되었으나 끝까지 항거하다 사망하였다. 정문 앞에 세워져 있는 신도비는 1699년(숙종 25)에 건립되었으며 비를 받치고 있는 대좌에는 물결무늬가 조각되어 있고 비에는 왜구를 물리친 장군의 공적이 잘 기록되어 있다.

9 원균장군묘

도일동에 위치한 원균장군의 묘는 경기도 지방기념물 제57호로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상우도 수군절도사로서 처음 옥포해전에서 이순신장군에게 구원을 요청하여 왜선 30여 척을 무찔렀다. 그 후 합포해전, 적진포해전 등 여러 차례에 걸친 크고 작은 해전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1597년 칠전량해전에서 전사하였다. 1604년에 권율, 이순신과 함께 선무 1등 공신에 추록되었다.

10 농성

팽성읍 안정리에 위치한 농성은 경기도 지방문화재 103호로 이 성의 축성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삼국시대에 도적 때문에 쌓았다는 설, 신라말기 중국에서 건너온 평택 임씨 시조인 임팔급이 축조하여 생활근거지로 삼았다는 설, 고려때 해안으로 침입하는 왜구 방어를 위하여 또는 중기 임진왜란때 왜적을 막기 위해 쌓았다는 설 등이 있다.

11 안재홍 생가

고덕면 두릉리에 위치한 안재홍 생가는 기념물 제135호로 해방을 전후한 시기에 시대의 선구자이며 대표적인 언론인으로 활동하였던 민세 안재홍이 살던 곳이다. 가옥은 원래 대문간채까지 있었던 것이나 지금은 안채와 사랑채만 남아있다. 건물

상량문에 의하면 안채는 1914년 사랑채는 1932년에 건립되었다.

⑫ 봉수대

포승면 원정리에 위치한 봉수대는 봉화재 또는 용수로 불리우며 조선시대 서남쪽 봉화의 주요 직봉을 이루었던 순천봉화와 연결을 가지며 서해안의 왜적 침입을 알리게 하는 등 군사적 통신수단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해발 250m 지점 산정에 설치되어 봉화수가 상주하며 화성군 우정면 조암리 쌍봉산과 충남 당진군 면천면, 아산시 인주면 신창봉화와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⑬ 정도전 사당

진위면 은산리 기동부락에 정도전 사당이 있다. 정도전은 조선의 개국공신이며 자는 종지, 호는 삼봉, 시호는 문헌, 본관은 봉화, 형부상서 운경의 아들, 이색의 문하에서 정몽주, 이존오 등과 교우하면서 경사를 강론하였는데 특히 문장과 성리학에 능하였다. 문집으로 삼봉집이 있으며 봉화정씨 종중에서 정도전의 위패를 모시고 매년 제사를 지낸다.

⑭ 한온 장군 충절정문

서탄면 금암리에 위치한 한온 장군 충절정문은 조선 명종(1555)에 일어난 을묘왜변때 전라도 장흥부사로 재직중 왜구와 싸우다 장렬한 최후를 마친 한온장군의 애국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사당 안에 걸린 현판에는 창자는 쇠붙이와 같고 쓸개는 돌과 같아라 그 마음은 오직 나라에 바쳤도다라는 기록은 두고두고 후세를 일깨우는 애국심과 순절의 교훈이 되고 있다.

⑮ 수성군 사당

독곡동에 위치한 수성군 사당은 조선 세조때 무관으로 명성이 높았던 수성군 최유림(1426~1471) 장군의 사당이다. 최유림 장군은 24세에 무과에 급제하고 1455년 좌익원종공신 3등이 되었으며 1464년 중추원 부사, 1466년 전라도 처치사 등을 지냈다. 사당은 500여년 동안에 10여 회 중수된 후 1982년 11월 중건되어 오늘에 이른다.

⑯ 충의각

이충동에 위치한 충의각은 조선 중종때 인물인 정암 조광조(1482~1519)선생과 인조때 인물인 추담 오달제(1609~1637) 선생의 넋이 담겨있는 유허지비를 보존하

는 비각이다. 유허지비는 당시 진위유림에서 어릴 때 조광조 선생이 학문을 배우며 지냈던 곳이자 삼학사의 한분인 오달제 선생의 옛집이 있던 곳에 비를 세울 수 있도록 나라에 소를 올려 허가를 얻고 1800년 세우게 된 연유를 지닌다. 이 두 분으로 인하여 이충동이란 마을명이 있게되었다.

⑰ 평택향교

팽성읍 객사리에 위치한 평택향교는 창건연대는 분명하지 않고 다만 조선 초기라 전하여 지고 있다. 대성전과 내삼문을 비롯하여 동 · 서제와 명륜당이 있다. 외삼문은 일제시 농림도장으로 사용키 위하여 철거되었다가 1979년 4월 23일 당시 전교 박세홍이 유림의 협찬으로 복원되었다.

⑱ 홍학사 비각

홍익한께서는 1586년 조선선조 19년에 현 팽성읍 본정리에서 남양홍씨 진사 홍이성의 아들로 출생하였으며 유년기에는 서울마포에서 자랐다. 자는 백승 호는 화포, 본관은 남양이다. 현재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에 있는 현절사에 위패가 모셔져 있고 현재의 비각은 1964년 본정리 삼거리변에 있었던 것을 1983년 11월 현 위치로 이전 건립한 것이다.

⑲ 진위향교

진위향교는 조선초기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창건유래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다.

1923년 중수한 기록이 남아있으며 향교입구에는 홍살문과 외삼문이 있다. 홍살문을 지나 좁은 계단을 오르면 우측에 명륜당이 있는데 정면이 4칸, 측면이 2칸에 면적은 13.79평이다.

(2) 관광 · 레저 유원지

평택의 관광 · 레저유원지는 다소 적으며 관광 · 레저유원지 현황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 평택호 관광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일원에 위치한 평택호 관광지는 총면적 676,073㎡이고 조성면적은 292,199㎡이며, 충청서부 해안권과 방조제로 연결되는 경기남부의 관문에 위치하여 호수와 바다를 동시에 관망할 수 있는 천연적 자연여건을 갖추

고 있다. 평택항 개항 및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수도권과 중부권의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관광지이다. 또한 평택호 관광지는 방조제를 사이에 두고 바다와 호수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천연적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어 평택항, 충남 삽교유원지, 아산온천, 서해대교, 현충사, 독립기념관을 잇는 관광코스 개발로 보는 관광에서 즐기고 체험하는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호반 및 해변사이에 장방형 완경사 구릉지를 이루고 있으며 표고 15m 이상은 대부분 수림대를 이루고 있고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한서의 차이가 비교적 적으며, 기온은 최고 30°C, 최저 -13°C로 사계절 휴양지로 최적의 기온조건을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레저 관광지이다. 평택호관광지내 수림은 전반적으로 온대림에 속하며 대부분은 침엽수이나 약간의 활엽수와 혼합림을 이루고 있고 표고 15m 이상의 지대에는 7~8m의 송림과 활엽수가 군락을 이루어 기존 수림대와 조경시설 지역내 수림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

▮ 평택호는 수상스포츠를 즐기기에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평택호에서 요트를 즐기는 장면)

*

▮ 수도권 주민의 낚시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 평택호(팽성읍 내리)

*

▮ 평택호관광지(항공사진)

저수량은 9,890만 톤으로 평택호의 풍부한 수량과 256㎞의 방조제 주변의 울창한 수목이 어우러진 수변형 관광지로 충분한 휴식공간, 편리한 교통 등 수도권 및 중부권의 레저 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최적의 휴양지로 손꼽히고 있다.

평택호 관광지는 주변의 자연적 관광자원과 서해안시대 개막에 따른 개발가능성을 무한히 보유하고 있어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1977년 면적 76,073㎡로부터 시작하였고 재차 1982년부터 관광지개발을 시작하여 현재 292,199㎡를 관광지로 개발하였으며, 조성계획 미수립지역 383,874㎡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 개발하고 있다.

교통현황은 서울, 인천→서평택(I · C)를 잇는 서해안고속도로를 거쳐 평택호 관광지와 연결되며 서울, 인천→수원→안중→평택호관광지→충남으로 연결하는 39번 국도와 안성→평택→안중-평택호관광지를 잇는 38번 국도 등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

평택시는 문화아트캠프건립을 통하여 전시 · 공연 · 학습장 등의 상징건물을 완성하여 시민, 학생, 국내외 예술인이 모여 각 장르별 문화예술캠프를 운영하여 평택의 문화산실을 확보하고 외지인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게 하고 있다. 또한 평택호 관광지를 경정장 및 테마파크 설치, 수변데크 확장설치, 벚꽃 명소화 추진 등으로 볼거리를 제공하는 관광지로 개발해 가며, 평택항과 연계하여 기념타워 건립 등을 통하여 평택호 관광지를 전국적인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에 있다

또한, 앞으로 평택호를 종합레포츠타운으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즉 평택호 주변의 수려한 경관을 활용하고, 경정 경기장 등 기존의 관광시설과 차별화된 독특한 스포츠를 겸한 수륙종합레포츠 타운을 개발하여 수도권과 중부권의 늘어나는 레저인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에 있다. 그리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지방화 시대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경정경기장, 행글라이더장, 수상스키장, 눈썰매장, 골프장, 위락시설 등의 레포츠 시설과 호텔, 모텔, 콘도미니엄 등의 숙박시설, 쇼핑몰, 전문식당 등이 포함된 상가시설, 청소년 수련장, 노인휴양시설 등의 휴양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2 송탄관광특구

평택시 송탄관광특구는 1997년 5월 30일 문화체육부 고시 1997-33호로 평택시 신장1 · 2동, 송북동, 지산동, 서정동 일원 면적 0.49㎢에 지정되어 있다. 평택시는 송탄관광특구지역을 2개의 권역(신장, 서정)으로 차별화된 관광특구로 육성개발하기로 하였다. 서정관광특구는 송탄출장소 앞거리로 벚꽃이 식재되어 있어 봄에는

벚꽃이 만개하여 도심속의 공원을 형성하고 있다. 서정관광특구와 인접한 부락산은 산세가 높지 않으며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특히, 조각공원 및 레포츠타운을 조성하여 도심속의 젊음과 문화가 있는 거리로 변모시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장관광특구는 K-55 미군부대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외국관광객을 위한 쇼핑 및 위락업소 밀집지역으로 외국인 전용관광특구로 개발하기로 하였다. K-55 미군부대 앞에서 부대 철로변까지 275m의 보행자 전용도로로 쇼핑과 휴식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신장관광특구지역내 기반시설확충을 위하여 신장쇼핑몰을 완공하였다.

▮ 송탄관광특구 문화의 거리 축제

평택시 송탄 관광특구는 주한 미군 주둔지인 K-55기지를 거점으로 하여 성장해온 국제도시로서 연간 23만 명의 내 ·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이다. K-55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외국관광객을 위한 쇼핑 및 위락업소가 밀집된 지리적 요충지이다. 2개의 관광호텔, 1개의 관광극장식당, 37개의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5개의 여행사 등 45개소의 관광업소가 있고 566개의 일반음식점, 62개의 휴게음식점, 111개의 유흥음식점, 58개의 단란주점, 68개의 숙박업소, 55개의 노래방, 기타 1,715개의 일반업소가 있다.

평택시는 송탄 관광특구지역의 특수성을 활용한 다채로운 문화행사 등 거리축제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참여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아이템이 있는 관광특구로 육성할 계획이다.

테마 관광상품을 개발, 계절별 테마별 축제거리를 운영하며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특성을 부각시키고 문화프로그램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쇼핑몰 조성지역에는 송탄 관광특구협의회를 중심으로 상공인들 스스로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고 친절서비스를 발휘하는 가장 친절한 거리로 조성하며, 거리적 특수성을 감안, 외국인들이 많은 이점을 살려 아이템 있는 거리로 조성, 거리마다 테마명칭을 부여할 예정이고 관광특구 발전을 위한 시민참여 방안을 모색하여 도시분위기 일신을 위한 시민 대 청결운동 전개 및 환경정비를 할 계획이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안내표지판 및 쇼핑몰 내 소형관광 안내도를 설치할 예정이다.

③ 진위천 시민유원지

진위면 봉남리 평택시민의 상수원인 진위천에 위치한 진위천 시민유원지는 면적 152,164㎡(46,030평)에 조성되어 있으며, 국도 1호선 진위교까지 약 2㎞ 구간은 물

▮ 자연유원지로 단장된 진위천시민유원지

이 맑아 여름철에는 1일 약 1,000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자연발생 유원지였다.

그러나 상류천에 황구지천, 오산천 등 직할하천 2개소가 위치하여 인근 5개 시 · 군의 배수유입 피해가 심하고 쓰레기 등으로 주변환경이 불결해져 악취, 모기, 파리 등 유원지로서의 기능상실뿐만아니라 평택시의 급수원인 상류원으로서 점점 오염이 심화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평택시에서는 이 지역 일대의 휴양시설의 부족과 환경오염 등을 동시에 해결하고, 쾌적하고 질서있는 놀이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하천 및 주변을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설치, 쾌적하고 아름다운 유원지로 개발하였다.

진위천 시민유원지내 기본시설로는 풀장, 주차장, 텐트촌, 자연학습장, 관리실, 매점, 화장실 등이 있으며 편익시설로는 족구장, 배드민턴장 2면, 배구장 1면, 비취파라솔 100개, 음수대 1개소, 고정텐트 8개소(80명 수용) 등의 시설물들을 갖추고 있다.

3. 관광시설의 현황

1) 관광숙박업 현황

평택시 관광숙박업체는 송탄관광호텔을 포함하여 6개의 호텔에 426여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건설중인 관광호텔도 1개업체로 현재 숙박시설의 부족현상은 없다. 그러나 해마다 증가하는 관광객의 수요와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국민관광성향에 대처하고 외화획득은 물론, 평택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서비

[표 2 평택시의 관광숙박업 현황]

호텔명	소재지	규모	등급	객실수
송탄관광호텔	신장동 274-0190	지하 1층, 지상7층	1급	97
오딧세이 관광호텔	평택동 291	지하 1층, 지상 4층	2급	32
영천관광호텔	신장동 304-14	지하 1층, 지상 7층	2급	60
평택관광호텔	평택동 62-10	지하 3층, 지상 7층	2급	46
서해관광호텔	안중면 현화리 658-2	지하 2층, 지상 8층	1급	66
호텔킴스호텔	비전동 845-1	지하 4층, 지상 9층	1급	125

※ 자료: 평택시, 시정백서, 1999년

[표 3 평택시의 관광객 이용시설업 현황]

(단위: 개소)

구분 / 연도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 용역업	관광편의 시설업
	전문 휴양업	종합 휴양업	관 광 유람선업	관 광 음식점업	외국인 전용 음식업	외국인전용관광 기념품판매점업		
1994	-	-	-	1	44	-	-	-
1995	-	-	-	-	44	-	-	-
1996	-	-	-	1	44	-	-	-
1997	-	-	-	1	42	-	-	-
1998	-	-	-	1	50	-	-	1

자료: 문화관광과

[표 4 평택시 관광객 수 및 관광수입]

연도별	관광객수(명)			관광수입(백만원)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화	외화
1994	1,859,132	1,857,702	1,430	106	5,450	1
1995	1,020,099	1,018,164	1,935	97,313	105	428
1996	1,061,200	1,059,677	1,523	26,206	96,885	4,982
1997	2,537,514	1,317,545	1,219,969	8,399	21,224	7,562
1998	2,441,210	1,321,141	1,120,069	8,800	837	7,480

※ 자료: 문화관광과

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평택시 관광객 이용시설업

평택시의 관광객 이용시설업 현황을 보면 외국인 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K-55 미군부대를 중심으로 음식업이 상당히 발전하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평택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회의 용역업, 관광편의시설업 등은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다. 평택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육성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과 적극적인 대외홍보를 겸하여 평택의 관광이미지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3) 평택시 관광객 수 및 관광수입현황

평택시의 관광객 수 및 관광수입 현황은 1998년도 총관광객수는 2,441,210명으로 내국인은 1,321,141명, 외국인 1,120,069명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관광객수가 다

[표 5 평택시의 여행알선업체 현황]

번호	호텔명	소재지	설립일	비고
1	쌍윤관광(합)	평택동 52-2	'91.6.26	국내 · 외
2	동국관광(합)	평택동 55-2	'85.1.14	국내 · 외
3	평택관광(합)	통복동 111-15	'87.7.29	국내 · 외
4	뉴삼진관광	안중 현화 276	'94.6.17	국내 · 외
5	삼호관광	평택동 55-1	'91.12.5	국내 · 외
6	지구여행사	서정동 792-18	'95.7.8	국내 · 외
7	그린관광여행사	지산동 798-14	'96.3.25	국내 · 외
8	반도여행사	신장동 302-173	'88.9.2	국외
9	에스 · 벤 여행사	지산동 755-20	'95.12.9	국외
10	뉴비봉관광	팽성 안정리 130-4	'96.11.7	국내
11	오딧세이여행사	신장동 298-74	'97.4.29	국내 · 외
12	부자관광(합)	지산동 780-1	'97.8.6	국내
13	우리세계여행	평택동 37-20	'97.9.2	국외
14	동양관광항공	이충동 463-45	'97.9.11	국내 · 외
15	뉴장수관광항공여행사	안중 학현리 504-42	'98.3.27	국내 · 외
16	평택 · 안성롯데관광	평택동 298-1	'98.4.9	국내 · 외
17	뉴대진관광	서정동 782-4	'98.4.23	국내
18	뉴대일관광	세교동 406-15	'98.4.23	국내
19	평택장수관광(합)	비전동 745-6	'98.8.11	국내
20	강남고속관광	이충동 463-7	'99.4.29	국내 · 외
21	평택자유여행사	평택동 60-32	'99.7.15	국내 · 외
22	대신관광	세교동 406-25	'99.7.20	국내
23	다솜관광	서정동 308-7	'99.9.9	국내 · 외
24	푸른관광	비전동 749-2	'99.1.28	국내
25	신선여행사	평택동 55-7	'99.11.5	국외
26	가나관광(합)	비전동 114-1	'99.12.30	국내 · 외
27	뉴금수관광	장당동 411-7	2000.5.26	국내 · 외
28	우노관광여행사	합정동 772-4	2000.7	국내
29	서동국관광	안중리 292-53	2000.8	국내 · 외

※ 자료: 평택시, 시정백서, 1999년

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연관광수입은 88억원으로 이 중 외국인 관광수입이 74억 8천만원으로 내국인 관광수입 8억 3천 7백만원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내국인들이 평택을 관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관광지개발 및 홍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K-55 미군기지를 서울의 이태원과 같은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우선적인 노력이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평택시의 관광객수 및 관광수입의 현황자료를 종합해 보면 평택시의 관광산업은 아직 초보단계로서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평택시 여행알선업체의 현황

평택시 문화관광과의 자료에 의하면 국내여행사(8개), 국외여행사(4개), 그리고 국내 · 외 겸업 여행사(17개)가 있다. 해마다 꾸준히 여행 알선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 평택시 관광개발전략

관광산업은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관광객들의 욕구충족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는 산업이다. 관광산업 육성방안의 기본전략으로는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연계화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평택시에서는 각 단계별로 실현성에 바탕을 둔 육성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관광산업 육성의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도록 하고 지역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산업 중 관광과 연계가 가능한 소규모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의 산업적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토록 해야 한다. 평택시에서는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관광지개발을 포함한 관광개발전략을 수립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1) 개발잠재력

평택시는 전국 관광루트의 주맥인 경부고속도로 및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가 관통하므로 타 관광권으로부터의 접근이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2천 2백만 명의 인구가 있는 수도권 남부거점도시로서 풍부한 인적자원이 있는 배

▮ 서해대교와 평택항, 해안지역은 평택을 관광도시로 변모시킬 수 있는 우수한 관광자원이다(서해대교와 유채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 관광객)

후관광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광지로서의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평택지역은 평택호관광지 종합레포츠타운 개발계획과 더불어 평택항이 97년말 일부 개항되고 2011년 내 · 외항이 완공됨으로써 서해안 거점도시가 되어 관광객 유입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평택시는 97. 5. 30 관광특구로 지정되는 등 타 지역보다 관광산업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며, 주한미군 K-6, K-55 등이 주둔하고 있는 특수성을 지닌 지역으로 국제화 추세에 힘입어 외국인 관광객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평택호관광지 종합레포츠 타운 건설에 따른 사계절 수륙형 레포츠의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는 전천후 관광지로서 성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서울의 이태원 거리와 대학로의 성격을 겸비한 송탄관광특구를 중심으로 하여 젊은이들을 매료시킬 수 있는 관광지로서의 성장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다.

평택지역에서 산출되고 있는 쌀 · 배 · 애호박 · 오이 · 장미 · 선인장 등의 지역특산물을 관광상품화 시킨다면 이것 또한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결론적으로 앞에서 살펴 본 다양한 문화 관광자원과 지역특산물, 다양한 볼거리 등을 제공하고 있는 송탄관광특구 및 뛰어난 경관과 넓은 호수로 유명한 국민관광지인 평택호 등의 관광자원을 잘 연계시킨다면 개발여하에 따라 관광산업의 발전 잠재력은 무한하다 하겠다.

또한 평택시는 볼거리 · 살거리 · 쉴거리 · 먹거리 등 관광의 4박자를 갖춘 관광자원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평택의 역사적이고 정신적인 문화유산으로부터 나오는 평택의 전통적인 문화정신을 가미시킨다면 개발 잠재력은 무한하다 하겠다. 앞으로 평택시는 국내 · 외 관광객의 다양한 유치를 위한 관광 · 문화 · 유통 등 여러 기능 및 시설의 효율적 조화를 통하여 관광자원의 잠재력을 극대화한다면 21세기의 전천후 관광지로서의 발전이 가능한 지역이다.

2) 관광개발의 문제점

평택시 관광개발의 대체적인 문제점은 첫째, 평택 문화재에 대한 인식 부족과 개발 · 발굴의지 부족, 지역문화의 보존운동이 미흡하며 평택 문화유산을 현대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연구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 정도전의 삼봉집목판에 내재한 사상과 정신을 평택시민이라면 누구나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평택만이 가질 수 있는 평택문화가 있을 때 좋은 문화관광 상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관광정보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에 대한 서비스 기능이 부족하여 체재형 관광이 되지 못하고 통과형 관광으로 되고 있다. 당일 관광이라 하더라도 평택이 최종 목적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이 다소 부족하다. 셋째, 관광산업은 굴뚝없는 산업으로 잠재가치와 부가가치가 뛰어난 산업이라는 중요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이 부족하며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주요 관광지간의 부분적인 관광벨트의 형성 및 전체적인 연계체계가 미흡하다. 그리고 평택시의 지역적 특성 또는 역사적 특성과 관광 이미지를 감안한 축제 및 이벤트의 개발이 부진하여 평택의 전통적인 문화와 현대의 문화를 접목시키지 못하고 있다.

3) 관광개발의 기본 방향

선진국들의 문화 · 사회 발전추세가 자국민의 개성을 중시하고 독창적 가치관의 형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발전해 감에 따라서 수동적인 시각관광에서 문제해결식의 참여관광으로 관광형태의 선호가 전환되고 있다. 보다 개성을 중시하고 자기실현에 대한 욕구 증대로 문화여행, 모험여행 및 스포츠 여행 상품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앞으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가들도 이러한 추세에 동조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스키와 설경을 볼 목적으로 찾아오는 국내 · 외 여행객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전세계적인 고령화, 만혼 및 독신주의 증가, 핵가족화의 진전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일반인들의 관광참여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여행보다는 개별여행에 대한 일반인들의 선호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이들 개별여행자의 선호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이러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관광수요 면에서 볼 때 평택시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은 첫째, 민족문화의 전통보전 및 창조에 목적을 두고 문화재 개발계획을 유도한다. 둘째, 주변 생활권과 연계되는 관광체계를 확보한다. 셋째, 관광기반시설 및 수용시설의 확충으로 급격한 관광객 수요증가에 대처한다. 넷째, 자연경관과 역사적 환경이 조화되는 문화유적관광지를 구현한다. 다섯째, 평택시내의 관광기반 및 지원시설을 확충 · 정비하며, 국민관광성향에 의한 장래 위락활동에 부합하는 개발방

향을 설정한다. 여섯째, 주변관광지와 타지역 연접관광지를 상호 연계할 수 있는 관광루트를 형성한다. 이러한 기본방향 아래에서 구체적인 관광개발의 방향은 첫째, 장래 고속도로 및 수도권 전철,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계획을 감안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한 관광지 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한 관광지로 개발한다. 둘째, 상위계획을 수용하여 기존의 평택호 관광지와 추진중인 레포츠타운 개발계획과 우리나라의 3대 국책항만인 평택항 및 서해대교를 연계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가족 체류형 여가시설 등을 건설하여 평택의 대표적인 관광벨트로 만든다. 셋째, 권역내 관광루트의 체계성 확립과 관광기능별로 특성화하여 관광자원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송탄관광특구지역, 진위천 시민유원지,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 부락산 자전거 전용도로 및 조각공원과 레포츠공원, 동막저수지 유원지를 관광벨트로 조성하여 평택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개발하여야 한다. 넷째, 전통적인 유·무형 문화재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 예를들면 정도전의 삼봉집목판의 내용을 현대어로 완전히 번역하여 정도전의 철학, 사상을 찾아온 관광객에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조광조 선생과 오달제 선생의 유년시절에 살았던 지금의 이충동 지역을 성역화하여 그 분들의 정신과 사상을 관광객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서적을 발간하고 기념관을 설치하여 기념물을 판매한다면, 좋은 문화관광 상품이 될 것이다. 다섯째, 평택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쌀, 배, 애호박, 오이, 장미, 선인장 등을 재배하는 농촌지역에 판매소를 설치하고 찾아오는 관광객이 편히 쉴 수 있는 원두막과 같은 시설을 갖추어서 특산물들을 관광상품으로 개발 지역발전을 촉진한다. 여섯째, 템포가 빠른 평택 농악과 테크노 음악을 접목시키는 것이다. 최근에 올수록 젊은이들은 농악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평택농악은 템포가 빠르고 생동감이 넘치고 있어, 젊은이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평택농악을 현재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있는 리듬위주의 테크노음악에 접목시킨다면 젊은이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일곱째, 송탄 관광특구지역에 상설 공연장을 설치하고, 정기적인 훼스티발을 개최하며, 도심관광 및 쇼핑 명소를 순회하는 도심순환 시티투어 운영 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4) 평택시 관광지의 홍보전략

현대 국민들의 여가 형태가 수동적인 관람위주의 관광형태에서 특정주제에 참여하는 관광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평택 종합레포츠타운으로 성장하고 있는 평택호 지역과 문화의 거리, 공연의 거리, 쇼핑몰 거리가 있는 송탄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하여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광에 대한 욕구가 개성을 중시하고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 증대로 인하여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여, 평택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평택 고유의 이미지와 소비형 도시 이미지를 접목시킬 수 있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평택문화브랜드를 창출시켜야 한다. 평택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이다' 라는 인식이 평택에 찾아오는 국내 · 외 관광객들에게 각인되어야 한다. 스키를 타러 강원도에 가고 단풍구경을 하러 내장산에 가며 불국사를 보러 경주에 간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가 갖추어진 평택에 가는 사람들은 가장 멋진 문화인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갖게끔 하는 것은 평택시민들의 노력여하에 달려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제언하면, 첫째, 평택시의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관광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줄 수 있는 심볼이나 캐치프레이즈를 개발하여 관광객이 평택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지역별 관광홍보 및 촉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둘째, 외국인이 탑승하는 항공기내, 국제공항내, 관광 관련업체, 한국내 관광안내소와 공항버스 등에 평택시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관광 이벤트 개최일정을 홍보하고, 관광지 안내지도 및 관광 안내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홍보한다. 셋째, 6시 내고향 등 지방자치단체 소개 TV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문화행사 및 농특산물 홍보 등을 한다. 넷째, 평택역 앞 광장 및 시계탑 인근에 각종 안내기능을 갖춘 쇼규모 전시관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다섯째, 그동안 수동적인 홍보활동을 벗어나서 대중이 이용하는 곳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여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연중 무휴라고 알리고 CD롬, 슬라이드, 비디오를 제작 배포한다.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를 낳을 수 있는 21세기의 전략산업으로서 파급효과도 크고 고용창출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평택시는 문화 · 관광산업의 진흥에 초점을 맞추어 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 아름답고 쾌적한 문화 · 관광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 분야를 먼저 중점 육성하여 타 분야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로 삼는다는 뚜렷한 인식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평택시는 많은 문화유산과 먹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풍부한 농산물을 갖고 있으며 수려한 자연경관을 겸비한 평택호와 다양한 문화행사와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송탄 관광특구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 · 관광산업 분야에 있어서 평택호 지역 및 송탄관광특구를 중심으로 각각 지역에 연계된 관광벨트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참고문헌

평택시, 『평택군지』, 1984

평택시, 『송탄시사』, 1994

평택시 경기도박물관, 『평택의 역사와 문화』, 1999

평택시 평택시문화원, 『진위면지』, 1999

평택시, 『평택시 발전상 사진전』, 1997

평택시 공영개발사업소 · 충북대학교 선사문화연구소, 『평택현화리 유적』, 1996

평택시 문화원, 『평택향토사』, 1998

평택시, 『평택발전방안연구』, 2000

평택시, 『제4회 '99통계연보』, 1999

평택시, 『시정백서』, 1999

평택시, 『평택시 도시기본계획』, 1998

대전직할시, 『대전관광개발기본계획』, 1993

박호표, 『관광학의 이해』, 1997

이장섭, 『관광문화와 문화관광소고』,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정책논총」, 제6집, 1995

채용식, 『국제관광정책론』, 학문사, 1997

한국관광개발연구원, 『한국관광연감』, 1997

한국관광공사, 『관광정보』, 1993

장정민, 조현수, 정혜정, 「송탄관광특구지역의 발전방안과 앞으로의 과제」, 한몽경제학회, 「한몽경제연구」 제5집, 2000

파주시, 『파주시사』, 1995

수원시, 『수원시사』, 1997

안산시, 『안산시사』, 1999

성남시, 「성남시 문화관광벨트 조성연구」, 2000

3장 해운 · 항만

여 백

해운 · 항만

제 1 절

1. 해운제도의 발달과 평택

해운(海運)이란 선박(船舶)을 수단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해상에서의 여객 및 재화(財貨)의 운송(運送)을 말하는데, 하천 호수 등 내수(內水)에서 이루어지는 선박운송은 수운(水運)이라고 부르며 해운과는 구별된다. 해운의 특징은 거대한 수송량과 저렴한 수송비에 있다.

한국 역사에서 해상운송의 발달은 조운제도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조운(漕運)이란 현물로 수취한 각 지방의 조세를 선박으로 왕도(王都)까지 운반하는 제도로, 조전(漕轉) · 조만(漕輓) · 해조(海漕)라고도 한다. 조전은 때로는 강수(江水)를 이용하는 참운(站運)이라는 보조수단을 쓰기도 하였다. 운수방법에는 해운과 육운이 있었지만 육운은 도로망의 불비, 운송수단의 제약 등 요인으로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일찍부터 해상교통에 크게 의존하여왔다. 또한 중앙집권적 왕조지배체제 하에서 지방물자의 중앙조달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에 국가에서의 지방의 세곡을 수송하기 위하여 강변에 수운창(水運倉), 해변에 해운창(海運倉)을 설치하고 선박을 항상 준비시켜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중앙의 경창(京倉)에 수송하였다.

현존하는 기록에 의하면 조운이 제도적으로 완비된 것은 고려시대부터이지만, 그 이전부터 이미 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신라의 삼국통일 후 9주 5소경제(九州五小京制)가 확립되었으며, 지방관의 파견으로 지방 통제가 가능하여졌고, 중앙관제도 678년(문무왕 18) 종래의 병부로부터 선부(船部)가 독립된 것 등으로 보아 국도(國都)가 동남쪽에 치우쳐 있는 상황아래서 해운의 구실이 커졌음을 추측하게 한다.

1) 고려시대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세곡의 조운은 군현제의 정비와 더불어 틀이 갖추어져갔다. 지방관의 파견에 앞서 금유(今有) · 조장(租藏) 등의 임시조세징수관을 파견하여 지방의 세금징수를 원활히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각 지역에서 호족의 영향력이 강하였기 때문에 금유 · 조장의 임무는 그 지방호족이 징수해 놓은 것을 수집 · 보관하는 임시수세감독관의 역할만을 할 뿐이었다. 이들에 의해 수납된 조세는 다시 전운사(轉運使)의 감독하에 중앙으로 운송되었다.

그 뒤 성종 때 지방관제개편과 더불어 조운기구가 구비되었다. 992년(성종 11) 세곡운송을 위하여 소요되는 수송선박의 운반비를 정하고 60여 곳에 포(浦)가 설치되었는데 경상도로부터 황해도에 이르는 서남연해지방과 한강의 연변지역에 집중되고 있었다. 이 포들은 조운선을 구비하고 조운의 거점으로 삼았다.

고려시대의 조운제도는 조운의 거점으로 조창을 설치한 데에서 본격화한다. 조창제의 성립은 성종대부터 본격화한 군현제의 정비가 현종대에 이르러 결실을 보면서 남도에 충주 · 원주 · 아주(牙州 : 牙山) · 부성(富城 : 瑞山) · 보안(保安 : 扶安) · 임피(臨陂) · 나주 · 영광 · 영암 · 승주(昇州:順天) · 사주(泗州:泗川) · 합포(合浦:昌原) 등 12조창이 설치되고 이어서 문종 때 서해도에 안란창(安蘭倉)이 설치되어 조창제의 골격이 완비되었다. 고려의 조운제는 이 13조창제를 내용으로 하여 유지 · 발전되었다. 고려시대 조창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일종의 행정구획이었다.

조창의 주요기능은 지방에서 징수된 조세를 11월초부터 다음해 1월까지 집적하고, 2월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곳은 4월, 먼 곳은 5월까지 경창에 조운을 마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기한은 엄수되어야 하였고, 만약 난파되었을 경우 인솔관리 · 향리 그리고 사공인 수수(水手)가 함께 책임을 지고 변상해야만 하였다. 조운경로는 서남해안과 한강수로이며, 목적지는 개경 교외에 있는 동강(東江) · 서강(西江)이라고 불리는 항구이다. 납입대상은 좌창(左倉) · 우창(右倉)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좌창은 동강에 있고 운반했던 세곡들 그대로 납입하였다. 우창과 기타 개경내의 제창에는 양강에서 일단 육지로 운반한 다음 육운으로 납부시켰다. 992년(성종 11)에 정해진 세곡의 운반비는 수송거리와 항로의 난이 등을 고려하여 10단계로 구분하여 최고 5석 당 1석부터, 최저 21석 당 1석까지로 책정되었다. 이외에도 운반과정에서 손실되는 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모미(耗米)라는 명목을 추가로 징수하였다. 처음에는 1석 당 1승씩을 더 징수하다가, 1053년(문종 7)에 1곡(斛)당 7승을 징수하였다. 이는 대략 22석 당 1승 꼴로 최저의 운반비와 비슷한 액수이다.[1].

1) 朴龍雲, 「漕運과 漕倉」, 『高麗時代史』 上, 1985, 235~238쪽

고려후기 정치적 · 사회적 변동과 그로 인한 지배체제의 동요는 조창제도에 크게 변동을 가져왔다. 특히 조창제의 존립기반을 이룬 군현제의 변혁, 삼별초의 난, 왜구의 침입 등은 조운제 자체에 큰 영향을 끼쳐, 국가제도로서 집약적이었던 것이 각 지방의 군현이 주관하는 분산적인 것으로 성격이 변하였다. 바다나 하천에 인접한 군현은 각자 스스로가 조운선을 구비하고 세곡을 운반하여야 하였으며, 민간인에게 청부를 맡기는 곳도 나타났다.

조운제가 동요되면서 국가재정이 위협받게 되자 국가에서는 원관(院館)을 설치하여 육운하고자 하였으나, 육운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고 조운은 그 운영이 곤란해져 1376년(우왕 2)에 조운을 정지시켰다. 그 후 1390년(공양왕 2) 정몽주의 건의에 따라 내륙의 수운을 부활시키고 충주에 좌수참을 두어 남도의 세곡을 경창에 운반하도록 하였으며, 배천(白川)에 우수참을 두고 해서(海西)지방의 세곡을 경창에 운반하도록 하였다.

2) 조선시대

조선의 건국 직후부터 고려말 왜구의 침입 등으로 파괴된 창고의 보수와 증설로 조운활동을 바른 시일내에 정상화하는 데 노력하였다. 세곡의 운송은 당시에 있어 가장 조직적이고 규모가 큰 운송체계였고, 세곡의 운송은 조운에 의함이 원칙이었다. 조창과 조선이 복구되면서 마침내 40년 동안 불통되던 세곡의 조운이 소통되어, 국가재정이 충실해지게 되었다.

이성계는 조선왕조를 세운 뒤 한반도의 중앙을 관통하는 한강변에 위치하여 수로와 해로의 이용이 수월한 곳이었으며, 옛 고려의 조창들을 관리하기가 편한 곳인 한양을 새로운 도읍지로 정하였다.

조선왕조의 조운제는 중앙정부가 조창 · 조선 · 조군을 직접 관장하는 관선조운체제(官船漕運體制)였다. 강력한 집권체제를 구축하려 했던 태종과 세조에 의해 관선조운정책은 적극적으로 시행되어, 조선왕조의 기본적인 세곡운송정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2)]

조선시대의 조창은 『경국대전』의 반포를 계기로 충주 가흥창(可興倉) · 원주 흥원창(興原倉) · 춘천 소양강창(昭陽江倉) · 배천 금곡포창(金谷浦倉) · 강음 조읍포창(助邑浦倉) · 아산 공세곶창(貢稅串倉) · 용안 덕성창(德成倉) · 영광 법성창(法聖倉) · 나주 영산창(榮山倉) 등 9조창제로 정리되었다. 즉 아산의 공세곶창에서는 충청도 평택 등 40읍, 충주의 가흥창에서는 경상도와 충청도 14읍, 함열 덕성창과 나주의 영

2) 崔完基, 「수상교통과 조운」, 『한국사』 24, 국사편찬위원회, 1994, 522~538쪽.

[표 1 15세기 조창(漕倉)의 수세 구역]

구분		漕倉名	漕倉의 수세구역	부속 조선수
直納		京倉(서울)	京畿諸邑, 江原道 淮陽, 金城, 金化, 平康, 伊川, 安峽, 鐵原	
站運	左水站	可興倉(충주)	慶尙道 諸邑, 忠淸道 忠州, 陰城, 槐山, 淸安, 報恩, 丹陽, 永春, 堤川, 鎭川, 黃澗, 永同, 淸風, 延豊, 靑山	51척
		興原倉(원주)	江原道 原州, 平昌, 寧越, 旌善, 橫城	
		昭陽江倉(춘천)	江原道 春川, 洪川, 麟蹄, 楊口, 狼川	
	右水站	金谷浦倉(배천)	黃海道 海州, 延安, 豊川, 信川, 長淵, 文化, 康翎, 瓮津, 松禾, 長連, 殷栗, 白川	20척
		助邑浦倉(강음)	黃海道 江陰, 黃州, 瑞興, 平山, 鳳山, 谷山, 遂安, 安岳, 載寧, 新溪, 牛峰, 兎山	
海運		貢稅串倉(아산)	忠淸道 牙山, 瑞山, 韓山, 連山, 林川, 定山, 公州, 洪州, 新昌, 結成, 保寧, 全義, 靑陽, 尼山, 大興, 石城, 海美, 泰安, 天安, 庇仁, 恩津, 木川, 沔川, 燕岐, 德山, 舒川, 稷山, 鴻山, 扶餘, 藍浦, 禮山, 唐津, 平澤, 溫陽, 淸州, 文義, 懷德, 鎭岑, 沃川, 懷仁	60척
		德成倉(용안)	全羅道 龍安, 全州, 任實, 南原, 臨陂, 金堤, 長水, 金溝, 雲峰, 益山, 萬頃, 礪山, 錦山, 珍山, 泰仁, 沃溝, 鎭安, 高山, 茂朱, 咸悅	63척
		法聖倉(영광)	全羅道 靈光, 興德, 玉果, 扶安, 咸平, 珍原, 潭陽, 茂長, 長城, 井邑, 谷城, 昌平, 古阜, 淳昌, 高敞	39척
		榮山倉(나주)	全羅道 羅州, 順天, 康津, 光山, 珍島, 樂安, 光陽, 和順, 南平, 同福, 興陽, 務安, 綾城, 靈巖, 寶城, 長興, 南海	53척

출전 : 『經國大典』, 『新增東國輿地勝覽』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4권, 1994, 526쪽에서 재인용.

산창 그리고 영광의 법성창에서는 전라도, 원주의 흥원창과 춘천의 소양강창에서는 강원도, 배천의 금곡포창과 강음의 조읍포창에서는 황해도의 세곡을 수납하여 운송하였다. 이외에 경기도 전체와 강원도 일부지역에서는 직접 경창(京倉)으로 납부하였고, 함경도와 평안도의 세곡은 국방을 위해 그 지역에 비축하였다. 이를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 1〉이다.

〈표 1〉에 의하면 해운하는 4대 조창 가운데 3개가 전라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전라도의 세곡이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았기 때문이었다. 전라도의 세곡은 태종 때 7만 석 정도였으며 중종때에는 10여만 석에 이르렀다. 양란 후에는 총세액 82,849석의 50% 정도에 이르는 40,176석을 전라도에서 징수하고 있었다.[3] 현재의 평택지역에 속하는 경기도 진위현과 충청도 평택현의 경우 진

위현은 경창에 직접 납부하였으며, 평택현은 아산의 공세곶창에 소속되었다. 한편 평안도 · 함경도 · 제주도는 세곡을 조운하지 않고 각각의 지역에 그대로 보관하였다.

조창의 관리를 위하여 감납차사원(監納差使員) · 분재차사원(分載差使員) · 해운판관(海運判官) · 수참판관(水站判官) 등을 두어 각 조창에서의 조세수납과 반출을 감독 · 관리하게 하고 그 아래 서기(書記) 이하 몇 명을 두어 창고행정을 맡겼다. 또 창고는 3년 · 5년 · 10년마다 각각 이를 감독하는 감독관이 물품조사를 하여 그 부정여부를 검사하였고, 재고품의 보존처리가 적법한지를 조사하였다.

세곡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하여 법규를 매우 엄하게 하였다. 매 선박에는 600석을 한도로 적재하게 하였고, 매 운(運)에는 30척을 1종(綜)으로 하여 순차로 운항하게 하였다. 보령(保寧) 원산도(元山島)와 태안(泰安) 안흥량(安興梁)에서는 중간 검열을 한 후 경강(京江)에 도착하면 호조의 당상(堂上) · 낭관(郎官)이 친히 점검하여 수납하였다.

조운선이 난파하면 그곳 지방관이 지체없이 즉시 이를 구제하고 피해미곡을 건조해야 하였으며, 2일 이내에 현지에 나타나지 않거나 좌수 · 별감을 대신 보내는 자 등은 처벌되었다. 또 고의로 파선하게 한 자, 10석 이상을 훔친 자는 효시에 처하였다. 그런가 하면 50석 이상을 무사히 수송한 압령관(押領官)은 직계(職階)를 올려서 논상(論賞)하고 3척 이상을 패몰하게 한 자는 치죄하는 규정을 법제화하였다. 각 조창에 수납된 세곡은 모두 서울 남부 한강변에 설치된 군자창(軍資倉) · 풍저창(豊儲倉) · 광흥창(廣興倉)에 경창에 집결되었다.

조운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일찍부터 국가관리하에 대규모의 조선사업이 이루어졌다. 태종 때 많은 조운선이 건조되었는데 잇따른 해난사고로 피해가 극심하여 세종 때 관선(官船) 대신 사선(私船)을 이용하여 조운을 실시하였지만, 해난사고는 완전히 극복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세조 때에는 관선으로 조운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각 조창에서 갖추어야 할 조운선 수를 법제화하는 한편 개수연한(改修年限)과 조운선관리규정을 정하여 비로소 조운제도를 정립하였다.

『여지도서 輿地圖書』에 의하면 조선후기 충청도 평택현의 전세는 2월에 거두어들여서 3월에 실어 보냈다. 노산포로(老山浦路)를 출발해 영옹해(靈翁海), 도리해(都里海), 팔미해(八彌海), 황무포(黃廡浦), 연의정해(延義亭海)를 거쳐 한강에 도착한 후 광흥창(廣興倉)과 군자감(軍資監)의 별영(別營)에 나누어 바쳤다. 경기도 진위현의 경우 1월에 징수하여 4월에 실어 보냈다. 해창(海倉)에서 출발하여 수원 광덕포(廣

3) 『仁祖實錄』 仁祖 18년 12월 정미.

德浦), 아산 당포(堂浦), 수원 영웅대해(永雄大海) 남양 도리대해(道里大海), 인천 팔미대해(八味大海), 영종 손도항(孫道項), 강화, 통진, 김포, 고양 행주(杏州), 양천포(陽川浦) 등을 지나 20여 일이 걸려 경강(京江) 군자감(軍資監)에 상납하였다. 이러한 항로 중 손도항 지역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위험한 지역으로 운하를 만들어 위험 지역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고려시대부터 하였으나 끝내 이루지 못하였다.

이외에도 평택현지 기록에 의하면 팽성읍 도두리(掉頭里)는 조선시대에 중국의 사신들이 왕래하였다고 했으며, 청북면(靑北面)에는 고기포(高機浦)와 옹포(瓮浦 : 독개)가 있어 옛날 인천 등지로부터 옹기를 실어 날랐다고 한다. 현덕면(玄德面) 권관리(權管里)에는 옛날 일명 왕자봉(王子峰) 아래 "닭의 머리" 나루터가 있어 충청남도 백석포(白石浦)와 연결되는 해상로가 있었고, 전설에 의하면 이태조가 어릴 때 공주를 가기 위하여 이곳을 지날 때 왕자봉 마루터에서 잠시 쉬어갔다 한다. 이 나루터가 있던 곳으로는 지금의 아산만방조제 기념비가 서있는 곳이라 한다.[4]

조선전기 관선 중심 조운제도는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그 기능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었다. 1638년(인조 16) 당시 실제 운영되고 있었던 조창은 공진창(貢津倉) 등 4개 조창뿐이었다.[5] 이들 조창도 각 지역의 세곡을 『경국대전』에서와 같이 조운하는 것이 아니라, 내륙지방의 세곡에 한해서 조선으로 운반하고 있었고, 연해지방에서는 대체로 사선(私船)을 세내어 직접 경창까지 운반하고 있었다. 더구나 17세기 대동법의 실시로 조운량이 증가되었고, 조선후기의 빈번한 흉년으로 진휼미(賑恤米)를 대량으로 운반하게 되어 조곡선(漕穀船)의 부족은 불가피하였다.

조운제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반량의 증가는 자연히 사선인(私船人)의 활동을 왕성하게 하였다.[6] 이에 따라 세곡의 운반은 17세기에는 지토선(地土船)이 주로 담당하고 있었다. 지토선은 지방에 소재한 지방민이 소유한 선박으로 해안이나 강변에 인접한 고을에는 그 고을 주민들이 생업을 위해 선박을 보유하고 있었다. 지토선은 도(道)의 명칭을 따서 경기선, 호서선, 호남선 등으로 불리기도 했고, 고을 이름을 따서 송도선, 수원선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지토선은 교역의 분화에 따라 전문화되어 곡물을 싣는 곡물선, 생선을 싣는 생선배, 소금을 싣는 소금배 등으로 불렸다. 1698년(숙종 24) 정리된 『수교집록 受敎輯錄』에 의하면 각 고을의 전세곡은 경강선에 실을 수 없으면 반드시 본 고을의 지토선이나 인근 고을의 지토선을 세내어 운송하도록 규정하였다. 초기에는 200~300석을 싣던 지토선은 18세기에는 1천 석까지 적재하기에 이르렀으며, 활동무대도 경기도 연해에서 경상도 남부 연해까지 걸쳐 있었다. 지토선은 대동법의 실시와 더불어 그 운송수단으로

5) 『度支志』 版籍司 漕運部 漕運節目
6) 崔完基, 『수상운송』, 『한국사』 33, 국사편찬위원회, 1997, 268~311쪽.

주목되면서 본격적으로 세곡 운임에 참여하였다.

17 · 18세기의 경기도 진위현과 충청도 평택현의 경우 전세와 대동미의 납부는 조운에 의하지 않고 배를 빌려서 납부하고 있으나, 두 지역 모두 지토선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인근 지역의 지토선을 세내어 운송하였다.

그러나 17세기 말에 이르러 상당수의 선박이 궁방 · 권세가에 침탈되면서 지토선은 점차 쇠퇴해 갔고, 이 시기를 전후하여 경강선의 활약이 활발하였다. 경강상인(京江商人)들은 조선 초기 이래로 경강에서 그 발판을 굳히고 있었으며, 자본력 · 항해술 · 조선술 등을 바탕으로 활로를 개척해 나갔다. 1704년(숙종 30)에 반포된 『양호선절목 兩湖船節目』에 의하면 이제까지 시행해 오던 조역을 혁파하고 경강선에 의해 전세곡을 운반하도록 하였다. 지토선에 의해 운송하도록 되어 있는 대동미의 운송도 지토선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경강선이 담당하게 되었다. 당시 대동미 운송에 참여하고 있었던 경강선은 90여 척으로, 적재능력은 400~500석이었다.

경강상인들은 운송을 독점하고 이득의 추구에 적극성을 보이면서 각종의 폐단을 초래하게 되었다. 경강상인들은 세곡을 운반하면서 곡물에 물을 타서 곡물을 불게 함으로써 곡물을 횡령하기도 하였고, 고의로 선박을 침몰시키고 합법적인 사고를 가장하여 국가에 선박 건조비용까지도 요구하는 등 부정행위가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왕조는 국가가 세곡운송을 주관하는 관선조운제를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막대한 비용과 선재조달의 문제로 인하여 경강선의 보호 육성의 대책을 강구하여 작대제(作隊制)를 시행하였다. 작대제는 경강선으로 함여금 선대(船隊)를 이루게 하여 선인들이 자율적으로 폐단을 통제토록 하고, 관리들의 탐학을 제거하여 경강선인들의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세곡운송을 원활히 하고자 한 방안이었다. 작대선(作隊船)은 경강선이었고, 주교사(舟橋司)에 의해 관리되었다고 하여 주교선(舟橋船)이라고도 하였다. 작대제는 운영과정에서 선박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재운할 경우 장마철에도 운항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다수의 선박이 파선하는 사고가 적지 않았고, 운항 기일을 고의로 지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1882년(고종 19) 철폐될 때까지 근 100여 년에 걸쳐 시행되었다. 개항 이후 조세의 금납화(金納化)가 일반화되면서 세곡운송이 불필요하게 되어 조운제도는 서서히 폐지되었다.

2. 평택항

1) 입지여건 및 개발

서해안 중심부에 위치한 평택항은 수도권 및 중부권과의 연계가 용이하며 대 중

국 최근접 지점으로 환황해 경제권의 성장과 함께 지역 내 물동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의 물류 거점으로서의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인천항과 군산항의 중간에 위치한 평택항의 지리적인 입지는 평택항 인근 지역인 경기 및 충청의 주요 시, 군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2.1%와 전국 지역내 총 생산규모의 53.1%를 점유하고 있는 수도권과 인접하여 풍부한 배후권역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평택항은 경부, 서해안 고속도로, 경부고속전철 등의 간선 교통시설과 효율적으로 연결될 수 있고 기존의 국도 34, 38, 39호선이 경유하는 등 배후 수송망이 완비되어 있어 수도권뿐만 아니라 남부권과의 연결성이 매우 양호하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시행중인 광역 교통망 체계와 산업단지, 신도시 및 물류단지 등 풍부한 배후시설이 완비되면 평택항은 수도권 및 남부권과의 종합물류 단지로서 지역개발을 선도함은 물론 나아가 환황해권의 중심항만으로서 잠재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평택항 개발사업은 U자형 연안개발축과 국토균형 개발정책 등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5대 국책개발사업' 의 하나다.

(1) 국제적 환경여건

세계적 경영환경은 세계화와 블록화로,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돌입으로 모든 기업은 전세계를 무대로 지역내 거점기지를 중심으로 하는 생산과 판매 전략을 수립, 집행하고 있어 국제물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항만도시는 국제 물류의 거점핵심 공간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은 개혁과 개발에 따라 급속한 경제성장과 환황해경제권의 활성화와 항만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항만개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에 대한 아시아권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세계 물동량에 대한 아시아의 점유율은 1997년 46.4%에서 2004년에는 48.2%, 2012년에는 50.8%를 점유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평택항 개항(1986년 11월 1일 LNG선 첫 입항)

항만은 과거의 지역경제 발전,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의 연결점으로서의 제 1세대 기능에서 제 3세대 종합항만

[한국의 물류비 현황과 비교]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GDP대비 국가물류비(%)	16.5(98년)	10.7	9.5(95년)
GDP대비 국가물류비(%)	12.9	9.0	6.5

※ 자료 : 항만물류과

시대를 거쳐 이제 제 4세대 항만개념의 출현으로 항만간 제휴, 연대, 공동개발 추진이 활발히 모색되고 있다.

(2) 국내적 환경여건의 변화

서해안 시대 개막과 21세기 신해양 시대를 맞이하여 환황해 연안 국토축의 신산

[평택항의 항세]

항내수면적	평균수심(최대)	항로	폭	현 접안능력	항만의 능력
125㎢	14m(18m)	30km	400m~1,000m	14척	지정항만, 무역항

※ 자료 : 항만물류과

[평택항 개발계획 전체]

단계별구분		전체계획	단계별계획		
			1단계 ('89~'98)	2단계 ('97~2001)	3단계 (2002~2011)
계	사업비	29,418억 원	3,743	14,822	10,853
	• 접안시설	62선식	14	26	22
	• 하역능력	62백만 톤	11	26	25
정부	사업비	19,200억 원	2,786	7,775	8,639
	• 갑문	1	-	-	1
	• 호안시설	24.3km	8	10.5	5.8
	• 접안시설	18선석(5만 톤급 등)	4	4	10
	• 하역능력	10백만 톤	3	2	5
민자	사업비	10,218억 원	957	7,047	2,214
	• 호안	2.8km	0.6	1.7	0.5
	• 접안시설	44선석(2십만 톤급 등)	10	22	12
	• 하역능력	52백만 톤	8	24	20

※ 자료 : 항만물류과

[포승(평택)지구 부두별 건설계획(품목별 접안시설)]

(단위 : 천톤, 선석)

부두별	계	모래	양곡	시멘트	철강	기계	자동차	목재	일반	다목적
규모	45선석	3×7	50×2	20×4	30×1	30×2	50×1	30×7	5~50×18	30×3

※ 자료 : 항만물류과

업벨트 조성으로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항만적체 현상과 과다한 물류비가 발생되고 있다. '99년 기준으로 항만의 시설물은 88.6%이고, 컨테이너 항만시설 확보율은 71.5%에 불과하여 '97년 기준 한국은 GNP대비 기업물류비가 12.9%로 미국의 9%, 일본의 6.5%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개발 및 개요

총사업비 2조 9천 464억 원을 들여, 오는 2011년 말까지 3단계로 나누어 추진 중에 있는 평택항은 최종 완공시 205만 평 부지에 5만 톤급의 갑문 1개를 비롯해 62개 선석(13km)의 접안시설과 5만 톤급 갑문 1개, 그리고 27.1km의 호안시설을 갖추게 된다. 이때에 평택항의 연간 하역능력은 6천 200백만 톤으로, 인천항의 3천 900만 톤 보다 약 1.5배 규모로 커지게 된다.

부산항 및 광양항과 함께 3대 국책항만으로 선정된 평택항은 인천항의 대체항으로 투입되는 예산이나 시설규모에서 동남아시아권역 전체 물류 유통을 책임질 수 있다. 평택항은 현재 평택지역 4개 선좌와 충남 당진에 한보, 동부 등의 기존 민자부두 5개 선좌가 가동되고 있다. 정부 4개, 민자 22개 등 26개 선좌부두를 건설하는 현재 2단계(1997~2001)의 경우 IMF관리 이후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기업체들이 자금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차질을 빚기도 하였으나 포기한 업체의 부두를 정부가 맡아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현재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22개 선좌를 개설하는 3단계(2002~2011년)는 양곡, 철강, 자동차, 일반화물, 모래, 컨테이너, 유류 등의 부두로 개발될 예정이다.

▮ 평택항 일반부두 오풍호 첫 입항

평택항은 지난 99년 3월 17일 4천 4백 92톤급 오풍호가 입항해 중국산 토우로 운반할 석유화학제품 3천 8백톤을 선적,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첫걸음을 내디

딘 이래, 현대 자동차(주) 아산 공장과 기아자동차 화성 및 소하리 공장에서 생산되는 수출용 자동차 연간 30만 6천대를, 평택항을 수출 전용부두로 사용하기 위해 자동차 선적에 적합하도록 사업비 110억 원을 투입, 일반부두의 3, 4번 선석에 교량 시스템 등을 설치(조수간만의 차를 극복 하기 위한 것)하고, 2000년 7월부터 평택항을 통하여 현대차 및 기아차가 수출을 시작하여 하반기에 151천여 대를 평택항을 통하여 수출함으로써, 현대차 등의 물류비 절감과 함께 우리의 지역 경제 및 평택항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평택항을 통해 첫 수출되는 자동차

▮ 평택항 컨테이너선 취항

3) 평택항 개발 여건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항만과 물류단지 배후수송시설, 도시계획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항만개발 투자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98년도 기준으로 수출입 컨테이너 518만 8천TEU 중 수도권 수요가 47.2%인 243만 5천TEU를 차지하고 있고, 충청지역 45만 8천TEU를 포함하면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56.1%인 289만 3천TEU를 차지하고 있어 평택항 이용시에는 부산항 이용시보다 연간 약 7,521억 원의 내륙운송비(TEU)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서울～평택 150$, 서울～부산 386$)

또한 평택항은 동북아의 지리적 중심지역으로 각국의 화물 수송의 최적지로서 평택항에서 산둥성 영성시를 운항할 경우의 거리는 388km로 인천항에 비하여 50km가 단축되는 효과가 있으며, '99년도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총 925,751 TEU로 '98년도와 비교하여 26.8%의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평택항은 아시아 역내 경제권의 부상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국과

[1999년 한 · 중 항로 항만별 물동량 현황]

(단위 : TEU)

구분	계	대련	천진	청도	상해	기타
물동량	925,751	141,299	250,867	205,460	196,527	131,598

[평택항 개발 계획 현황]

단계별구분		전체	1단계 ('89~98)	2단계 ('97~2001)	3, 4단계 (2002~2011)
계획	계	62	14	26	22
	재정	21	4	7	10
	민자	41	10	19	12
실적	계	14	8	6	
	재정	9	4	5	
	민자	5	4	1	
	비고		• 포승지구 동부두 3만 톤급 4선석 • 한보철강 3선석 • 동부제강 1선석	• 포승지구 서부두 2선석 • 정부재정 전환3 선석 • 포털대체부두 1 선석	

※ 자료 : 항만물류과

의 최접근지에 위치해 있으며 평택항을 중심으로 서울, 인천, 청주, 대전, 수원 등의 도시가 반경 70km 이내에 놓여 있으며, 수도권 및 중부권과의 연계가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만으로 개발되어야한다. 배후지 육상 운송망으로서 2001년 말 인천-목포간 완공을 목표로 활발히 공사 진행중인 서해안 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있으며, 현재 건설 중인 동서고속도로가 2002년도에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2004년까지는 중부고속도로와 격자형으로 연결뿐만 아니라 국도 1, 38, 39, 43, 45, 82호 도로가 완료되어 운행 중이거나 일부 공사 중에 있어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이 국내 주요도시와의 2시간 이내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지리적 이점으로 화물 물류비 절감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평택항과 경부고속도로가 연결되는 산업철도(총연장 27km)가 당초 국가교통망 계획상 후반기 기간(2011~2019년)에서 전반기 기간(2003~2011)으로 앞당겨져 조기 개발토록 예정되어 있다.

4) 항 운영 현황

평택시는 평택항 조기 활성화를 위해 국내, 외의 항만 관계 유력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99년 7월 10일 '제1회 평택항 국제 포럼' 을 개최하였고, 이어 평택항이 국제항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평택시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장단으로

구성된 평택항 홍보단을 구성, '99년 8월 4일로부터 14일 까지 11일간 중국, 일본의 대형 항을 찾아 평택항 홍보와 함께 정기, 부정기항로의 개척을 협의, 추진한 결과 천진항 및 청도항과는 우선 부정기선을 시작으로 정기항로를 개설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중국 산동성의 관문인 영성시와는 평택항과 용안항간에 정기화물선을 취항키로 하고, 필요한 절차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키로 하는 의향서를 교환하는 등 항만 세일즈를 펼침으로써 우리 시가 본격적인 동북아의 무역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마련하였으며, 2000년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7일간 중국의 요녕성 대련시, 강소성 연운항시, 상해시 남희현, 절강서 영파시 등을 방문해 이들 도시와 우호 교류 의향서를 체결하고 경제, 교역, 문화, 과학기술 등 다방면에 걸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제1회 평택항 국제포럼

특히 요녕성 대련시, 강소성 연운항시와는 '99년에 합의한 산동성 영성시와 함께 여객과 화물을 동시에 운반할 수 있는 카페리를 조기에 취항할 수 있도록 하여, 정기항로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하기로 협의 했다. 이같이 평택항 활성화가 가시화되자 평택항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평택항 권역을 관세,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1) 운영 중인 부두현황

- 대상부두 : 1단계 4만 톤급 4개 선석 960m(야적장 73천 평)
- 운영사 및 이용현황
  - 포항제철 1번 선석(철강)
  - 평택항만 2번 선석(일반부두)
- 운영기간 '98. 7~2007. 12
  - 서부두 2개선석 2001. 7월 준공 (운영사 별도선정)

(2) 물동량 취급현황

(단위 : 천톤)

구분	계	철강	모래	자동차	유류	기타	비고
1999	21,132	3,121	4,830	-	17,220	961	
2000	31,122	3,681	6,121	1,429	18,993	898	자동차 151,249 콘테이너 1,953TEU

※ 자료 : 항만물류과

(3) 항로개설

1 정기화물선

- 해운사 : 장금상선
- 취항일자 : 2000. 10. 27
- 운항항로 : 평택항 - 홍콩(2주 1항차), 청도(주 1항차)
- 향후 항로 개설 계획 : 천진(2001. 3월말 예정)

2 카페리 항로

- 확정항로 : 평택항 - 중국 산동성 영성시 용안항
- 투입선박현황
- 선박규모 : 12,000톤급
- 항해거리 : 210마일(338km)
- 항해속도 : 18～20 노트(12시간 소요)
- 적재 능력 : 여객 467명, 화물 136 TEU
- 향후 항로 개설계획 : 단기 - 산동성 일조항
  중 · 장기 - 요녕성 대련항, 하북성 진황도항

3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 위치 : 포승면 만호리 570번지
- 규모 : 부지 : 5,396
  건물 : 연건평 1,489평
  주차장 : 3,600평(300면 확보예정)
- 공사 기간 : 2000. 12～2001. 7
- 사업비 : 36.8억 원

5) 평택항 물동량 전망

평택항은 '99년에 2,613만 톤의 물동량을 처리하였으며 2006년에 6,475만톤, 2011년 8,878만톤 및 2020년 1억 1,454만 톤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되어 '99～2011년 연평균 증가율은 10.7%에 이르고 있다. 항만시설 소요 화물량은 2006년 4,187만톤, 2011년 6,359만 톤 및 2020년 8,378만 톤으로 17.8%, 2011～2020년 3.1%의 연평균 증가율로 총 항만 물동량의 증가율은 약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기

▮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

타 화물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져 1999~2011년 기간동안 37.3%의 높은 신장세가 예상된다.

6) 평택항의 발전방향 및 과제

수도권 제2 관문항으로 국토 서해안 중부지역에 위치한 평택항은 국가발전과 수출산업의 급성장에 힘입어 급증하는 화물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 수도권 내의 신규 공단 밀집현상 해소, 중부권 개발에 따른 국토균형개발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인천항 대체항이 아닌 국가 지정항만으로서 독자적 기능의 국제 무역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평택항의 단계별 개발추진계획을 보면, 1단계('89~'98)사업으로 정부재정사업은 계획대로 포승지구 동부두에 3만 톤급 4선석이 완료되었고, 민간사업으로는 한보철강 3선석(5만 톤급, 1, 3만 톤급 2)이 완료되었으며 동부제강에서 5만 톤급을 5천 톤급으로 축소하여 완공하였고 모래부두 7선석은 현재 유보된 상태이다. 2단계('97~2001)사업으로는 포승지구 서부두 4선석 중 3만 톤급 2선석만 건설 중으로 2001년 7월 준공 예정이며 민자 사업은 22선석 중 포항제철에서 대체부두 건설이 금년 2월 14일 착공하여 2003년 말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하고 있으며 또한 평택항 개발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민자개발로 계획되어 있었던 동부두 3선석(5만 톤, 2,3만 톤금 1)이 정부재정 개발 부두로 전환되어 금년도 총예산 1,484억 원 중 기초공사비로 50억 원이 책정되어 2004년 준공을 목표로 금년 상반기 중 착공될 예정이다.

포승지구 동부두의 경우 현재 포항제철에서 사용하고 있는 RO - RO부두가 연간 200만 톤의 하역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잡화를 처리하고 있는 3만 톤급의 일반부두 1선석의 경우 연간 593만 톤의 화물처리가 가능하고, 동부두의 2개 선석은 자동차 부두로 전환시킴으로써 하역 능력이 연간 300만 톤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2001년 서부두 2선석이 완공되면 평택항의 적정 하역 능력은 989만 9천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택항 종합개발 기본계획' 에 의한 정상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IMF 외환위기로 인하여 민자사업으로 계획되었던 부두에 대해 민간 사업자가 개발을 포기하였으나 2~3년이 지난 시점까지 정부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이는 당초 정부의 철저한 사전분석 절차 없이 평택항 개발계획의 62개 선석 중 71%인 44개 선석이 민자유치 개발사업으로 과다하게 계획되었으며, 또한 잡화나 양곡 등 수익성이 낮은 부두가 민자로 계획되었던 것이 사업포기의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 이런 과다한 민자부두 개발계획과 더불어 정부재정 사업마저 지연됨으로써 '98년 12 수도권 적체화물 분산기능 확보가 시급함에도 항만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인천항 적체 화물 전이수용 불가로 3년간('95~'97) 총 8,526억 원의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으며, 기획예산처에서 KDI에 발주한「민간투자사업의 재정지원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연구용역」보고서에서 민간 참여가 취소된 부두개발 사업의 정부재정 전환의 필요성과 해양수산부에서 KMI에 발주한「신항만 투자사업 재원조달 및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용역보고서에서도 정부재정전환이 시급하다는 권고가 있어 2000. 11. 11 동부두 3선석(5만 톤급 2, 3만 톤급 1)에 대한 재정전환사업이 확정되어 2001년에 총 1,484억 원 중 50억 원을 확보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 착공하여 200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재정전환 3개 선석의 정상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적기 예산 투자가 필요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1) 평택항의 민자유치

평택항의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관심과 배려가 절실히 요구되며 투자주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부+지자체+민자+외자로 다원화하고 민자우선추진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하되 민자추진 가능사업은 민간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선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아울러 재정투자 사업은 정부가 시급히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외국의 경우 하부시설은 정부가, 상부시설은 민간이 건설하는 추세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에 대한 검토 및 조속한 시행이 요구된다.

(2) 평택지방 해양수산청의 조기 신설

평택항은 우리나라 3대 국책항만의 하나로서 '86년에 1만 3천 톤에서 '99년에는 2,163만 톤으로 161배 증가하고 있는 물동량 추이에서 알 수 있듯이 물류체계상 그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2011년에는 물동량이 8,621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00. 10. 27 정기 컨테이너선이 취항하여 평택-홍콩, 청도간 주 1항차로 운영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상해, 영파 등 중국 상해 이남 항만과도 항로 개설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평택항 서부두 건설

중국 영성시 용안항과는 2001년 9월 국제여객(카페리)항로를 개설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연건평 1,489평의 국제여객터미널을 2001년 8월 중 준공예정으로 건립중에 있으며 자동차 수출부두 개항으로 연간 40만 대의 자동차가 평택항을 통해 수출이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내륙 시, 도를 제외한 11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경기도에만 지방해양수산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평택해양수산청의 조속한 신설이 요청된다.

(3) 평택항 발전을 위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제정

평택시와 같이 광역개발권역에 있는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대기업 공장의 신, 증설이 가능하나 평택시는 경기도에 위치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된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되어 대기업의 신 · 증설이 불가하여 평택항 개발 촉진 및 활성화에 직 · 간접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최소한 첨단업종에 한하여는 대기업 신 · 증설이 허용되도록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4) 평택항 종합개발 기본계획의 재정비

해양수산부에서는 5년 주기로 평택항 종합개발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해양수산개발원, (주)건일엔지니어링 및 (주)동일기술공사 공동 수행하에 「평택항 종합개발 기본계획재정비용역」(2000. 7. 11~2001. 7. 10)이 진행중에 있으며, 당초 기본계획에서 미진했던 국제여객터미널 부두확보, 잡화, 목재 부두의 다목적 또는 컨테이너부두로의 기능전환 배치, 항만 친

수공간의 확보, 갑문식 내항형식을 감조식으로 변경, 민간 자본유치를 위한 유인책 강구, 대형선박의 입, 출항시 안전을 위해 현행 400~1,000m의 항로 폭을 600~1,000m로 확장, 인천지방 해양수산청 송탄출장소를 평택지방 해양수산청으로 승격 또는 신설 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항만발전과 연계한 장단기 추진과제로 관세자유지역지정, 산업철도의 조기 건설, 평택항 배후지에 대한 도시계획의 조기 수립 및 개발,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서 해안 고속도로의 평택항 IC 및 전용도로 개설 등이 평택항 개발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